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정치학석사학위논문

신생 민주주의 국가의 투표율 하락에 대한 연구 :
경제 세계화의 영향을 중심으로

2014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부 정치학전공
송 정 민

신생 민주주의 국가의 투표율 하락에 대한 연구 :
경제 세계화의 영향을 중심으로

지도교수 박 원 호

이 논문을 정치학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4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부 정치학전공

송 정 민

송정민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14년 2월

위 원 장 박 찬 옥 (인)

부 위 원 장 박 원 호 (인)

위 원 강 원 택 (인)

위 원 권 형 기 (인)

요약(국문초록)

투표율 하락에 대한 기존 연구에서 신생 민주주의 국가(new democracies)의 투표율 하락은 중요한 연구 문제로서 인정받지 못하였고, 대부분의 연구는 1950년 이후 장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선진 민주주의 국가(established democracies)의 사례를 설명하는데 집중되었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 이후 상대적으로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이 안정된 투표율을 유지하고 있는 것과 달리, 한국을 포함한 신생 민주주의 국가들의 투표율은 20년이라는 길지 않은 기간 동안 10-20%의 가파른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신생 민주주의 국가들의 투표율 하락 현상의 원인을 분석한다. 기존의 투표율에 대한 연구들이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의 사례에 집중되어 있었던 것과 달리, 본 연구는 투표율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신생 민주주의의 사례로 확장하여 “왜 신생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보다 투표율이 급격하게 하락하였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한다. 본 연구의 이론적 모델은 경제 통합, 즉 경제 세계화가 국가 정책 결정자들의 경제 정책에 있어서의 자율성을 약화시키고, 이에 따라 선거가 별 다른 차이를 만들어낼 수 없다는, ‘투표 기대효용’의 하락과 궁극적인 투표율 하락으로 이어진다는 전제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은 이론적 모델의 연장선상에서, 본 연구는 신생 민주주의 국가들의 급격한 투표율 하락 현상을 ‘경제 세계화의 투표율 하락 효과’에 기인한 것으로 가정한다. 대부분의 신생 민주주의 국가들이 체제 변환 혹은 금융 위기와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

경제 세계화 과정을 수행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경제 세계화의 투표율 하락 효과가 극대화되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가설 하에 본 연구는 17개 선진 민주주의 국가, 21개 신생 민주주의 국가에서 1980년대 중반 이후 시행된 270개의 선거 집합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을 수행하였고, 분석 결과는 신생 민주주의 국가에서 경제 세계화의 투표율 하락 효과가 훨씬 크다는 가설을 강하게 지지하였다. 또한 경제 세계화의 투표율 하락 효과는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조조정프로그램을 경험한 국가, 국내총생산 대비 사회복지 지출 비율이 낮은 국가에서 더 강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이에 더해 경제 세계화로부터 투표율 하락까지 이어지는 인과관계의 고리가 길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와 같은 취약성을 다수준 분석(multi-level analysis)을 통해 보완하고자 하였다. 전체 31개국의 선거 후 설문조사 데이터가 집적된 선거체계비교연구(CSES) 데이터를 활용한 개인 수준 자료 분석 결과, 투표율 하락에 대한 경제 세계화 가설의 주장은 개인 수준 자료 분석에서도 일관되게 지지되었다.

주요어 : 투표율, 투표율 하락, 경제 세계화, 신생 민주주의, 선진 민주주의, 정책 수렴.

학 번 : 2011-20209

목 차

I. 서론	1
II. 기존 연구 검토	4
1. 투표 참여의 이론적 기초 : 합리적 유권자 가설	4
2. 투표 참여, 투표율에 대한 기존 연구	7
III. 투표율 하락과 경제 세계화의 심화	18
1. 투표율의 시계열적 변화 : 기존 투표 참여 연구에 대한 도전	18
2. 경제 세계화의 심화와 투표율 하락	22
3. 경제 세계화와 신생 민주주의 국가의 투표율 하락	27
IV. 연구 가설과 연구 방법	30
1. 연구 가설	30
2. 연구 방법과 변수의 조작화	34

V. 민주주의 유형과 투표율 하락 42

1. 민주화 이후 한국의 투표율 변화 42

2. 민주주의 유형에 따른 투표율 하락 비교 45

VI. 분석 결과 50

1. 경제 세계화와 투표율 하락 : 집합 수준 분석 50

2. 경제 세계화와 투표율 하락 : 개인 수준 분석 58

VII. 결론 및 제언 65

참고문헌 69

부록 80

Abstract 83

표 목차

<표 1> 분석 대상 국가.....	35
<표 2> 집합 수준 분석 모델 (OLS Regression).....	40
<표 3> 개인 수준 분석 모델 (Logistic Regression).....	41
<표 4> 회귀분석 1 : 경제 세계화, 민주주의 유형, IMF 구조조정 경험의 투표율 하락에 대한 영향.....	51
<표 5> 회귀분석 2 : 경제 세계화, 좌파 정당 득표율, 복지 지출 비 율의 투표율 하락에 대한 영향.....	55
<표 6> 분석 대상 국가 (CSES Module 3).....	59
<표 7> 민주주의 유형과 투표 참여율	60
<표 8> 로지스틱 회귀분석 : 투표 참여에 대한 개인 수준 분석 모델 ...	60
<표 9> 투표 기대 효용 관련 변수에 대한 민주주의 유형 간 비교.....	62
<표 10> 데이터 출처 : 집합 수준 분석 모델.....	80
<표 11> 선거 목록 : 집합 수준 분석 모델.....	81
<표 12> 선거 목록 : 개인 수준 분석 모델 (CSES Module 3).....	82

그림 목차

<그림 1> 연구의 분석틀 : 경제 세계화 - 투표율 하락의 인과 관계 고리	33
<그림 2> 1987년 이후 한국 선거 투표율 변화	42
<그림 3> OECD 18개국의 투표율 변화에 대한 집합적 추세(aggregate trend)	45
<그림 4> 1980년대 중반 이후 민주주의 유형에 따른 투표율 하락 비교 (1)	47
<그림 5> 1980년대 중반 이후 민주주의 유형에 따른 투표율 하락 비교 (2)	49
<그림 6> 투표율 하락에 대한 경제 세계화의 차별적 영향력	53
<그림 7> 사회 복지 예산 지출 비율의 변화에 따른 경제 세계화 지수의 영향력 변화	56

I. 서론

기존의 투표 참여, 투표율에 대한 연구는 주로 유권자 개인 수준에서 누가 투표하였고, 누가 기권하였는지에 대한 원인을 탐색하는 데 집중되었다. 개인 수준의 연구에서 대표적인 이론은 유권자의 교육 수준, 소득 수준 등의 ‘사회 경제적 변수(socioeconomic variable)’의 영향력에 주목한 버바와 나이(Verba and Nie 1972)의 자원 모델(resource model)로, 교육 수준이 높고,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풍부한 정치적 자원을 바탕으로 정치에 적극적인 참여한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자원 모델의 가설은 이후의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경험적으로 검증되어왔는데, 역설적인 것은 이와 같은 자원 모델이 집합 수준의 투표율 변화를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다(Gray and Caul 2000). 그레이와 콜에 따르면, 지난 50년간 민주주의 국가들에서는 지속적으로 교육 수준과 소득 수준이 증가해왔지만, 투표율은 반대로 지속적으로 하락해왔다.

또한, 민주주의 국가들에서 나타난 투표율 하락 현상은 집합적 수준의 투표율 차이에 대한 기존 가설들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유권자 등록제도, 강제 투표, 비례대표제, 대통령제-의원내각제 등의 제도적 변수는 지역 간, 혹은 국가 간 투표율 차이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가장 주목받은 변수였지만, 투표율의 지속적인 하락이 진행되는 동안 각 국가의 선거 제도는 대부분 큰 변화 없이 그대로 유지되어 왔다. 이처럼 투표율 하락 현상은 민주주의 국가들 전반에서 나타나는 ‘시계열적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새로운 가설을 요구했고, 연구자들은 ‘동원의 약화’, ‘세대의 교체’, 그리고 ‘경제 세계화’의 세 가지 측면에서 그 원인을 탐색해왔

다. 즉 정당과 노동조합과 같은 사회조직의 정치적 동원력의 약화, 새로이 투표권을 획득한 세대의 낮은 투표율, 경제 세계화의 진행에 따른 선거의 중요성 약화가 투표율 하락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는 것이다(Gray and Caul 2000; Franklin 2004; Steiner 2010).

투표율 하락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에서, 주된 연구의 대상이 된 것은 적어도 제2차 세계 대전 이후로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이른바 ‘선진 민주주의 국가(established democracies)’의 투표율 하락 현상이었다. 연구자들은 1950년대, 혹은 1960년대의 투표율을 기준으로 하여 40-50년 정도의 장기간 동안 진행된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의 투표율 하락 현상의 원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들에서 1970년대 중반, 늦게는 1980년대 후반에 민주화를 경험한 ‘신생 민주주의 국가(new democracies)’의 투표율 변화는 충분히 주목받지 못하였다. 신생 민주주의 국가들 또한 짧게는 15년, 길게는 30년 이상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며 선거를 시행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정초선거(founding election) 이후의 투표율 변화상과 그 원인에 대한 분석이 부재했던 것이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선진 민주주의 - 신생 민주주의 사이의 차이가, 1990년대 이후 본격화된 경제 세계화에 따른 결과로 가정한다. 물론, 투표율 하락에 대한 경제 세계화의 영향력은 새로운 가설은 아니다. 투표율 하락에 대한 경제 세계화 가설은 다운즈(Downs 1957)의 합리적 유권자 가설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 즉 경제 세계화가 각 국 정부들의 경제 영역에 대한 정책 자율성을 약화시키고, 이에 따라 주요 정당들의 정책적 입장이 수렴하며, 결과적으로 투표로부터 유권자가 얻을 수 있는 효용(B)이 하락하게 되어 투표에 대한 유인동기가 하락하게 된다는 것이다(Steiner 2010; Marshall and

Fisher 2010). 그러나 기존의 투표율에 대한 경제 세계화 가설 논의 또한 대부분이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의 사례에 국한되어 있었던 바, 본 연구는 가설을 신생 민주주의 국가의 사례에도 적용하고 경제 세계화의 두 민주주의 유형에서의 ‘차별적 영향력’을 밝히고자 한다.¹⁾ 본 연구는 경제 세계화의 영향력이 경제 위기 혹은 체제 전환의 과정에서 외부(IMF나 World Bank)로부터의 개입을 수용한 신생 민주주의 국가들에서 더 크게 나타났을 것이라 가정하며, 이와 같은 ‘급격한 세계화’가 신생 민주주의 국가의 투표율 하락에 주된 원인이 되었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이와 같은 가설 하에 본 연구는, 신생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경제 세계화의 심화에 따라 투표율이 하락하였는지, 그리고 하락하였다면 그 영향력의 크기는 선진 민주주의 국가의 사례와 어떻게 다른지 경험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후의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2장에서 본 연구는 먼저 투표 참여에 대한 기존 연구들을 주요 독립 변수들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3장에서는 투표율 하락과 경제 세계화의 관계, 그리고 신생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세계화의 정치경제적 맥락을 논한다. 4장에서는 연구의 주요 가설을 제시하고, 분석 모델에서 사용된 데이터와 변수들을 설명한다. 5장과 6장에서는 선진 민주주의 국가, 신생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1980년대 이후의 투표율 변화상을 분석하고, 집합 수준과 개인 수준의 경험적 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7장에서는 연구의 한계를 논하고 추후 연구를 위한 보완점을 제언한다.

1) 본 연구에서는 선진 민주주의, 신생 민주주의 국가를 분류하는 데 있어서 ‘민주주의 유형’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실제 선진 민주주의와 신생 민주주의에 대한 구분은 ‘민주주의의 나이(age of democracy)’에 따른 것이나, 본 연구에서는 연속변수로서의 민주주의 나이 변수를 활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다 나은 이해를 위해서 ‘신생 민주주의’, ‘선진 민주주의’라는 두 가지 분류의 ‘민주주의 유형’이라는 용어를 활용한다.

II. 기존 연구 검토

1. 투표 참여의 이론적 기초 : 합리적 유권자 가설

투표율, 보다 정확히는 투표 참여 혹은 불참의 원인을 논하는데 있어서 이론적 기초가 되는 것은 합리적 선택이론에 기반을 둔 다운즈(Downs 1957)의 ‘합리적 유권자 가설’일 것이다. 다운즈는 투표 참여의 비용(C: Cost)과 그로 인해 얻을 것으로 기대되는 효용(B: Benefit), 그리고 자신의 표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확률(P: Probability)를 통해 투표 참여와 기권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다운즈는 확률과 효용을 곱한 값(PB)에서 비용(C)을 뺀 값(R: Reward)이 0보다 클 때 투표를 이루어진다고($R = PB - C > 0$), 그렇지 않을 때는 기권한다고 보았다($R = PB - C < 0$).

다운즈의 합리적 유권자 가설에서 투표는 다분히 도구적(instrumental)인 성격을 지니는데, 유권자들은 각 후보의 승리로부터 기대되는 효용을 계산하고, 최상의 효용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는 후보에게 투표를 한다(Mueller 2003). 이처럼 유권자에게 효용은 ‘상대적인 성격’을 지니는데, 따라서 합리적 유권자 가설에서 효용(B)은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정책으로부터 기대되는 효용의 차이(the differential Benefit)로 정의된다. 즉, 갑, 을 두 명의 후보가 출마하였을 때, 갑 후보의 정책으로부터 기대되는 효용이 100, 을 후보가 80이라면, 투표자의 효용(B)은 20인 것이다.

다음으로 비용(C)의 경우, 투표에 요구되는 시간, 기회 비용과 후보자 선택에 요구되는 정보 등이 비용의 범주에 포함된다. 이에

더해 과거 미국의 흑인 유권자를 차별할 목적 하에서 시행되었던 ‘투표세(poll tax)’와 ‘읽기 및 쓰기 시험(literacy test)’과 같은 조치들도 ‘높은 투표 비용’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으며 (Ashenfelter and Kelley 1975), 오늘날 한국의 부재자 투표 등록 제도나 미국의 투표자 등록제도 또한 이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다운즈의 가설에서 가장 큰 논쟁의 지점이 된 것은 P(Probability), 유권자의 투표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확률이었다. P는 다음과 같이 정의되는데, 갑 후보에게 투표한 유권자의 한 표로 인해 을 후보에게 한 표차로 지고 있던 갑 후보가 동률을 이루거나, 동률인 상태에서 유권자의 한 표로 인해 갑 후보가 승리할 확률을 말한다. 즉, 이를 위해서는 나를 제외한 다른 유권자들의 투표 결과가 동수이거나 1표 차이여야 한다는 전제가 요구되는데, 전체 유권자의 수가 적어도 수 만 명에 이르는 선거에서 이와 같은 전제가 성립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결국 P의 값은 0에 수렴할 정도로 작아지게 되고, B의 값에 관계없이 PB의 값도 0에 수렴하여 C보다 작아지게 된다($PB - C < 0$). 그러나 이와 같은 합리적 유권자의 가설의 내용과 달리, 실제 유권자들의 대다수는 투표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를 투표의 역설이라고 부른다(The Paradox of Voting).

다운즈 이후 이와 같은 투표의 역설을 해결하기 위한 시도는 다양한 방향으로 이루어졌다(Fiorina 1976; Ferejohn and Fiorina 1974). 대표적으로 라이커와 오드훅(Riker and Ordeshook 1968)은 ‘시민적 의무(D: Civic Duty)’ 모델을 통해 투표의 역설을 해결하고자 하였는데, 기존의 $PB - C$ 의 식에 시민적 의무라는 D값을 추가하여 전체 효용함수를 양수로 만들고자 하였다($PB - C + D > 0$). 물

론 이와 같은 라이커와 오드슈의 모델이 ‘합리적 유권자’라는 기존의 전제와 배치된다는 비판도 존재하며, 그와 같은 시민적 의무를 갖게 되는 과정과 원인에 대한 또 다른 설명이 요구되는 것도 사실이다(Mueller 2003).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의 투표 참여, 투표율에 대한 연구는 라이커와 오드슈의 PB-C+D라는 식의 기반 위에서, P, B, C, D 각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맥락적 변수(사회적 맥락, 정치적 맥락, 제도적 맥락 등)들을 조작화하여 종속변수인 투표 참여와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Verba, Nie, and Kim 1978; Wolfinger and Rosenstone 1980; Huckfeldt and Sprague 1987; Franklin 2004).

2. 투표 참여, 투표율에 대한 기존 연구

투표 참여, 투표율에 대한 연구는 독립변수의 성격에 따라 분류된다.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에서 가장 주목받은 여섯 가지의 독립변수를 중심으로 기존의 연구들을 분류 및 검토한다.

1) 사회 경제적 변수(socioeconomic variable)

투표 참여 연구에서 가장 전통적인 이론은 버바와 나이(Verba and Nie 1972)가 제시한 자원 모델(resource model)일 것이다. 로젠스톤과 한센(Rosenstone and Hansen 1993)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선거 정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돈, 시간, 정보 처리 능력 등의 개인의 자원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따라서 자원 모델에서는 정치 참여에 요구되는 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즉 유권자의 사회 경제적 지위(socioeconomic status)가 높을수록 정치에 참여할 확률이 높아진다고 가정한다. 교육 수준이 높고,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풍부한 정치적 자원을 바탕으로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다.

가장 대표적인 사회 경제적 변수라고 할 수 있는 교육 수준의 경우,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후보자 선택에 요구되는 비용(C)이 감소하고, 장기간의 교육을 통해 강한 시민적 덕성(D)을 획득하기 때문에 투표에 참여할 확률이 높아질 것이라 가정한다(Campbell et al. 1980; Milbrath and Goel 1977). 윌핀저와 로젠스톤(Wolfinger and Rosenstone 1980)은 교육연수가 올라갈수록 높은 수준의 시

민적 의무감, 정치 관심도, 정치 지식을 갖고 있으며, 이와 같은 결과가 교육 수준에 따른 투표율의 차이로 나타났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교육 수준이 투표율과 갖는 정적 관계는 집합적 차원의 분석에서도 확인되고 있다(Chapman and Palda 1983; Cox and Munger 1989; Filer et al. 1991; 정수현 2012). 블레이스(Blais 2000)는 1972년에서 1995년까지 91개국에서 열린 324개의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을 분석하였는데, 분석 결과 문맹률이 낮을수록 각국의 해당 선거에서의 투표율이 상승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²⁾

다음으로 소득 수준에 있어서 살펴보면, 높은 소득 수준은 당장의 생존의 문제가 아닌 정치와 선거의 이슈에 관심을 가질 수 있게 하는 자원이 된다(Rosenstone 1982).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사람은 자신의 한정된 자원을 정치와 같은 일상과 떨어져 있는 부분에 투자할 수 없다는 것이다(Wolfinger and Rosenstone 1980; Teixeira 1992; Kleppner 1982). 실제로 프랭클린(Franklin 2001)은 유로바로미터(Eurobarometer)의 서베이 결과를 바탕으로 소득 수준이 가장 높은 층의 투표율이 낮은 층의 투표율보다 평균적으로 약 14%

2) 그러나 교육 수준의 영향력을 논하는데 있어서 반대의 주장도 존재한다. 오히려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자신의 표가 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칠 낮은 확률(P)을 냉정히 평가하고, 투표 참여를 포기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Mueller 1993). 실제로 버바 등(Verba et al. 1978)과 네비트 등(Nevitte et al. 2009)의 비교 연구에 따르면, 사회 경제적 지위의 영향력은 미국에서 가장 강하게 나타나며, 다른 국가에서는 상대적으로 그 영향력의 강도가 약하다. 대표적으로 1990년대 이후 한국 선거 연구에서는 기존의 가설과 달리 교육 수준과 소득 수준이 낮은 층에서 더 높은 투표율이 산출되는 분석결과가 다수 나타나고 있으며(강원택 2008; 김옥 1998; 박찬욱 1992; 1996; 서현진 2008; 이남영 1993), 네비트 등(Nevitte et al. 2009)의 비교 연구에 따르면 호주, 체코, 일본, 뉴질랜드 등에서는 교육 수준이 투표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특히나 집합 수준에서의 교육 변수는 투표율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뚜렷한 한계를 보이는데, 국가들의 교육 수준이 상승함에 따라 투표율 또한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오히려 투표율이 하락하는 추세가 발견되고 있기 때문이다(Franklin 2004).

높음을 밝혔다. 또한 집합적 수준의 연구에서도, 많은 연구들에서 경제적 수준이 높은 국가일수록 높은 투표율이 나타나는 관계가 발견되고 있다(Powell 1984; Blais and Dobrzynska 1998; Blais 2000). 이와 같은 관계에 대해 포웰(Powell 1984)은 잘 사는 나라일수록 정당체제가 안정화되고, 그에 따라 안정적인 정당일체감을 바탕으로 투표율이 상승한다고 주장하였다.

2) 연령과 습관으로서의 투표

일반적으로 연령과 투표율은 연령이 상승할수록 투표율도 상승하는 정의 관계를 갖다가 70세가 넘는 노인층에서 조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Lipset 1960; Flanigan and Zingale 1975; Milbrath and Goel 1977). 이에 따라 젊은 층의 낮은 투표율과 고령층의 높은 투표율의 원인을 설명하려는 다양한 시도가 존재해왔다 (Glenn and Grimes 1968; Goerres 2009; Plutzer 2002; Strate et al. 1989).

연령과 투표 참여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유력한 가설은, 젊은 연령일수록 비 정치적 행위에 투입되어야 할 자원이 많다는 것이다 (Strate et al. 1989; Converse and Niemi 1971). 이 가설에 따르면, 젊은 층일수록 결혼 상대도 찾아야 하고, 교육도 받아야 하고, 직장도 찾아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정치에 관심을 기울일 수 없게 된다. 또한 콘웨이(Conway 2001)는 젊은 층의 경우 아직 거주지가 확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많은 이동을 하게 되고, 이것이 낮은 투표율로 이어진다고 분석하고 있다. 실제로 올핀저와 로젠스톤

(Wolfinger and Rosenstone 1980), 그리고 하이튼과 올핀저(Highton and Wolfinger 2001)는 젊은 층 중에서도 거주지 안정성이 낮을수록, 교육 수준·소득 수준이 낮을 수록 투표율이 낮아짐을 발견한 바 있다.

그러나 연령이 상승하고 투표의 경험이 축적되고 투표 참여에 요구되는 정치적 자원이 축적됨에 따라 유권자들은 높은 비율로 투표에 참여하게 된다(Abramson et al. 1998). 아브람슨 등(Abramson et al. 1998)은 투표 참여를 일종의 ‘생애 주기(lifecycle)’ 현상으로 이해하고, 결혼을 하고 경제적 안정성과 거주지의 안정성이 확보됨에 따라 투표 참여의 시간적 기회 비용이 감소하고 투표에 참여할 확률이 상승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플러쩌(Plutzer 2002)는 투표 습관의 발전 이론을 제시하는데, 연령이 상승함에 따라 정치적 자원의 차이에 따른 투표 참여율의 차이는 사라지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습관적인 유권자가 된다는 것이다.

3) 동원(mobilization)

최근의 투표 참여 연구에서 ‘자원 모델’은 ‘동원 모델(mobilization model)’과 결합하고 있다(Franklin 2004). 동원 모델에 따르면, 유권자들은 정당, 이익 집단, 후보자, 혹은 주변의 동료의 동원과 설득에 의해서 투표하게 된다(Rosenstone and Hansen 1993; Verba et al. 1995). 동원은 투표 참여를 결정짓는 B, P, C, D 네 가지 요소에 동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보다 주목되는데, 먼저 동원은 후보자 혹은 정당이 주장하는 정책적

입장을 보다 확실히 전달함으로써 다른 후보자와 구별되는 정책적 효용(B)을 보다 크게 만들 수 있다. 이에 더해 동원은 선거 상황, 후보자의 능력, 정책적 입장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투표에 소요되는 비용(C)을 줄일 수 있으며, 한편으로 후보자들 간의 경쟁적인 동원은 유권자로 하여금 자신이 결정자가 될 확률(P)을 실제보다 더 높게 인식하게끔 한다. 마지막으로 동원은 2012년 한국의 총선, 대선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시민적 의무감’에 대한 호소를 통해 투표할 확률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

버바 등(Verba et al. 1995)과 얼라너(Uhlaner 1989)는 그룹과의 일체감, 보다 정확히는 주변의 동료들도 참여할 것이라는 믿음이 ‘무임승차(free-riding)’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정치에의 참여로 이어지게끔 한다는 것을 밝혔다. 실제로 동원과 투표율의 관계는 다수의 경험적 연구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Berelson et al., 1986; Kramer 1970). 가스넬(Gosnell 1927)은 실험을 통해 투표를 독려하는 편지를 받은 시민들이 1924, 1925년 시카고 시의회 선거에서 9% 더 투표할 확률이 높음을 밝혔고, 로젠스톤과 한센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1956년부터 1988년까지의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당과의 접촉이 있었던 유권자의 투표율은 평균적으로 10% 가량 높았으며, 지역 내 시민운동의 횡수가 늘어남에 따라 투표율이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났다.

카프와 반두치(Karp and Banducci 2007)의 비교 연구에 따르면, 동원은 신생 민주주의 국가보다는 상대적으로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 빈도가 높고, 그 영향력 또한 강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는 선진 민주주의 국가의 경우 장기간의 민주주의 경험으로 인해 정당정치가 제도화되어 있고, 정당들이 안정적인 자원을 보유

하고 있지만(Farrell and Webb 2002), 신생 민주주의 국가들에서는 정당들이 동원에 필요한 충분한 자원을 갖고 있지 못하며, 유권자들 또한 정당일체감의 수준이 낮기 때문이다(Birch 2005). 그러나 카프와 반두치의 연구에서 한국은 신생 민주주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정당과 유권자의 접촉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로 김욱(1998)은 한국의 농촌 지역의 강한 ‘동원’의 영향력에 주목하여 투표율의 ‘도저촌고’ 현상을 설명한 바 있다.

4) 제도적 요인

제도적 요인은 특히 집합적 수준에서 투표율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가장 주목받은 독립변수이다. 제도적 요인에 주목하여 투표율 변화 혹은 차이를 설명하려는 시도는 투표 비용(cost)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적 요인과, 유권자가 인식하는 표의 가치, 선거의 중요성(P와 B)과 결부되는 제도적 요인으로 나뉘 수 있다. 전자에 속하는 제도적 요인으로는 미국의 선거전 등록법(registration laws)에 대한 연구, 강제 투표(compulsory voting) 연구 등이 있으며, 후자에는 비례대표제, 단원제-양원제, 대통령제-의원내각제에 대한 연구 등이 속한다.

먼저 미국의 선거전 등록제도의 영향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올핀저와 로젠스톤(Wolfinger and Rosenstone 1980)은 미국 주들의 선거제도-투표율 비교를 통해, 유권자 등록법을 완화할 경우 투표율이 9% 상승할 것이라 예측하였고, 미첼과 블레지엔(Mitchell and Wlezien 1995)과 하이튼과 올핀저(Highton and Wolfinger

1998) 또한 유사한 결과를 예측하였다. 포웰(Powell 1986)은 20개 민주주의 국가와 미국과의 비교를 통해, 미국의 다른 조건(정당일체감, 교육 수준 등)이 정치 참여에 매우 우호적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법적, 제도적 문제점이 투표 비용을 증가시켜 투표율을 하락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강제 투표에 대해서는 강제 투표제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의 투표율과 그렇지 않은 나라의 투표율을 비교하는 국가 단위의 비교 연구가 다수 이루어졌다(Crewe 1981; Jackman 1987; Jackman and Miller 1995). 실제로 라틴 아메리카의 다수 국가들과 호주, 오스트리아, 그리스 등에서는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유권자에게 벌금을 부과하거나 은행 대출에서의 불이익 등의 처벌을 부과하고 있는데(동아시아연구원 2010), 기존의 경험적 연구들은 이와 같은 강제 투표의 영향력을 확인해주고 있다.

단원제-양원제, 대통령제-내각제와 같은 정부 구조와 관련된 제도적 요인의 경우, 유권자가 인식하는 선거의 중요성, 즉 후보자 간 효용의 차이(B)의 측면에서 투표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된다. 잭맨(Jackman 1987)의 19개국 투표율 비교 분석에 따르면 단원제 국가에서 투표율이 더 높으며, 스토크머와 칼카(Stockemer and Calca 2012)는 1990년에서 2010년까지의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의 비교 국가 분석을 통해, 대통령제 국가에서 국회의원 선거의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다는 것을 밝혔다. 또한 안용훈(2010)에 따르면 대통령 선거제도를 결선투표제로 채택한 국가의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이 평균적으로 7.94%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양원제, 대통령제 등의 제도적 요인들은 유권자들로 하여금 현재의 선거의 중요성에 대해 상대적으로 과소평가하게 하며, 이와

같은 인식이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투표율 하락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제도적 요인의 영향력은 민주주의의 발전 수준, 혹은 역사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된다 (Endersby and Kriekhaus 2008; Blais 2000; Gallego et al. 2011). 즉, 여러 번의 경험을 통해서 제도에 익숙해져 있고, 그에 따라 유권자들이 제도의 정치적 영향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일수록 제도의 영향력이 강하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5) 선거의 경쟁성

선거의 경쟁성에 대한 인식은 투표자로 하여금 자신이 선거의 결정자가 될 확률(P)을 보다 높게 인식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 라이커와 오드슈(Riker and Ordeshook 1968)은 1952년, 1956년, 1960년 미국 대통령 선거 전 인터뷰를 통해 응답자들이 선거의 경쟁성을 얼마나 높게 인식하고 있는지 묻고, 효용(B)과 시민적 의무(D)의 영향력을 통제한 상태에서 그 영향력을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1952년 선거에서 낮은 시민적 의무감을 가진 집단을 제외하고는, 세 선거 모두에서 선거의 경쟁성을 높게 인식할수록 투표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프롤리히 등(Frohlich et al. 1978)은 1964년 미국 대선 사례를 통해 다운즈의 가설을 검증하였는데, 선거를 경쟁적으로 인식한 유권자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투표 참여율이 나타났다.

한편 선거의 경쟁성은 설문조사 상에서의 ‘유권자의 인식’뿐만 아니라, 투표 결과로 확인되는 선거의 경쟁성, 예를 들면 1위 후보와 2위 후보간의 득표율 차이나 경쟁하는 정당의 개수 등을 통해서도 측정될 수 있다. 프랭클린(Franklin 2004)에 따르면, 선거에서의 치열한 경쟁은 유권자로 하여금 자신의 표가 갖는 가치를 더욱 높게 평가하게 하고, 이와 동시에 유권자에 대한 활발한 동원을 촉발하여 전반적인 투표율 상승에 기여하게 된다. 선거의 경쟁성이 미치는 영향력은 미국의 선거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에서도 공통적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블레이스와 카티(Blais and Carty 1990)은 20개국의 509개의 선거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선거의 경쟁성이 높을수록 투표율이 상승하는 경향성을 발견하였고, 프랑스, 영국, 이스라엘, 캐나다, 일본 등에서도 마찬가지로의 결과가 나타났다(Rosenthal and Sen 1973; Denver and Hands 1974; Eagles 1991).

그러나 이와 같은 측정 방식에 대해 마쓰자카와 팔다(Matsusaka and Palda 1993)는 생태학적 오류(ecological fallacy)의 가능성을 제기하는데, 사후적인 선거 결과를 바탕으로 선거 이전에 존재하는 유권자의 선거의 경쟁성에 대한 기대를 측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마쓰자카와 팔다는 개인 수준의 분석에서는 선거의 경쟁성에 대한 인식이 투표율에 영향력을 미치지 않지만, 집합 수준에서는 1-2위 간의 득표율 차이가 투표율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고, 이와 같은 차이가 생태학적 오류의 근거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물러(Mueller 2003, 316)와 블레이스(Blais 2000, 59)가 정리한 바와 같이, 많은 연구자들은 집합 수준에서의 1-2위 간의 득표율 차이 혹은 1위의 득표율에서 0.5를 뺀 값을 독립변수로 하여 투표율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고 있고,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 득표율 차이가 커질수록 투표율이 하락하는 경향성이 확인되고 있다.

6) 정책적 차이, 이념적 차이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정당 간의 정책적 차이, 이념적 차이에 대한 유권자의 인식은 투표 행위로부터 얻을 것으로 기대되는 효용(B)과 연관된다. 만약 후보자 간의 정책적 차이와 이념적 차이가 크지 않다면, 유권자의 효용은 어떤 선거 결과가 나오더라도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반대로 후보자 간의 정책적 차이와 이념적 차이가 크다면, 유권자가 얻게 되는 효용은 선거 결과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따라서 후보자 간의 정책적 차이, 이념적 차이가 클 때 유권자의 투표 참여 동기 또한 커진다는 것이 이 가설의 핵심 내용이다. 물론 이에 대한 반론도 존재하는데, 피오리나 등(Fiorina et al. 2005)은 정당의 ‘양극화(polarization)’가 오히려 중도 성향의 유권자들을 소외시키고 투표 참여 동기를 약화시킨다고 주장한 바 있다.

가장 가까운 예로 미국의 2004년 대선의 투표율에 대해 분석한 아브라모비츠와 스톤(Abramowitz and Stone 2006)에 따르면, 2004년 대선의 높은 투표율은 ‘부시 효과(the Bush Effect)’에 기인하는 것이었다. 즉, 2004년 공화당의 대선 후보로 출마한 조지 부시(George W. Bush)는 이념적으로 볼 때 “현대 정치사에서 가장 극단에 있는 대선 후보”였고, 이와 같은 후보자 이념 성향의 양극화가 급격한 투표율 상승의 주된 요인이 되었다는 것이다. 또 다른 예로 강제 투표제를 시행하고 있지 않음에도 매우 높은 투표율을 기록하

고 있는 말타(Malta)의 케이스에 주목한 히르치(Hirczy 1995)는, 두 개의 선택지만을 제공하는 말타의 양당제에서 두 정당의 강령이 이념적으로 뚜렷이 구분되어 있고(사회주의 - 기독교 민주주의), 정책 선호 또한 계급 갈등의 성격이 강하다는 것을 높은 투표율의 원인으로 설명한다.

투표의 효용(B)이 투표 참여에 미치는 영향력은 국가 간 비교 연구를 통해서도 확인되고 있다. 브록킹턴(Brockington 2009)은 28개 민주주의 국가를 대상으로 한 ‘선거체계비교연구(CSES: The Comparative Study of Electoral Systems)’ 데이터를 활용하여 유권자가 느끼는 정당/후보자 간 이념적 차이, 선거에서 경쟁하는 정당들의 이념적 범위가 유권자의 투표 참여 확률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였는데, 정당/후보자 간의 이념적 차이가 크고 정당들이 넓은 범위의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할수록 투표할 확률 또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Ⅲ. 투표율 하락과 경제 세계화의 심화

1. 투표율의 시계열적 변화 : 기존 투표 참여 연구에 대한 도전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본 연구의 관심은 유권자 개인의 투표 참여, 그리고 국가 혹은 집단별 투표율의 차이를 분석하는 것을 넘어서, 투표 참여의 시계열적 변화, 즉 각 국가의 ‘투표율 하락’이라는 현상의 원인을 분석하는 데 있다. 다수의 연구자들은 앞서 검토한 개인적 수준의 투표 참여 분석, 집합적 수준의 투표율 분석의 연장선상에서, 다수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나타나고 있는 ‘투표율 하락’ 현상의 원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한 국가 내에서의 투표율의 시계열적 변화를 분석하는데 있어서, 앞서 집합 수준의 분석에서 주목되었던 제도적 요인의 설명력은 크게 감소한다(Gray and Caul 2000). 왜냐하면 특히나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 제도적 요인은 큰 변화 없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오고 있기 때문이다(Barnes 1997; Flickinger and Studlar 1992; Lewis-Beck and Lockertbie 1989). 그리고 개인 수준의 분석에서 주목된 자원 모델(resource model)의 가설 또한,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평균적인 교육 수준과 소득 수준이 상승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현재의 투표율 하락 추세를 설명하지 못한다. 연구자들은 이처럼 기존의 변수로는 설명되지 않는 투표율 하락 현상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동원의 약화(Gray and Caul 2000; Rosenstone and Hansen 1993; Kernell and Jacobson 2000), 세대별 투표율의 차

이(Franklin 2004; Bhatti and Hansen 2012; Blais et al. 2004; Gallego 2009; Wass 2007)의 요인에 주목하였다.

1) 동원의 약화

먼저 동원의 약화에 주목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로젠스톤과 한센(Rosenstone and Hansen 1993)은 1960년대 이후 20년간의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의 투표율 하락폭의 54%가 동원의 약화(a decline in mobilization)에 기인한 것임을 밝혔다. 분석에 따르면 1960년대와 같은 다양한 정치적 동원이 지속되었을 경우, 미국 대선의 투표율 하락폭은 11.3%가 아닌 2.6%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커널과 제이콥슨(Kernell and Jacobson 2000) 또한 정당과 노동조합과 같은 사회조직의 정치적 동원의 약화가 미국의 투표율 하락에 큰 영향을 미쳤음을 밝혔다.

그레이와 콜(Gray and Caul 2000)은 미국뿐만 아니라 1950년대부터 1997년까지 선진 민주주의 국가 18개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투표율 하락 현상을 동원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그레이와 콜은 집단 동원 영향력의 감소를 노동 정당의 지지율 감소와 노동 조합 가입률의 감소로 측정하였는데, 1950년 이래로 18개 국가 중 10개 국가에서 노조 가입률이 감소하였으며, 이들 10개 국가에서는 투표율 또한 뚜렷하게 저하하였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노동 정당 지지율의 감소는 상대적으로 약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³⁾

3) 그러나 이에 반대되는 연구도 존재한다. 미국 내에서 동원 수준의 변화를 분석한 아브람슨 등(Abramson et al. 2002)에 따르면, 지난 40년간 동원이 감소했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는다. 오히려 '정당과의 접촉 여부'를 묻는 설문

2) 세대의 교체

두 번째로, 일군의 학자들은 투표 참여의 ‘세대의 교체’를 투표율의 하락 원인으로 지적한다. 앞서 개인 수준의 분석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연령과 투표 참여의 관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나이를 먹음에 따라 투표에 참여할 확률이 상승하는 ‘연령 효과’가 지배적인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세대 효과’를 강조하는 입장에 따르면, 각 세대는 정치 사회화 시기(10대 후반~20대 초반)의 각각의 독특한 정치적 경험에 의해 서로 상이한 정치적 성향을 지니게 되고, 그와 같은 성향이 정치 참여 행위에 반영된다. 즉, 특정 세대에 있어서는 연령이 높아지더라도 투표 참여율이 매우 적은 폭으로 상승하거나, 일정하게 유지되는 경향성이 나타난다는 것이다(Miller and Shanks 1996; Plutzer 2002; Blais et al. 2004).

세대별 투표율의 차이는 특히 새로이 투표권을 획득한 세대의 낮은 투표율과 결부되어 연구된다. 밀러와 생크스(Miller and Shanks 1996)에 따르면 투표율의 변화는 새로이 투표권을 얻은 세대의 이전 세대와 다른 투표율로부터 비롯된다. 바티와 한센(Bhatti and Hansen 2011)은 유럽 의회 선거에서 ‘베이비 부머 세대’ 이전 세대와 이후 세대의 투표율 차이가 투표율의 하락을 가져오고 있음을 밝혔고, 바스(Wass 2007)는 핀란드 선거에서의 투표율 분석에서 역사적 경험에 따라 분류된 5개의 세대가 1975년부터 2003년까지

서, 접촉 비율이 가장 낮았던(동원의 수준이 가장 낮았던) 1960년대의 투표율이 가장 높았던 반면, 접촉 비율이 가장 높은 1996년과 2000년 선거에서는 낮은 투표율이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골드스타인과 리다웃(Goldstein and Ridout 2002)은 미국에서 동원의 수준이 감소하고 있다는 근거는 없으며, 단지 정당들의 캠페인 활동과 동원 활동이 동원이 없더라도 투표할 습관적 유권자(habitual voters)에게 집중되었음을 지적한다.

각자 일정한 투표율을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 외에도 많은 연구자들이 ‘코호트 분석(cohort analysis)’을 통해 특정 세대(코호트)의 투표율 변화를 추적하였는데, 분석 결과 최근에 투표권을 획득한 세대일수록 낮은 투표율을 기록하며, 이들의 세대 효과가 전반적인 투표율의 하락을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ranklin 2004; Blais et al. 2004; Gallego 2009).

2. 경제 세계화의 심화와 투표율 하락

그러나 위에서 검토한 동원의 약화, 세대의 교체 가설은 민주주의 국가들 전반에서 나타나고 있는 광범위한 투표율 하락 현상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지 못했다. 물론 동원의 약화, 세대의 교체는 투표율 하락이라는 결과로부터 가장 가까이 위치해 있는 원인일 수 있다. 그러나 세대의 교체 가설을 검증한 프랭클린(Franklin 2004)이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처럼, 동원의 약화, 세대의 교체 가설은 그보다 깊은 곳에 있는 원인에 대한 설명을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가설들이다. 즉, 유권자들에 대한 정당과 노동 조합 등의 동원이 약화되었다면, 그리고 그와 같은 현상이 한 국가가 아니라 수많은 국가에서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면, 그 기저에 있는 원인은 무엇인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젊은 세대가 속해있는 정치·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를 설명하지 않고서는 ‘젊은 세대의 낮은 투표율’은 투표율의 전반적인 하락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없다. 이에 따라 최근의 투표율 하락 연구에서는 상대적으로 많은 나라의 사례에 적용될 수 있는 거시경제적인 변수의 영향력에 주목하는 연구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경제 세계화’가 투표율 하락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것이다.

투표율 하락에 대한 경제 세계화 가설은 경제 통합이 국가 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수렴 가설(convergence hypothesis)’을 그 이론적 배경으로 한다. 수렴 가설의 주장은, 세계 경제 체제에서의 국가 간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각 국가의 정부들은 해외 자본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세율을 낮추고, 복지 예산을 감축하며, 노동과 환경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바닥으로의 경쟁(a race to the

bottom)’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수렴 가설에 따르면, 변화된 경제 통합의 환경에서 사회-민주주의적인 정책 대안은 더 이상 실효성을 갖기 어려우며, 경제적 결과에 대한 국가 정책의 영향력 또한 회의적이다(Andrews 1994; Lee and McKenzie 1989).

물론 이와 같은 수렴 가설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들이 존재한다. 앞서 수렴 가설의 지지자들과 같이 과도한 조세 경쟁으로 인한 복지 국가의 약화, 사회적 불평등의 확대를 우려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Steinmo 1993; Avi-Yonah 2000), 경험적으로 볼 때 실제로 바닥을 향한 경쟁이 국가 간에 벌어지고 있다는 근거는 찾기 힘들다는 주장 또한 존재한다(Quinn 1997; Basinger and Hallerberg 2004; Hays 2003). 독일 철강 산업의 세계화 과정을 분석한 권형기(2012)의 연구에 따르면, 세계화의 결과와 패턴은 단순히 ‘바닥으로의 경쟁’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기업 내부-외부의 주요한 행위자들간의 정치적 동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실제로 독일에서는 미국과 달리 일종의 ‘협약적 세계화(negotiated globalization)’이 이루어졌다. 이른바 국가 정책과 산업 관계의 경로의존성을 강조하는 제도주의자들(특히 역사제도주의)은, 각 국가의 정치적, 제도적, 경제적 제약으로 인해 세계화의 압력에 반응하는 방식 또한 달라지고, 정책 또한 국가별로 분화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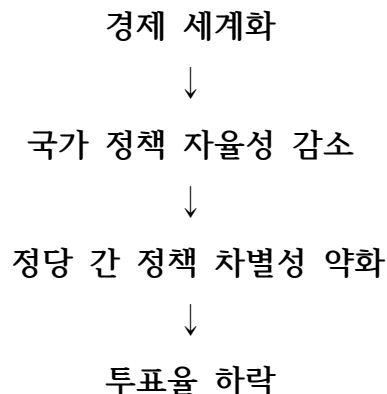
그러나 다양한 논쟁들과 경험적 근거의 대립에도 불구하고, 경제 세계화가 조세 정책 등 국가의 주요 경제 정책에 대한 자율성을 제약하고 있으며(Genschel 2002), 제도와 정책 측면에서 국가들 간의 유사성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해보인다(Kahler and Lake 2003). 경제 세계화의 압력이 모든 국가들이 동등하게 반응하는 것이 아님은 분명하지만, 수렴 가설에 반대하는 학자들조차 경제 세계

화의 ‘영향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로 많은 논의들은 세계화의 영향이 ‘있다’ 혹은 ‘없다’를 밝히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 정치의 어떤 요인들이 국내 정책에 대한 세계화의 압력을 ‘완화(mitigate)’하고 있는지를 밝히고자 하며 (Basinger and Hallerberg 2004; Plumper et al. 2009), 정부여당의 의석비율, 좌파정당과 노조의 영향력 등을 주요 변수로 검증해 왔다.

투표율-경제 세계화의 관계에 대한 연구 이전에, 일군의 학자들은 정당 정치, 투표 행태에 있어서의 경제 세계화의 영향력을 연구해왔다. 대표적으로 헬위그와 사무엘스(Hellwig and Samuels 2007)는 경제 투표의 측면에서 경제 세계화의 영향력을 검토하였는데, 만약 투표자들이 경제 세계화로 인해 정책 결정자들의 경제 영역에 대한 영향력이 감소되었다고 믿는다면, 경제적 성과에 따라 투표를 통해 현 정부에게 보상 혹은 처벌을 가할 확률 또한 낮아진다는 가설이었다. 이 가설은 경험적 자료를 통해 증명되었는데, 실제로 경제 세계화는 경제 투표와 관련된 ‘투표의 책무성(electoral accountability)’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슷한 연구로, 바추도바와 후그(Vachudova and Hooghe 2009)는, 각국의 유럽 연합에의 통합 과정에서 요구되었던 사항들의 이행이, 특히 구 공산권 국가들의 정당 경쟁의 특성을 크게 변화시켜 놓았다고 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이론적 배경 하에서, 일군의 학자들은 경제 세계화와 투표율 하락 간의 관계를 경험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투표율 하락에 대한 경제 세계화 가설의 요지는, 전 세계적인 경제 통합이 심화됨에 따라 국가 정책 결정자들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정책의 범위가 축소되었고, 이에 따라 정당 간의 정책 차별성 또한 약화

되었다는 것이다(Steiner 2010; Marshall and Fisher 2010; Steiner and Martin 2012). 이와 같은 이론적 주장은 앞서 검토한 바 있었던 ‘투표 참여의 산술(the calculus of voting)’ 계산식에서 ‘도구적 효용(B: instrumental Benefit)’의 감소와 관련된다(Downs 1957; Riker and Ordeshook 1968). 다시 말해, 경제 세계화에 따른 국가 정책 자율성의 감소, 그리고 뒤이은 정당 간 정책 차별성의 약화는 유권자가 느끼는 투표의 효용(B)을 작아지게 하여 투표율 하락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는 것이다.



경제 세계화와 투표율 하락에 대한 최초의 논의는 프랭클린(Franklin 2004)으로부터 발견된다. 프랭클린은 세계화의 영향을 ‘상위 권위에서의 권력 이양(ceding power to a higher authority)’가 투표율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으로 개념화한다. 즉, 시장 자유화 과정에서 각국의 정부는 자신들의 주권을 세계무역기구(WTO)와 같은 기관에 일정 정도 이양하는데, 이는 후보 선택을 통해 정책적 변

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선거의 정치적 의미를 퇴색시킨다는 것이다.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파섹 등(Pacek et al. 2009)은 유럽 연합, IMF 프로그램과 같은 국제적 정치체제의 참여가 각국 정부의 정책 선택의 옵션을 제한하여, 결과적으로는 선거의 중요성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보았는데, 분석 결과 IMF 프로그램의 잔여기간이 길수록 투표율이 하락하는 추세가 확인되었으며, EU 가입 여부 또한 투표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프랭클린과 파섹 등의 연구에서 경제 세계화 변수는 논의의 핵심적인 변수가 아니었으며, 경제 세계화로부터 투표율 하락까지 이어지는 인과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를 수행한 것은 아니었다.

경제 세계화를 투표율 하락의 핵심 변수로서 주목한 연구로는 슈타이너(Steiner 2010)와 마셜과 피셔(Marshall and Fisher 2010)의 연구를 들 수 있다. 먼저 슈타이너는 각국의 경제 세계화 정도를 보다 엄밀하게 조작화하고, OECD 23개국의 1965년부터 2006년까지의 기간 동안의 투표율 변화에 대한 경제 세계화 변수의 영향력을 검증하였다. 경제 세계화 정도는 국내총생산 대비 무역 비중(Trade Share), 국내총생산 대비 자본 유동량(Capital Flows), KOF 경제 세계화 지수(KOF Index of Globalization)까지 세 가지 방식으로 조작화되었는데, 분석 결과 세 개의 변수 모두 투표율 하락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찬가지로 마셜과 피셔(Marshall and Fisher 2010)는 1970년대 이후 OECD 국가의 투표율에 대한 경제 세계화의 영향력을 검증하였는데, 경제 세계화 과정에서 공공 서비스에 대한 정부 지출이 감소하였으며 이로 인해 유권자의 투표에 대한 유인동기 또한 감소하였다고 주장하였다.

3. 경제 세계화와 신생 민주주의 국가의 투표율 하락

그러나 이상 검토한 바와 같이 경제 세계화와 투표율 하락의 관계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OECD 소속 국가들, 즉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의 사례에 집중되어 있다. 이로부터 자연스럽게 제기될 수 있는 의문은, 이와 같은 경제 세계화의 영향력이 신생 민주주의 국가들의 사례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세계화와 정책 수렴과 관련된 기존의 논의에서, 세계화의 영향력은 국내 정치적·제도적 제약에 따라 달라진다고 지적된 바 있다. 그렇다면 그와 같은 맥락에서, 각국의 민주주의 유형, 보다 정확히는 민주주의의 역사, 민주주의에 대한 누적된 경험 또한 경제 세계화의 영향력을 분화시키는 주된 요인이 될 것이라 가정해볼 수 있다.

실제 1990년대 이후 신생 민주주의 국가들의 세계화 과정을 돌이켜볼 때, 이와 같은 가정은 보다 적실성을 갖는다. 사실 라틴 아메리카, 동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등 곳곳에 산재되어 있는 신생 민주주의 국가들은 지리적 위치뿐만 아니라 과거의 정치적·역사적 경험, 문화적 특성 등 많은 부분에서 상이한 성격을 지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생 민주주의 국가들을 관통하는 하나의 특성이 있다면, 다수의 신생 민주주의 국가들의 체제 전환(공산주의→자본주의 시장 경제) 혹은 경제 위기 극복의 과정에 IMF가 개입하였으며, IMF가 제시하는 ‘구조 조정 프로그램(structural adjustment programs)’ - 공공 지출 삭감, 화폐 평가절하, 보조금 복지 프로그램 축소 등을 특징으로 하는 - 에 따라 시장 자유화 조치가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Sachs 1986; Feldstein 1998; Wade 1998; Glassman and Carmody 2001; Beeson and Islam 2005; Pop-Eleches 2009).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라틴 아메리카의 경우 1982년의 멕시코 부채 위기(debt crisis)를 시작으로 지역 내 다른 국가에도 위기가 확산되면서, 멕시코, 페루, 볼리비아, 칠레, 아르헨티나 등에 IMF의 신자유주의적 처방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소련의 붕괴 이후 체제 전환을 시도하던 동유럽의 과거 공산주의 국가들(폴란드, 불가리아, 루마니아 등)에도 IMF의 ‘충격 요법(the shock therapy)’이 가해졌다. 마지막으로 아시아에서는 1997년 동아시아 금융 위기를 계기로 한국, 태국, 인도네시아 등에 IMF의 구조 조정 프로그램이 요구되었다.

즉, 대다수의 신생 민주주의 국가들의 경제 세계화 과정은 위기 상황에 대한 대처 혹은 극복 상황에서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로 신생 민주주의 국가들의 정치 경제적 환경은 근본적인 변화를 겪었다. 글라스만과 카르모디(Glassman and Carmody 2001)에 따르면, 구조 조정 프로그램의 시행 이후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의 경제는 해외 자본의 유출입에 크게 의존하는 체제로 변화하였는데, 이와 같은 현상은 1997년 아시아 경제 위기 이후 아시아 국가들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해외 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경쟁 속에서, 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의 신생 민주주의 국가들은 이후 은행, 기업 등에 대한 규제 정책과 사회 보장 정책에 있어서 급격한 변화를 겪어야만 했다(MacIntyre et al. 2008).

이와 같은 신생 민주주의 국가의 세계화 과정이 함의하는 바는, 세계화 지수(KOF Index of Globalization) 등 수치상으로 확인되는 실제 시장의 개방의 정도나 대외 무역의 비중에 있어서는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이 더 높을 수도 있지만, 국가 정책의 자율성의 측면에서는 신생 민주주의 국가들이 경험한 ‘상실’의 정도가 보다 컸을 것

이라는 점이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관점에서, 경제 세계화의 투표율 하락에 대한 영향력이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보다 신생 민주주의 국가에서 보다 크게 나타날 것이라 가정한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그 동안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의 사례와 달리 경험적으로 검증된 바 없는 신생 민주주의 국가의 급격한 투표율 하락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고, 투표율 하락에 대한 경제 세계화 가설의 외연을 확장해보고자 한다.

IV. 연구 가설과 연구 방법

1. 연구 가설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본 연구는 ‘경제 세계화’라는 거시적인 변수의 영향력을 고려함으로써 다수의 국가에서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투표율 하락 현상의 원인을 분석할 수 있다고 보았다. 본 연구는 선진 민주주의 국가의 사례에 국한되었던 기존 연구의 한계에서 벗어나, 신생 민주주의 국가의 사례를 함께 포함하여 경제 세계화의 투표율에 대한 차별적 영향력을 밝히고자 한다. 본 연구는 신생 민주주의 국가들이 외부의 권위(IMF 등)의 개입 하에 세계화의 과정을 경험하였다는 점에서, 세계화에 따른 정책 자율성의 약화와 투표율 하락 현상이 선진 민주주의 국가보다 신생 민주주의 국가에서 강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았다.

가설 1. 이전에 비해 경제 환경이 자유화될수록 각국의 투표율은 하락할 것이다.

가설 2. 경제 세계화가 투표율에 미치는 영향력은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보다 신생 민주주의 국가에서 보다 크게 나타날 것이다.

가설 3. 경제 세계화가 투표율에 미치는 영향력은 IMF의 구조 조정 프로그램을 경험한 국가에서 보다 크게 나타날 것이다.

경제 세계화는 각국 정부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정책의 범위를 감소시킨다. 이에 따라 각 정당과 정당의 후보들이 내세울

수 있는 정책의 차별성 또한 약화되어, 결국 두 후보자 간 기대 효용의 차이(the differential benefit)의 하락으로 인해 투표율은 하락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좌파 정당'의 존재는 독립변수의 영향력을 변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앤더슨과 베라멘디(Anderson and Beramendi 2012)에 따르면, 소득불평등의 심화가 저소득층에서 정치적 무관심을 낳지만, 좌파 정당의 강한 경쟁은 투표율에 대한 소득불평등의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킨다. 이와 유사한 입장에서, 경제 세계화의 대척점에 위치하여 이른바 '반(反) 신자유주의'적 강령을 채택하고 있는 좌파 정당의 영향력이 강력할 경우, 유권자가 느끼는 정당·후보자 간 정책적 차별성은 어느 정도 회복될 수 있고, 유권자의 투표 효능감 또한 이전처럼 유지될 수 있다.

가설 4. 경제 세계화가 투표율에 미치는 영향력은 각 국가의 의회 내 좌파 정당의 영향력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위의 네 개의 가설이 투표 효용(B)의 측면에서 경제 세계화의 영향력을 검증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추가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가설은 '투표 비용(C)'에 대한 경제 세계화의 영향력에 대한 것이다. 파섹과 래드클리프(Pacek & Radcliff 1995; Radcliff 1992; Pacek 1994)에 따르면 투표 행태에 대한 경제 상황의 영향력은 각 국가의 복지 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파섹과 래드클리프의 연구에 따르면, 경기 침체가 투표율에 미치는 영향력은 정부의 복지 지출 비중이 낮은 미국과 스페인에서 강하게 나타났고, 복지 지출 비중이 높은 스웨덴과 프랑스에서는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투표율이 하락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복지 제도가 경기 침체 상황에서 유

권자들의 당장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고, 유권자들이 정치적 문제에 관심을 기울일 수 있게 하는 자원(비용)을 제공하는 데에 기인한다(Hobolt and Klemmensen 2006). 경기 침체와 마찬가지로, 경제 세계화는 체제 전환의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정치적 관심에 대응하는 ‘비용’을 요구하며, 이와 같은 비용의 증가는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투표율에 대한 경제 세계화의 영향력 또한 각 국가의 복지 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 예상한다.

가설 5. 경제 세계화가 투표율에 미치는 영향력은 각 국가의 복지 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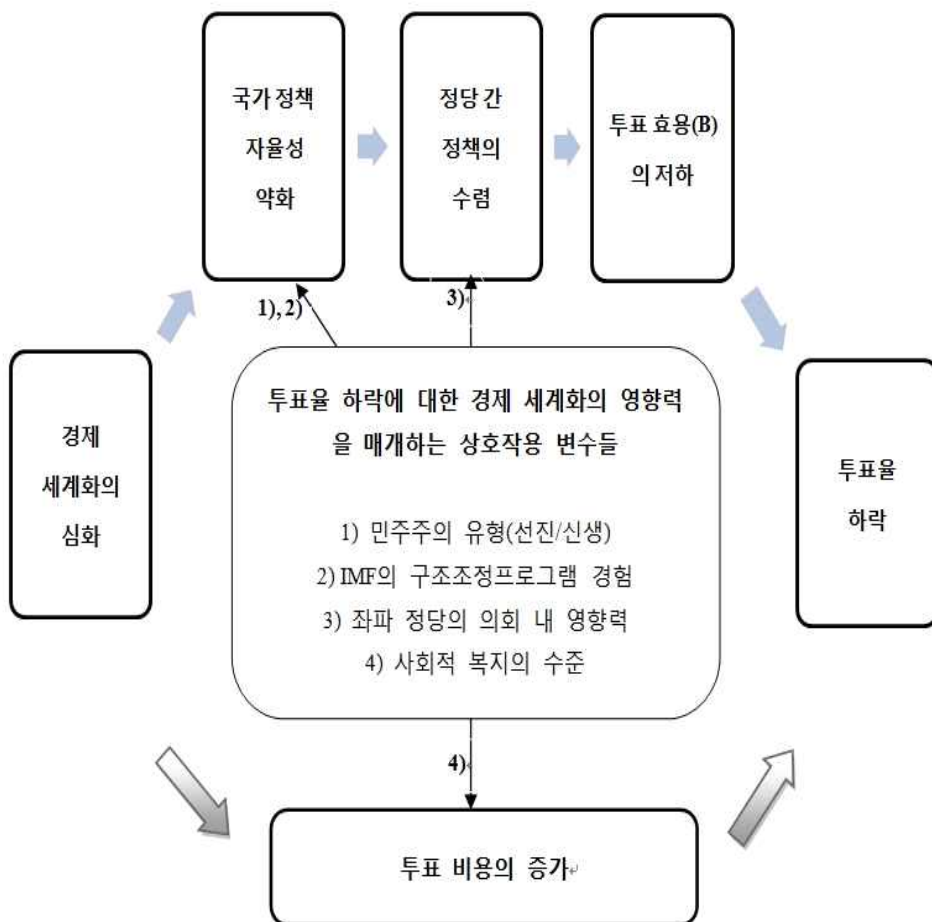
그러나 위의 논의들이 개인 수준의 이론적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다운즈의 합리적 유권자 가설을 집합적 수준의 국가 투표율 데이터에 적용하고 있음을 감안해보면, 연구 결과의 적실성에 대한 의문점은 필연적으로 제기될 수밖에 없다. 설사 집합적 수준의 데이터가 위의 가설들의 내용을 강하게 지지한다 할지라도, 개인적 수준에서는 상이한 결과가 나타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이와 같은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본 연구는 개인 수준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다음의 추가 가설을 검증한다.

가설 6. 유권자들이 정당들의 정책적 입장 간 거리를 가깝게 느낄수록, 즉, 후보자들의 정책이 유사하다고 느낄수록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율은 낮아질 것이다.

가설 7. 신생 민주주의 국가들의 유권자들은 선진 민주주의 국

가들의 유권자들보다 후보자들 간의 정책이 더욱 유사하다고 인식할 것이다.

<그림 1> 연구의 분석틀 : 경제 세계화 - 투표율 하락의
인과 관계 고리



2. 연구 방법과 변수의 조작화

이상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본 연구는 1980년대 중반 이후 선진 민주주의 국가의 선거와 정초선거(founding election) 이후 신생 민주주의 국가에서 시행된 선거들의 ‘투표율 변화’를 종속변수로 하여, 개인적 수준이 아닌 집합적인 국가 수준에서 다중선형회귀분석(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을 수행한다. 분석의 대상은 선진 민주주의 국가 17개국, 신생 민주주의 국가 21개국에서 시행된 총 270회의 선거(선진 민주주의 국가 131회, 신생 민주주의 국가 139회)에서의 투표율 변화이다.

먼저 분석 모형의 종속변수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해당 선거에서의 투표율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각 국가 간 투표율의 차이를 통제하기 위해 표준화된 투표율을 사용한다. 본 연구의 정확한 연구 대상은 해당 선거의 투표율이 이전에 비해 어느 정도 ‘하락’했는가에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각 국가별로 기준점이 되는 선거 -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의 경우는 1980년대 중반, 신생 민주주의 국가들은 민주화 직후의 정초선거 - 를 선정하고, 기준점으로부터의 투표율 변화 정도를 종속변수로 정의하였다. 예를 들어 1992년 선거에서 알바니아(Albania)의 투표율 변화 정도는 -9.69%인데, 이는 1992년 선거의 투표율인 89.21%에서 민주화 이후 정초선거인 1991년 선거의 투표율 98.89%를 뺀 값이다.

$$\text{선거 } t \text{에서의 투표율 변화} = \\ \text{선거 } t \text{에서의 투표율} - \text{정초 선거에서의 투표율}$$

투표율 자료는 International IDEA(International Institute for Democracy and Electoral Assistance)가 제공하는 각국 선거 투표율 자료를 활용하는데, 동일한 기준에서의 비교를 위해 국회의원 선거의 투표율을 비교한다. 또한 투표율은 ‘등록된 유권자 중 투표에 참여한 비율’이 아니라 투표 가능 인구(VAP: Voting Age Population) 중 투표에 참여한 비율로 통일한다.

<표 1> 분석 대상 국가

민주주의 분류	국가명
선진 민주주의 (17개)	오스트리아, 캐나다, 이탈리아, 아이슬란드, 스웨덴, 덴마크, 네덜란드, 핀란드, 일본, 아일랜드, 영국, 프랑스, 독일, 스위스, 미국,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신생 민주주의 (21개)	알바니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불가리아, 칠레, 크로아티아, 체코, 에스토니아, 인도네시아, 한국,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몽골, 파나마, 파라과이, 필리핀,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우크라이나, 우루과이

선진 민주주의 국가와 신생 민주주의 국가의 분류는 체이범(Cheibub)의 정권유형 분류지표와 프리덤 하우스(Freedom House)의 민주주의 지표를 활용하여 세계 2차 대전 이래로 지속적으로 민주주의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들을 선진 민주주의 국가로 분류하고,

1980년대 초반부터 1990년대 중반 사이에 민주주의 체제로 전환하여 현재까지 민주주의 국가로 분류되고 있는 국가들을 신생 민주주의 국가로 분류하였다. 이와 같은 분류에 따라 헌팅턴의 ‘제3의 민주화 물결’에는 속하지만 1970년대에 민주화를 경험한 브라질, 아르헨티나, 온두라스,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의 사례는 제외되었다. 그리고 UN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주요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는 대만 또한 부득이하게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본 연구의 분석의 대상이 되는 국가의 목록은 위의 표와 같다.

본 연구의 핵심적인 독립변수인 세계화, 경제 자유화 정도는 KOF(KOF Swiss Economic Institute)의 “경제 세계화 지수(Index of Economic Globalization)”를 통해 측정한다. KOF는 1970년부터 2010년까지 207개국의 세계화 지수를 경제, 사회, 정치 분야로 나누어 매년 발표하는데, 경제 세계화 지수는 무역·해외 직접 투자(FDI)·포트폴리오 투자로 구성되는 “Actual economic flow”와 수입 장벽·평균 관세율·자본 통제 지수 등으로 구성되는 “Restrictions”의 두 가지 영역에서 측정되어 합산된 결과로 0에서 1의 값을 갖는다. 앞서 종속변수에서와 마찬가지로, 경제 세계화 지수 또한 선거가 열린 해당연도의 값에서 기준점이 되는 시기의 값을 뺀 표준화된 값을 통해 국가 간 차이를 제거한다.

이어서 세계화의 영향력을 매개하는 변수들인 ‘IMF 구조 조정 프로그램’, ‘의회 내 좌파 정당의 영향력’, ‘국가의 복지 수준’은 다음과 같이 조작화되어 세계화 변수와의 상호작용항(interaction term)으로 포함된다.

먼저 IMF 구조 조정 프로그램의 경험이 있을 경우 1, 그렇지 않을 경우 0인 더미변수(dummy variable)로 조작화된다. IMF 프로

그램에의 참여는 브릴랜드(Vreeland 2003)의 연구를 따라, SBA(Stand-By Agreement), EFF(Extended Fund Facility), SAF(Structural Adjustment Facility), ESAF(Enhanced Structural Adjustment Facility) 등 프로그램의 종류와 무관하게 어떤 프로그램이든 참여했는지, 참여하지 않았는지에 따라 코딩되었다. 예를 들어 1993년 5월에 SBA에 합의한 체코의 경우, 1992년 선거에서는 0의 값을, 참여 이후의 선거에서는 1의 값을 갖게 된다. 브릴랜드(Vreeland 2003)에 따르면 프로그램들은 애초의 합의와 달리 계속되는 연장 합의(consecutive agreement)에 의해 평균적으로 5년 이상 지속되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와 같은 구조 조정 프로그램의 영향력은 프로그램이 종료된 이후에도 사라지지 않고 지속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프로그램이 끝난 이후라 하더라도, 참여 이후의 모든 선거에는 1의 값을 부여하였다.

의회 내 좌파 정당의 영향력은 각 선거에서의 좌파 정당의 득표율로 측정된다. 1차적으로 그레이와 콜(Gray and Caul 2000)의 기준을 따라, 정당명에 ‘노동(labor)’, ‘공산주의(communist)’, ‘사회주의(socialist)’, ‘사회 민주(social democratic)’ 등의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 정당들은 좌파 정당으로 분류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기준에 의해서만 분류할 경우, 불가리아의 좌파 정당 연합이라고 할 수 있는 “Coalition for Bulgaria”와 같은 사례들은 분류에서 제외된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위키피디아(Wikipedia)에 공개되어 있는 각 정당들의 이념 성향, 정책적 성향에 대한 정보를 참고하여, 명시적으로 “정치적 위치(Political Position)”에 있어 “좌파(Left)”, “중도-좌파(Center-Left)”에 위치하거나, 사회주의, 사회민주주의, 공산주의 등의 이념을 표방하는 정

당들을 좌파 정당으로 분류하였다. 선거에서의 정당별 득표율은 알바레즈-리베라(Alvarez-Rivera)의 “Election Resources on the Internet”에 공개되어 있는 각국의 선거 결과 자료를 비롯하여 기타 데이터북 등을 통해 수집되었다.

각 국가의 복지 수준은 호볼트와 클레멘센(Hobolt and Klemmensen 2006)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국민총생산(GDP) 대비 보건, 교육 서비스에 대한 정부 지출액의 비율로 측정된다. 관련 자료는 세계은행(World Bank)이 공개하는 “세계 발전 지표(World Development Indicators)”에서 구할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분석 대상 국가 39개국의 선거 기간에 해당하는 모든 수치가 조사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존재하는 수치들을 바탕으로 각 국가별 복지 수준의 평균값을 구하여 국가별로 선거 시기와 관계 없이 같은 값을 부여하였다.

이 외에도 모델에는 기존의 투표율 연구에서 유의미한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확인된 변수들을 통제변수로 삽입한다.

첫 번째로, 정치·선거 제도와 관련된 변수이다. 제도적 변수들은 투표자가 느끼는 선거의 중요성, 투표 효능감의 측면에서 영향을 미치며, 한편으로 투표의 비용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부 체제에 대한 “의원내각제-대통령제” 변수, 선거 시스템에 대한 “비례대표제-혼합선거제-단순다수제” 변수, 그리고 투표 참여에 대한 “강제 투표제의 유무” 변수를 모델에 포함하였다.

두 번째로, 사회경제적 변수이다. 자원 모델에 가설에 따르면 교육 수준, 소득 수준의 상승은 투표 참여의 확률을 높인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초 선거가 실시된 해로부터의 교육 수준의 변화, 소득 수준의 변화를 변수로 삽입한다. 교육 수준은 유엔개발계획(UNDP: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가 발표하는 “교육 지수(1에서 100)”, 소득 수준은 세계은행의 1인당 GDP 자료를 사용하였다. 소득 수준은 국가 간 차이를 통제하기 위해 몇 달러가 증가/감소하였는지가 아닌, 비율의 변화로 측정되었다.

세 번째로, 선거의 경쟁도에 관한 변수이다. 선거가 경쟁적이라고 느낄수록 유권자들의 투표할 확률은 높아진다. 선거의 경쟁도는 전체 득표율 1위 정당과 2위 정당 간의 득표율 차이로 측정된다. 그리고 본 연구의 관심이 투표율 하락의 원인을 찾는 데 있기 때문에, 선거의 경쟁도 변수는 정초 선거로부터의 선거 경쟁도의 변화량으로 측정된다.

마지막으로 ‘시간 효과(time effects)’를 통제하기 위해, 본 연구는 매 5년의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변수를 더미 변수로 삽입한다. 투표율 하락 연구에 있어서 시간 효과에 대한 통제는 특히 중요성을 갖는다. 투표율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하락하는 경향성이 존재하고, 경제 세계화 지수 또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상승하는 추세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시간 효과가 통제되지 않은 OLS 회귀분석은 두 변수 간의 허위적인 상관관계(spurious correlation)을 마치 인과관계가 있는 것처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Granger and Newbold 1974; Steiner 2010). 따라서 본 연구는 슈타이너(Steiner 2010)의 예를 따라, 회귀분석 모형에 평균적인 선거 기간에 해당하는 5년 단위의 더미 변수 6개를 포함한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이 경제 세계화 변수, 민주주의 유형 변수 외에도 기타 통제변수를 포함하는 다중선형회귀모형을 구성하고, 통계 프로그램 Stata/IC 12.1을 활용하여 회귀분석을 수행한다. 본 연구의 5가지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다중선형회귀모형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표 2> 집합 수준 분석 모델 (OLS Regression)

분류	내용	
종속 변수	투표율의 변화	
독립 변수	경제 세계화 지수의 변화 민주주의 유형(신생 1, 선진 0)	
	모형 1	기본 모형
	모형 2	경제 세계화 지수의 변화 * 민주주의 유형(신생 1, 선진 0)
	모형 3	경제 세계화 지수의 변화 * IMF 구조 조정 프로그램 경험(더미)
	모형 4	경제 세계화 지수의 변화 * 좌파 정당 득표율
	모형 5	경제 세계화 지수의 변화 * GDP 대비 복지 지출 비율
	정부 체제(더미) : 대통령제 1, 의원내각제 0 선거 시스템(비례대표제 2, 혼합선거제 1, 단순다수제 0) 강제 투표의 존재 유무(더미) : 존재 1, 없으면 0 교육 지수(Education Index: 1-100)의 변화 1인당 GDP의 변화율 선거 경쟁도의 변화 기간 더미 변수 6개(1982-1987, 1988-1992, 1993-1997, 1998-2002, 2003-2007, 2008-2013)	

그리고 가설 6과 가설 7, 즉 개인 수준에서의 가설 검증을 위해서, 본 연구는 ‘선거체계비교연구(CSES: The Comparative Study of Electoral Systems)’ 데이터를 활용한다. CSES Data는 개인 수준의 비교 국가 서베이(cross-national individual-level survey) 자료로서, 동일한 문항을 바탕으로 각 국가별로 개인 수준의 서베이를 진행하고, 수집된 서베이 자료와 함께 기타 선거 제도, 정치적 맥락(political context) 변수를 포함하고 있는 자료이다. 본 연구는 2005-2011년 사이에 50개 국가에서 80,163명을 대상으로 수집된 “CSES Module 3”을 활용하여 분석을 시행한다.

<표 3> 개인 수준 분석 모델 (Logistic Regress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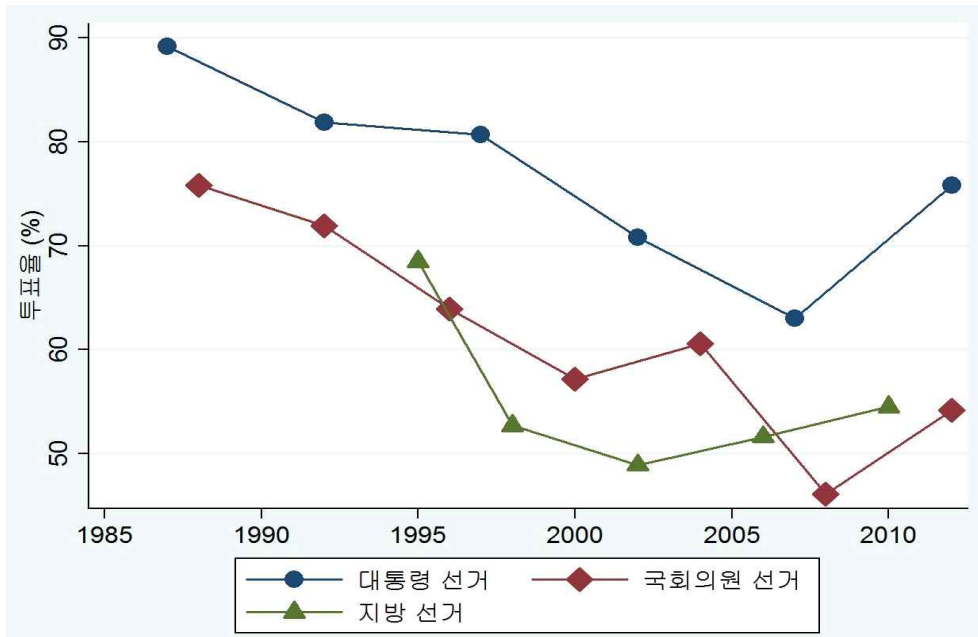
분류	내용
종속변수	투표 참여 여부(0=기권, 1=투표)
독립변수	후보자 선택지 간의 차이(0=차이 없음, 1=근소한 차이가 있음, 2=주요한 차이가 있음)
	연령(연속변수)
	교육 수준(1=교육 경험 없음, 8=대학교 졸업)
	가구 소득(1부터 5까지, 5단계)
	정당일체감 유무(0=무당파, 1=당파)
	소속 지역구의 선거 경쟁도(1-2위간 득표율 격차)
	강제 투표의 존재 유무(더미) : 존재 1, 없으면 0
	유효 정당수

V. 민주주의 유형과 투표율 하락

1. 민주화 이후 한국의 투표율 변화

1987년 민주화 이후 한국 선거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추세 중의 하나는,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지방 선거를 막론하고 투표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화 이후 정초선거(founding election)이라고 할 수 있는 12월에 열린 13대 대통령 선거의 투표율은 89.2%였으며, 1988년 13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의 투표율은 75.8%였다.

<그림 2> 1987년 이후 한국 선거 투표율 변화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2013).

그러나 위의 <그림 2>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한국 선거의 투표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07년 17대 대선에서는 20년 전인 1987년 대선에 비해 26.2% 포인트 하락한 63.0%, 2008년 18대 총선에서는 29.7% 포인트 낮은 46.1%를 기록하였다. 지방선거의 투표율의 경우 1995년 1회 선거에서의 68.5%에서 2002년의 경우 48.9%로 20% 포인트 정도 하락하였고, 이후 선거에서도 50% 내외의 낮은 투표율을 기록하고 있다. 물론 그림에서도 나타나는 것처럼 2012년 12월의 18대 대선에서는 이전의 하락하는 추세와 달리 투표율이 크게 상승한 것은 사실이나, 1992년 이후 20년 만에 같은 해에 대선과 총선이 시행된 상황적 요인 등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결과가 ‘투표율 하락 추세’로부터 ‘상승’ 혹은 ‘회복’ 추세로의 변화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민주주의 정치 과정에서 선거가 갖는 정치적 중요성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한국 선거에서의 지속적인 투표율 하락 현상은 정치 과정에 대한 시민들의 무관심, 불만족감의 증대로 해석되어 왔다(강원택 2010; 서현진 2008). 따라서 학계에서는 민주주의 발전의 관점에서 투표율 하락 현상을 문제시하고 그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자 하였으며,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국가 기관들은 유권자들의 투표율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를 중심으로 부재자투표제도의 확대, 투표시간의 연장, 투표소의 증가, 메니페스토 운동, 언론 매체를 통한 투표참여의 적극적인 홍보 등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투표율 하락의 추세는 지난 20여 년 동안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이갑운 2008).

물론 이와 같은 투표율 하락 현상이 한국 선거만의 특수한 현상인 것은 아니다. 스위스와 더불어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에 비해 상

당히 낮은 투표율을 기록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1960년 대선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00년에는 51.3%(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연령대의 인구수 기준)를 기록하였으며, 2012년 대선에서도 53.6%에 그쳤다(IDEA 2012). 실제로 프랭클린(Franklin 2004)에 따르면, 2차 세계 대전 이후 지속적으로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해온 22개 국가의 투표율은 평균적으로 5.5% 하락하였다. 마찬가지로 고바라(Ghobarah 1998)는 24개 선진 민주주의 국가의 투표율이 1980년에서 1990년 사이에 2.5%, 1990년에서 1998년 사이에 4.5% 포인트 하락하였음을 분석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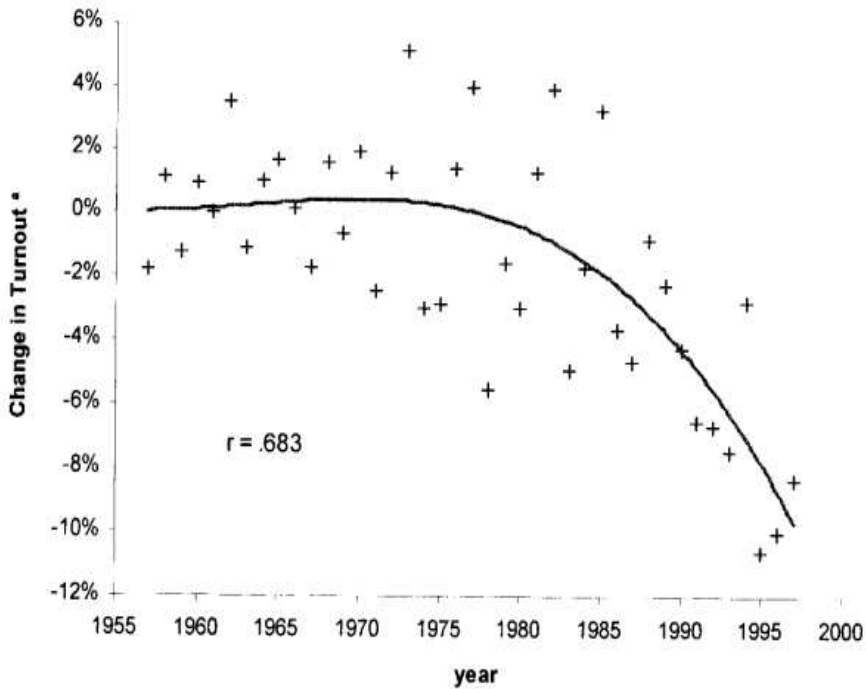
그러나 강원택(2010)과 이갑윤(2008)이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현재 한국의 투표율 하락의 정도는 그 하락 폭이 다른 2-3배가 되며, 특히 그 하락의 진행 속도에 있어서도 지난 10~15년 사이에 급속히 하락하고 있다. 즉 40~50년이라는 장기적인 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나타난 ‘선진 민주주의 국가(established democracies)’의 투표율 하락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것이다. 이처럼 선진 민주주의 국가와 구별되는 ‘신생 민주주의 국가(new democracies)’로서의 한국의 특성에 주목할 때 자연히 제기되는 질문은, 과연 다른 신생 민주주의 국가들에서도 한국과 같은 투표율의 급속한 하락이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2. 민주주의 유형에 따른 투표율 하락 비교

투표율 하락 추세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분석의 주된 관심이 ‘낮은 투표율’이 아니라, ‘얼마나 투표율이 하락하였는가’에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존의 연구자들은 국가들 간의 기본적인 투표율의 차이를 통제하기 위해, 기준이 되는 시점(baseline)의 투표율과 이후 시점의 투표율 간의 차이값을 투표율 변화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index)로 활용하였다. 대표적으로 1950년 이후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투표율 하락 현상에 대해 분석한 그레이와 콜(Gray and Caul 2000)의 경우, 1950년대 초반 선거에서의 투표율을 기준으로 삼아 투표율 변화량을 계산하였다($\text{선거 } t \text{에서의 투표율 변화량} = \text{선거 } t \text{에서의 투표율} - 1950 \text{년대 선거의 평균 투표율}$). 이와 같은 계산을 통해 그레이와 콜은 1950년대 선거에서 각국의 투표율의 절대값과는 상관없이 각국의 투표율 변화를 서로 비교할 수 있는 지표를 만들었고, 이를 바탕으로 다음의 <그림 3>과 같은 ‘투표율 하락’의 패턴을 증명하였다.

<그림 3>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선진 민주주의 국가의 투표율은 1950년대 이후 1980년대 초반까지는 큰 변화 없이 유지되다가, 1980년대 중반 이후로 점차 하락하여 1990년대 후반에는 1950년대에 비해 평균적으로 10% 정도 투표율이 하락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하락은, 앞서 살펴본 한국의 30%가 넘는 투표율 하락에 비해서는 완만한 기울기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그림 4>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각국의 투표율 하락폭은 민주주의의 유형에 따라 상이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3> OECD 18개국의 투표율 변화에 대한 집합적 추세(aggregate trend)



출처 : Gray and Caul(2000). 투표율 데이터에 대한 원본 출처는 Mackie and Rose(1991); IDEA Database(19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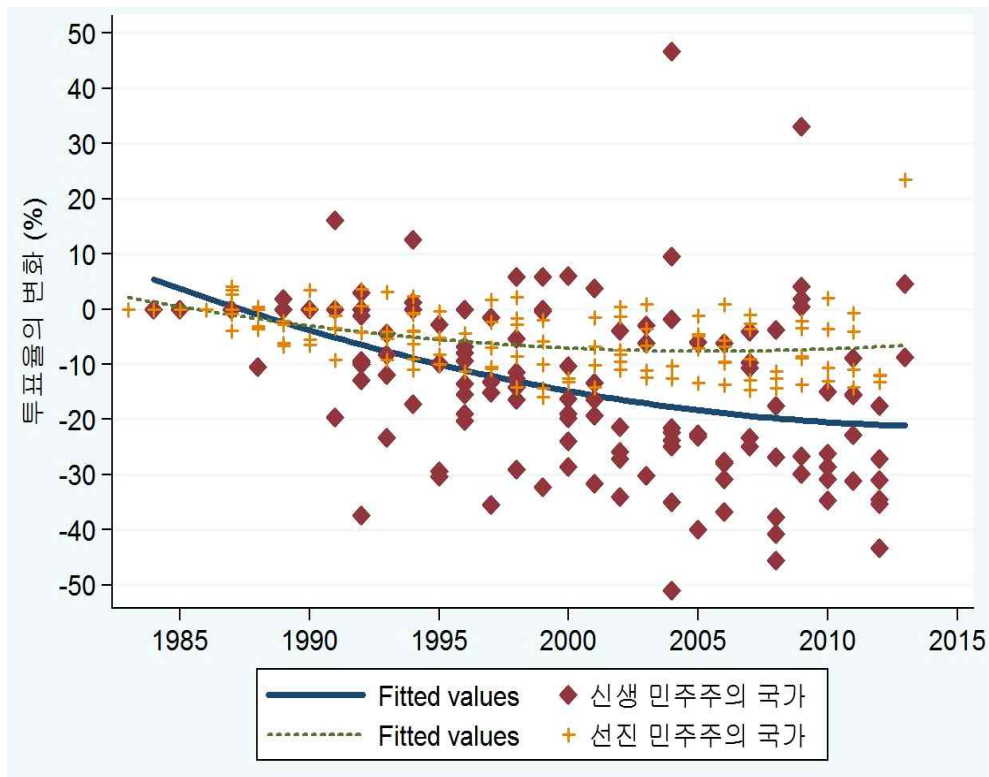
<그림 4>는 선진 민주주의 국가의 1980년대 중반 선거에서의 투표율, 신생 민주주의 국가의 경우에는 민주화 이후 정초선거(founding election)에서의 투표율을 기준으로 하여, 이후 선진 민주주의 국가 주요 17개국⁴⁾과 신생 민주주의 국가 주요 21개국⁵⁾의 투표율 변동을 보여주고 있다.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의 투표율의

4) 오스트리아, 캐나다, 이탈리아, 아이슬란드, 스웨덴, 덴마크, 네덜란드, 핀란드, 일본, 아일랜드, 영국, 프랑스, 독일, 스위스, 미국,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5) 알바니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불가리아, 칠레, 크로아티아, 체코, 에스토니아, 인도네시아, 한국,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몽골, 파나마, 파라과이, 필리핀,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우크라이나, 우루과이.

경우, 2000년대 초반까지 약 10% 정도의 하락폭을 보였으나 2005년 이후로는 오히려 조금씩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와 달리 신생 민주주의 국가들의 경우에는 투표율 변화의 분산 자체가 크며(하락한 케이스만큼이나 급격히 상승한 케이스들도 상당수 존재한다), 30년의 기간 동안 평균적으로 약 20%의 하락폭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4> 1980년대 중반 이후 민주주의 유형에 따른
투표율 하락 비교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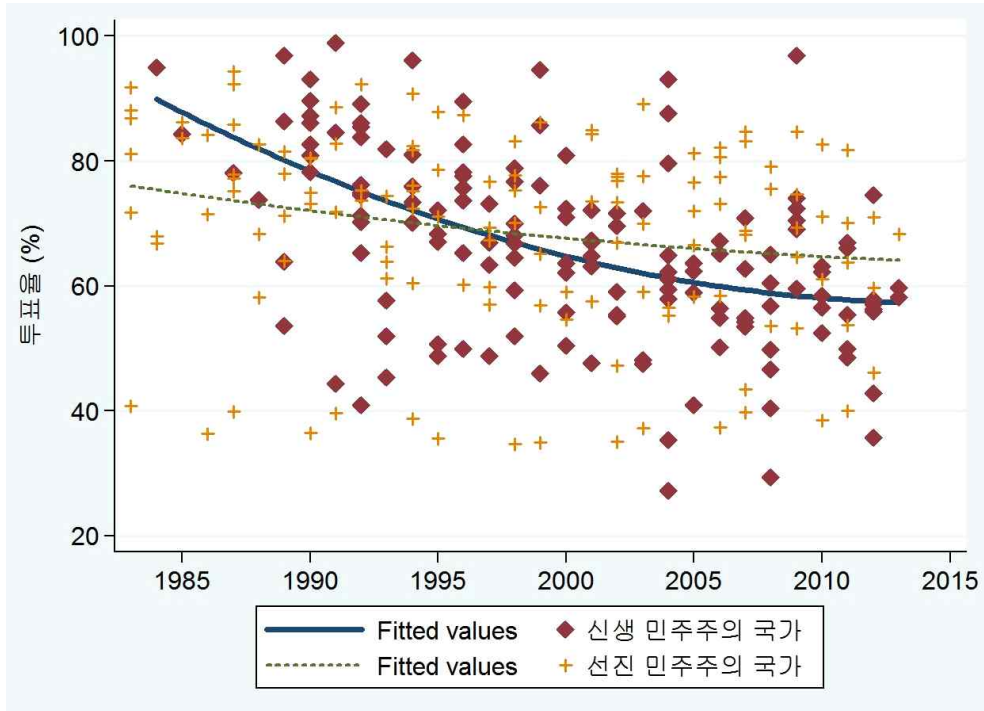


출처: IDEA Database(2013).

이와 같은 신생 민주주의 국가들의 투표율의 가파른 하락에 대한 가장 손쉬운 설명은, ‘정초선거’ 효과에 대한 가설일 것이다. 즉, 민주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고양된 유권자들의 정치적 관심이 정초선거에서의 높은 투표율로 나타났을 뿐, 이후의 투표율 하락은 ‘정상 투표율’로의 당연한 변화라는 것이다(O'Donnell et al. 1986; Turner 1993; Kostadinova 2003; Fornos et al. 2004; Northmore-Ball 2012). ‘정초선거’ 가설에 따르면 신생 민주주의 국가에서 나타나는 투표율 하락 현상은 해결되어야 할 ‘정치적 문제’가 아니며, 투표율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하락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투표율 변화의 기준점이 되는 첫 번째 선거(선진 민주주의 국가들의 경우 1980년대 중반 선거, 신생 민주주의 국가들의 경우 정초 선거)의 투표율을 비교해 볼 때, 신생 민주주의 국가들의 평균 투표율은 80.9%,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은 73.7%로, 신생 민주주의 국가들이 7.2%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림 5>의 결과는 정초선거 가설의 적실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정초선거의 가설대로라면 신생 민주주의 국가들의 투표율은 정초선거 이후 1-2번의 선거에 해당하는 1995년까지 하락한 뒤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과 비슷한 70% 수준에서 안정화됐어야 한다. 그러나 신생 민주주의 국가들의 투표율은 1995년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최근에는 평균 60%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에 비해 평균 7% 이상 높았던 신생 민주주의 국가들의 투표율이, 20년이 지난 지금에는 오히려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보다 10% 낮은 투표율로 하락한 것이다. 즉, 신생 민주주의 국가들의 투표율 하락은 ‘정상으로의 회귀’로 단정 짓기에는 하락의 지속 기간이 길고 하락폭 또한 매우 크다.

<그림 5> 1980년대 중반 이후 민주주의 유형에 따른
투표율 하락 비교 (2)



출처: IDEA Database(2013).

신생 민주주의 국가들의 투표율 하락 현상은 같은 기간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이 경험하고 있는 완만한 변화와 구별되는 특성을 지닌다. 이는 단순히 ‘정상으로의 회귀’로 치부할 수 없는, 다수의 신생 민주주의 국가들이 동시에 경험하고 있는 정치적 변화이며, 따라서 그 원인에 대한 정치학적 분석 또한 당연히 요구된다. 다음 장에서 본 연구는 앞서 4장에서 제시한 가설들에 대한 경험적 분석을 통해, 투표율 하락 현상의 원인을 탐색한다.

VI. 분석 결과

1. 경제 세계화와 투표율 하락 : 집합 수준 분석

집합 수준에서 설정한 다섯 가지 가설(가설 1-가설 5)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본 연구는 각 가설에 해당하는 모형을 구성하고 OLS 회귀분석(Ordinary Least Square Regression)을 수행한다. 본 연구는 먼저 가설 1, 2, 3의 내용을 검증하기 위해 <표 4>와 같이 3개의 모형을 구성하고, 가설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모형 1은 상호작용항을 포함하지 않은 가장 기본적인 모형으로, 경제 세계화, 민주주의 유형 변수를 비롯한 기타 통제변수들의 투표율 하락에 대한 영향력을 검증한 것이다. 분석 결과, 가설 1에서 예측한 바와 같이 경제 환경이 자유화될수록 투표율은 하락하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른 변수들의 영향력을 통제한 상태에서, 1-100점 척도의 경제 세계화 지수가 1점 하락할 때, 투표율은 0.539%p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보다 신생 민주주의 국가들에서 투표율이 더욱 하락하였다는 것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는데,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보다 신생 민주주의 국가들의 투표율이 약 8.897% 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통제 변수로 삽입한 정부 체제, 선거 시스템, 1인당 GDP 변화율 변수 또한 투표율 하락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먼저 제도적 변수의 경우, 선거의 비례성의 경우 기존의 가설과 마찬가지로 선거의 비례성이 낮은 국가일수록 투표율이 더욱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부 체제 변수의 경우,

**<표 4> 회귀분석 1 : 경제 세계화, 민주주의 유형, IMF 구조조정
경험의 투표를 하락에 대한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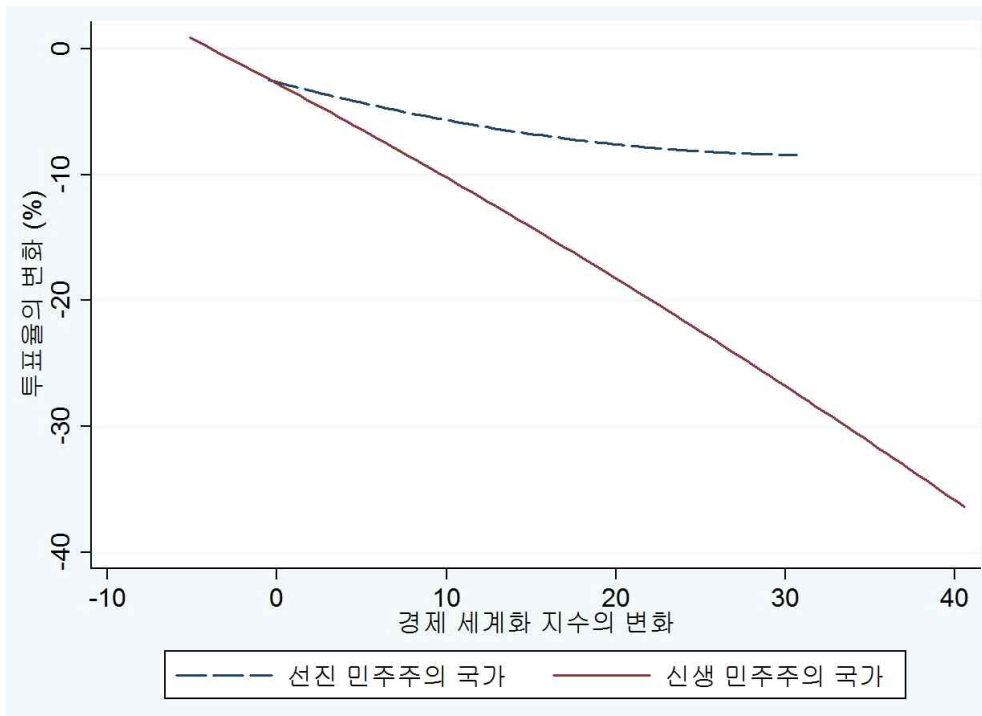
	Model 1	Model 2	Model 3
	계수값 (표준오차)	계수값 (표준오차)	계수값 (표준오차)
경제 세계화 지수 변화	-0.539 *** (0.084)	-0.135 (0.120)	-0.241 * (0.115)
민주주의 유형	-8.897 *** (1.440)	-2.051 (2.038)	-3.821 (2.106)
정부 체제	4.261 ** (1.284)	3.019 * (1.266)	4.047 ** (1.279)
선거 시스템	2.935 ** (0.926)	1.964 * (0.916)	2.331 * (0.913)
강제 투표제	3.665 (1.898)	4.176 * (1.831)	3.762 * (1.843)
교육 수준의 변화	0.085 (0.148)	-0.003 (0.143)	-0.040 (0.146)
1인당 GDP 변화율	-0.027 *** (0.004)	-0.024 *** (0.004)	-0.023 *** (0.004)
선거 경쟁도의 변화	0.060 (0.042)	0.045 (0.041)	0.044 (0.041)
경제 세계화 지수 변화 X 민주주의 유형		-0.568 *** (0.124)	
IMF 구조조정 경험			-1.363 (2.409)
경제 세계화 지수 변화 X IMF 구조조정 경험			-0.411 ** (0.122)
기간 더미 변수	포함	포함	포함
상수(Constant)	-4.934 (2.419)	-4.058 (2.338)	-4.544 (2.350)
R ²	0.4988	0.5369	0.5319
N		270	
***: p < 0.001, **: p < 0.01, *: p < 0.05			

기존의 ‘선거의 중요성’ 가설과는 반대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국회의원 선거가 정부 수반을 선출하는 결과로 이어지는 - 국회의원 선거가 보다 중요성을 갖는 - 의원내각제 국가에서 오히려 투표율이 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사회 경제적 변수 중 교육 수준의 향상은 투표율 변화와 별 다른 관계가 없었으며, 기존의 가설과 달리 소득 수준이 높은 비율로 증가할수록 투표율이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2는 본 연구의 핵심적인 가설이라고 할 수 있는 가설 2, 경제 세계화의 ‘차별적 영향력’에 대한 것이다. 분석 결과, 투표율 하락에 대한 경제 세계화의 영향력은 국가의 민주주의 유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상호작용항의 결과는 경제 세계화 지수의 상승에 따른 투표율의 하락폭이,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에서보다 신생 민주주의 국가들에서 더 크다는 것을 확인해주고 있다(<그림 6>). 경제 세계화 지수가 10점 상승함에 따라,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의 투표율은 1.35%p 하락하지만, 신생 민주주의 국가들은 7.03%p 하락한다는 것이다.⁶⁾

6) 상호작용항의 해석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모형 2에서, 가장 첫 줄에 위치한 “경제 세계화 지수의 변화”의 계수값은,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 경제 세계화 지수가 1점 상승할 때, 투표율은 0.135%p만큼 하락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경제 세계화 지수 변화 X 민주주의 유형” 변수의 계수값은, 신생 민주주의 국가에서 경제 세계화 지수가 1점 상승할 때, 투표율이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보다 0.568%p만큼 더 하락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로부터 신생 민주주의 국가에서 투표율 변화에 대한 경제 세계화 지수의 영향력을 계산하면, $0.135 + 0.568 = 0.703\text{p}$ 가 된다.

<그림 6> 투표율 하락에 대한 경제 세계화의 차별적 영향력



가설 3에 대한 모형 3의 결과는 모형 2의 함의를 다시 한 번 확인해주고 있다. 신생 민주주의 국가들에서 경제 세계화 변수의 영향력이 더 크게 나타났던 것처럼, IMF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경험한 이후의 선거에서 투표율 하락에 대한 경제 세계화 변수의 영향력은 더 컸다. IMF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경험하지 않은 국가에서 경제 세계화 지수의 영향력은, 지수가 10점 상승할 때 $-2.41\%p$ 였으나, IMF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경험한 국가에서 그 영향력은 $-6.52\%p$ 였다. 이와 같은 IMF 구조조정 프로그램의 영향력은, 신생 민주주의 국가에서 투표율 하락이 더 가파르게 나타난 원인을 일정 부분 설명해준다. 왜냐하면 IMF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경험한 선진 민주주의 국가의 수는 아이슬란드와 아일랜드 2개이며, 구조조정 프로그램 하

에서 실시된 선거의 횟수 또한 2009년 아이슬란드 국회의원 선거, 2011년 아일랜드 국회의원 선거, 단 2회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에 반해 IMF 구조조정 프로그램의 경험 하에서 실시된 신생 민주주의 국가들의 선거 횟수는 114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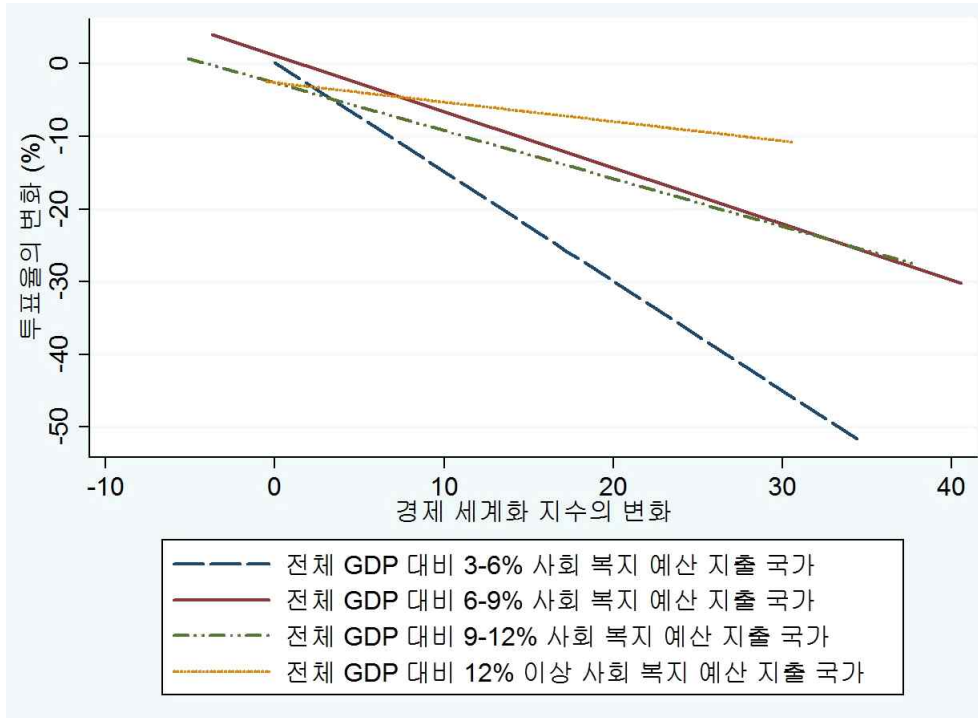
<표 5>의 모형 4와 모형 5는 투표율 변화에 대한 경제 세계화의 영향력을 완충할 수 있는 두 가지 변수, 좌파 정당의 득표율과 GDP 대비 복지 지출 비율의 영향력을 검증한 결과이다. 분석 결과 좌파 정당의 득표율이 높을수록 경제 세계화의 영향력이 약하게 나타날 것이라는 가설 4는 기각되었다. 물론 다른 원인이 있을 수도 있겠으나, 이와 같은 결과는 좌파 정당 득표율의 높고 낮음이 유권자들의 투표 효용(Benefit) 평가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복지 지출 비율이 높은 국가일수록 유권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정치에 관심을 가질 수 있게 하는 ‘자원’을 공급하여 세계화에 따른 투표율 하락을 완화할 수 있다는 가설 5의 주장은 채택되었다. 회귀분석 결과를 해석해보자면, 복지 지출이 GDP 대비 0%인 국가의 선거에서, 경제 세계화 지수가 1 상승할수록 투표율은 1.541%p 하락한다. 그러나 복지 지출 비율이 증가할수록 경제 세계화 지수의 영향력은 눈에 띄게 감소한다. 복지 지출 비율이 5%일 때, 경제 세계화 지수의 영향력은 -1.034%p로 약화되며, 복지 지출 비율이 15%까지 상승하면 경제 세계화 지수의 영향력은 -0.019%p로 거의 사라진다. <그림 7>은 높은 복지 수준이 경제 세계화의 투표율 하락 효과를 뚜렷하게 완화해주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5> 회귀분석 2 : 경제 세계화, 좌파 정당 득표율, 복지 지출 비율의 투표율 하락에 대한 영향

	Model 4 계수값 (표준오차)	Model 5 계수값 (표준오차)
경제 세계화 지수 변화	-0.599 *** (0.145)	-1.541 *** (0.248)
민주주의 유형	-8.559 *** (1.491)	-7.998 *** (2.039)
정부 체제	4.281 ** (1.302)	3.191 * (1.273)
선거 시스템	2.788 ** (0.949)	2.092 * (0.932)
강제 투표제	3.685 (1.912)	4.084 * (1.904)
교육 수준의 변화	0.098 (0.149)	-0.064 (0.148)
1인당 GDP 변화율	-0.027 *** (0.005)	-0.024 *** (0.004)
선거 경쟁도의 변화	0.063 (0.042)	0.044 (0.041)
좌파 정당 득표율	0.013 (0.055)	
경제 세계화 지수 변화 X 좌파 정당 득표율	0.002 (0.004)	
GDP 대비 복지 지출 비율		-0.911 * (0.396)
경제 세계화 지수 변화 X GDP 대비 복지 지출 비율		0.101 *** (0.024)
기간 더미 변수	포함	포함
상수(Constant)	-5.197 (2.923)	7.288 (5.460)
R ²	0.5004	0.5328
N	270	
***: p < 0.001, **: p < 0.01, *: p< 0.05		

<그림 7> 사회 복지 예산 지출 비율의 변화에 따른 경제 세계화 지수의 영향력 변화



이상의 회귀분석 결과를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투표율 하락에 대한 경제 세계화 변수의 영향력이 선진 민주주의 국가뿐만 아니라 신생 민주주의 국가를 포함한 사례에서도 확인되었다(가설 1 채택). 둘째, 경제 세계화 변수의 영향력은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 보다 신생 민주주의 국가에서 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가설 2 채택). 셋째, 경제 세계화 변수의 영향력은 IMF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경험한 민주주의 국가에서 보다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가설 3 채택). 넷째, 경제 세계화 변수의 투표율 하락에 대한 영향력은 선거에서의 좌파 정당의 득표율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았다(가설 4 기각).

다섯째, GDP 대비 복지 지출 비율이 높을수록 경제 세계화 지수의 투표율 하락에 대한 영향력은 약화되었다(가설 5 채택).

이 외에도 통제변수로 포함된 제도 변수, 사회경제적 변수, 선거 경쟁도 변수의 영향력은, 일부 변수의 경우 기존의 가설과 일치하는 결과가 나타난 반면, 그렇지 않은 변수들도 있었다. 정부 체제(대통령제-의원내각제) 변수는 모든 모델에서 투표율 하락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기존의 가설과 달리 의원내각제에서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의 하락 정도가 더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 시스템 변수 또한 모든 모델에서 유의미한 영향력이 확인되었는데, 기존의 가설과 마찬가지로 선거의 비례성이 높을수록 투표율 하락의 폭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제 투표제의 경우 모형 2, 3, 5에서 통계적 유의미성이 확인되었는데, 강제 투표제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에서 투표율 하락폭이 적었다. 모든 모델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난 1인당 GDP 변화율 변수는, 자원 모델의 가설과 달리 성장률이 높을수록 오히려 투표율이 더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경제 세계화와 투표율 하락 : 개인 수준 분석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연구는 집합 수준 자료 분석의 몇 가지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인 수준에서 측정된 유권자의식조사자료 데이터를 활용한다. 설문문항의 한계를 고려할 때 유권자의식조사자료의 분석결과를 집합 수준 자료 분석 결과와 동일한 수준에서 분석하기는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유권자의식조사자료는 투표 행위 이전의 가장 직접적인 유권자의 ‘인식’을 알아볼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 세계화의 심화’로부터 ‘투표율 하락’까지 이어지는 긴 인과관계의 고리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목표 하에 본 연구는 ‘선거체계비교연구(CSES: The Comparative Study of Electoral Systems)’ 데이터를 활용한다. CSES 데이터는 경제 세계화로부터 투표 참여에 이르는 인과관계를 분석할 수 있는 주요 관련 변수들을 포함하고 있다. 투표율 하락에 대한 경제 세계화 가설의 핵심은, 경제 세계화의 압력이 정당들의 정책적 입장 간의 주요한 차이를 사라지게 만든다는 것이다. CSES 데이터는 이에 대한 유권자들의 인식을 묻는 문항을 포함하고 있는데, “정당 혹은 후보자들 간의 차이가 얼마나 크다고 인식하고 있습니까?”라는 문항이다. 비록 경제 세계화에 대한 인식을 직접적으로 묻는 문항이 존재하지 않고, 가설의 핵심적인 부분인 ‘시계열적 변화’를 측정할 수 없다는 한계 또한 존재하지만, CSES 데이터의 여러 문항들은 간접적으로나마 경제 세계화의 투표 참여에 대한 영향력을 검증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먼저 살펴볼 부분은,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과 신생 민주주의 국

가들 사이의 투표율 차이가 설문 문항을 통한 조사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는가하는 점이다. 앞서 집합 수준의 분석에서와 같은 기준 하에서, 본 연구는 CSES 데이터에 포함되어 있는 국가들을 선진 민주주의 국가 17개국, 신생 민주주의 국가 14개국으로 분류하였다 (표 6). 분석 결과, <표 7>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선진 민주주의 국가의 평균 투표 참여율이 87.65%로, 신생 민주주의 국가보다 9.6% 포인트 높았으며, 그 차이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물론 유권자의식조사자료에서 투표하지 않고서도 규범적 판단에 의해 투표했다고 응답하는 경향이 빈번히 나타남을 고려할 때 이 수치가 크게 의미 있는 것이라고 보기는 힘들지만, 어디까지나 본 연구의 관심은 두 집단 간의 차이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하겠다.

<표 6> 분석 대상 국가 (CSES Module 3)

민주주의 분류	국가명
선진 민주주의 (17개)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리아, 캐나다, 아이슬란드,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이스라엘, 일본,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위스, 미국
신생 민주주의 (14개)	칠레, 대만, 크로아티아, 체코, 에스토니아, 한국, 라트비아, 페루, 필리핀,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우루과이

<표 7> 민주주의 유형과 투표 참여율

	선진 민주주의	신생 민주주의	t-test
투표 참여율	87.65%	78.07%	t=31.5995 p<0.001 diff=0.096 N=61,706

다음으로 본 연구는 가설 6, 정당/후보자들 간의 정책적 입장의 차이(differences of choice options)에 대한 유권자들의 인식이 투표 참여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해보았다(표 8). <표 8>의 로지스틱 회귀분석 모델은 투표 참여에 대한 다른 변수들의 영향력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정책적 입장의 차이 변수가 투표 참여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모델의 해석에 있어서, ‘한계효과’는, 다른 변수의 값을 평균값에 고정하였을 때, 해석하고자 하는 변수의 값이 한 단위 변화하였을 때 종속변수의 값이 얼마만큼 변화하는지 보여준다. 분석 결과, “정당/후보자 간에 주요한(major) 차이가 있다”고 응답한 유권자는 “정당/후보자 간에 사소한(minor) 차이가 있다”고 응답한 유권자보다 4.1%p 투표할 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와 같은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가설 6 지지).

그리고 이와 같은 결과는 민주주의 유형을 분리한 모델에서도 똑같이 확인되었다. 정당/후보자 선택지 간의 차이 변수는 두 민주주의 유형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 영향력의 크기는 신생 민주주의 국가들에서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보다 큰 소하계나마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로지스틱 회귀분석 : 투표 참여에 대한 개인 수준 분석 모델

	전체	선진 민주주의	신생 민주주의
	한계효과 (표준오차)	한계효과 (표준오차)	한계효과 (표준오차)
정당/후보자 선택지 간의 차이	0.042 *** (0.002)	0.036 *** (0.003)	0.038 *** (0.004)
연령	0.002 *** (0.000)	0.002 *** (0.000)	0.002 *** (0.000)
교육 수준	0.019 *** (0.001)	0.013 *** (0.001)	0.016 *** (0.002)
가구 소득	0.014 *** (0.001)	0.016 *** (0.001)	0.011 *** (0.002)
정당 일체감 유무	0.079 *** (0.003)	0.061 *** (0.004)	0.115 *** (0.006)
선거 경쟁도	-0.001 *** (0.000)	-0.001 *** (0.000)	0.001 (0.000)
강제 투표제 유무	0.089 *** (0.003)	0.080 *** (0.004)	0.170 *** (0.005)
유효정당수	-0.012 *** (0.001)	-0.014 *** (0.001)	-0.017 *** (0.002)
상수	-0.9239	-0.2447	-0.9195
Log Likelihood	-12043.996	-7026.2013	-4697.2512
N	34599	22628	11971
LR chi square(8)	2790.01	1515.93	1639.76
***: $p < 0.001$, **: $p < 0.01$, *: $p < 0.05$			

모델에 포함된 다른 통제변수들은 이전의 투표 참여 연구들과
일관된 결과를 나타냈다. 먼저 투표 참여의 가장 전통적인 모델인

‘자원 모델(resource model)’의 주장과 마찬가지로, 높은 교육 수준, 높은 소득 수준은 유권자의 투표 참여 확률을 높였고, 연령의 영향력 또한 이전의 연구들과 같은 방향의 기울기를 보였다. 이어서 강제 투표제를 실시하는 국가의 유권자일수록, 정당일체감을 갖고 있는 유권자일수록, 유효정당수가 적은 국가의 유권자일수록 투표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역구의 선거 경쟁도의 경우, 기존의 가설과는 반대 방향의 기울기, 즉, 선거 경쟁도가 낮을수록(1-2위간 득표율 차이가 클수록) 투표 참여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선거 경쟁도 변수는 신생 민주주의 국가들에서는 투표 참여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다.

<표 9> 투표 기대 효용 관련 변수에 대한 민주주의 유형 간 비교

	선진 민주주의	신생 민주주의	t-test
정당/후보자 선택지 간의 차이에 대한 인식 (0=차이 없음, 2=주요한 차이 있음)	1.396	1.271	t=21.8557 p<0.001 diff=0.125 N=50,015
투표 효능감 (1에서 5)	3.955	3.816	t=13.0599 p<0.001 diff=0.139 N=53,780
정당들 간 이념적 거리에 대한 인식 (0에서 10)	3.419	3.381	t=1.4647 p=0.1430 diff=0.039 N=54,917

다음으로 <표 9>는 경제 세계화 변수의 민주주의 유형에 따른 차별적 영향력을 설명하기 위해, 유권자들이 느끼는 “투표 기대 효용(B: expected Benefit)”이 민주주의 유형에 따라 어떤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 분석한다. 앞서 본 연구는, 신생 민주주의 국가들이 세계화 과정에서 경제 정책의 자율성을 상당 부분 상실하였고, 이에 따라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에서보다 정당들 간의 정책적 차이가 감소할 것이라 가설을 세운 바 있다. 먼저 “정당/후보자 선택지 간의 차이에 대한 인식(perceived differences of choice options)” 변수의 경우, 응답자들은 “0 - 아무런 차이 없음, 1 - 사소한 차이 있음, 2 - 주요한 차이 있음” 이상 세 가지 중 하나의 보기를 선택하게 된다. 분석 결과, 가설 7은 지지되었다. 예측한 바와 같이, 신생 민주주의 국가들의 유권자들은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의 유권자들보다 정당/후보자 간의 차이가 크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두 민주주의 유형의 평균값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차이: 0.125, $p < 0.001$).

또한 투표 효능감에 있어서도, 신생 민주주의 국가들의 유권자들은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의 유권자들보다 낮은 정도의 투표 효능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차이: 0.139, $p < 0.001$). 정당들 간의 이념적 거리에 대한 유권자들의 인식의 경우, 신생 민주주의 국가들의 유권자들이 보다 거리를 좁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p = 0.1430$).

이상의 개인 수준의 분석 결과는, 집합 수준의 분석 결과의 내용과 일관성을 보이고 있다. 데이터 상의 한계로 인하여 ‘경제 세계화 - 정당/후보자 선택지 간의 차이’ 사이의 인과관계를 검증하지는 못했으나, 분석 결과는 현재의 투표율 하락에 ‘투표 기대 효용의 하

락'이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으며, 그 영향력의 크기가 신생 민주주의 국가에서 보다 크다는 것을 확인해주었다.

VII.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선진 민주주의 국가(established democracies) 17개국, 신생 민주주의 국가(new democracies) 21개국에서 1980년대 중반 이후 실시된 270개의 선거에서의 국가별 투표율 자료를 바탕으로, 투표율의 시계열적 변화를 분석하고 그와 같은 투표율 변화의 원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투표율 하락의 정도가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보다 신생 민주주의 국가에서 보다 크다는 점에 주목하여(그림 4, 그림 5), 민주주의 유형에 따라 투표율 하락의 폭이 다르게 나타나는 원인을 밝히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기존의 투표율 하락 연구의 주요 변수 중 하나인 '경제 세계화' 변수에 주목하여, 경제 세계화의 심화에 따라 투표율이 하락하고 있는지, 그리고 투표율 하락에 대한 경제 세계화 변수의 영향력이 민주주의 유형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나는지 검증하였다.

본 연구는 신생 민주주의 국가의 경제 세계화의 과정이 경제 위기, 체제 전환의 과정에서 외부의 압력에 의해 급속도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투표율 하락의 '직접적 원인'이 되는 국가 정책 자율성의 약화, 정당 간 정책 수렴 현상 또한 신생 민주주의 국가에서 보다 강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았다. 분석 결과, 연구의 가설은 명백히 지지되었다. 투표 참여에 대한 기존의 주요 독립변수들과 기간 변수의 영향력을 통제한 상태에서, 경제 세계화가 심화될수록 민주주의 유형에 관계없이 투표율이 하락하는 추세가 발견되었고, 투표율 하락에 대한 경제 세계화 변수의 영향력은 신생 민주주의 국가에서 보다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차별적 영향력의 원인을 밝히고자 기타 관

련 변수들과 경제 세계화 지수 사이의 상호작용의 영향력을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IMF의 구조조정 프로그램에의 참여한 국가일수록, GDP 대비 복지 예산 지출 비율이 낮은 국가일수록 투표율 하락에 대한 경제 세계화 지수의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신생 민주주의 국가들 대다수가 이와 같은 조건에 해당함을 고려해볼 때, 모델 3, 모델 5의 결과는 투표율 하락에 대한 경제 세계화의 영향력이 신생 민주주의 국가에서 특히 강한 원인에 대한 설득력 있는 설명을 제공해주고 있다.

또한 본 연구는 “CSES Module 3”를 활용한 개인 수준에서의 추가적인 분석을 통해, 집합 수준의 분석이 갖는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다운즈(Downs)의 합리적 유권자 가설이 가정하는 ‘기대 효용(expected Benefit)’과 연계된 ‘정당/후보자 선택 지 간의 차이’ 변수가 투표 참여에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 세계화의 영향력이 보다 강했던 신생 민주주의 국가일수록, 유권자들의 기대 효용 또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기존의 투표 참여, 투표율 연구에서 학문적 관심에서 전무했던 신생 민주주의 국가의 투표율 변화에 대한 연구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함의를 지닌다. 기존의 투표율 연구는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 내부에서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 다양한 변수들의 영향력을 검증하였는데, 본 연구는 ‘민주주의 유형(보다 정확히는 민주주의 나이)’이라는 새로운 변수를 투표율 연구에 추가함으로써 국가 간 투표율의 차이와 투표율의 시계열적 변화를 설명하는 데 보다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경제 세계화가 투표 참여에 미치는 영향력이 민주주의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밝혔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결과는 경제 세계화와 국내 선거 정치의 관계에 대한 논의에 있

어서도 기여점을 탐색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 또한 지닌다. 경제 세계화로부터 투표율 하락까지 이어지는 ‘인과관계의 고리(causal chain)’가 다소 길다는 점이다(Steiner 2010; Steiner and Martin 2012). 경제 세계화 가설에 따르면 경제 세계화의 심화는 국가의 정책 자율성을 약화시키고, 이는 정당 간 정책 수렴 현상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정책 수렴 현상은 유권자들이 느끼는 투표 효용(B)을 감소시켜 기권할 확률을 높이게 된다. 물론 이와 같은 인과관계의 고리는 나름의 논리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경제 세계화의 영향력을 전달하는 각 단계의 인과관계가 경험적으로 증명되지 않는다면, “경제 세계화가 심화됨에 따라 투표율이 하락하였다”는 발견 자체는 여전히 그 원인에 대한 또 다른 설명을 필요로 할 수밖에 없다.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정당 간의 정책적 차이, 이념적 차이(B)가 투표 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이미 예전부터 충분히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고, 정책적 차이/이념적 차이가 작을수록 투표할 확률이 낮아진다는 다수의 결과가 누적되어 있다. 결국 경제 세계화로부터 투표율 하락까지 이어지는 인과관계의 고리 중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은, 과연 경제 세계화가 국가의 정책 자율성을 약화시키고, 그 결과로 정당 간 정책이 수렴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슈타이너와 마틴(Steiner and Martin 2012)은 이와 같은 문제의식 하에서 “정당 강령 비교 프로젝트(the Comparative Manifestos Project)”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24개의 선진 민주주의 국가의 사례를 분석하였는데, 분석 결과 경제 세계화가 심화된 국가일수록 경제 정책에 있어서의 정당 간 좌-우 수렴 현상이 강하게 나타났고, 이와 같은 수렴 현상이 낮은 투표율로 나타났다. 그러나 신생 민주주의 국가의

경우, 아직 경제 세계화로부터 투표율 하락까지의 긴 인과관계의 고리가 여전히 많은 부분에서 비어 있다.

둘째로, 한 국가 내에서도 경제 세계화에 반응하는 유권자의 인식 정도는 다를 수 있다. 골든(Golden 2004)이 이탈리아의 전후 정당 체계의 사례를 통해 증명한 바와 같이, 한 국가 내에서도 국제 무역에의 노출 정도는 선거 지역구에 따라 다양할 수 있다. 실제로 이탈리아 정당체계의 ‘재배열(realignment)’이 이루어졌던 1992년 총선거에서 국제적 변수의 영향력은 매우 컸지만, 실제로 그와 같은 경제 세계화의 영향력은 지역별로 달랐다. 따라서 추후의 연구들이 경제 세계화와 국내 정치(nation-level politics) 간의 관계를 보다 정확히 설명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국가들 간의 분산뿐만 아니라 국가 내에서의 지역적 차이 또한 고려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신생 민주주의 국가’라는 카테고리 내부의 다양성이다. ‘선진 민주주의 국가’와 ‘신생 민주주의 국가’ 사이의 비교에 초점을 맞춘 본 연구는, 신생 민주주의 국가들이 갖는 공통성에 주목하여 동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의 민주주의 국가들을 하나의 카테고리 안에 포함하였다. 그러나 그와 같은 공통성에도 불구하고, 각 지역, 그리고 각국이 갖고 있는 제도적 유산이나 정당들 간 경쟁의 맥락(contexts)은 크게 상이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신생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경제 세계화와 투표율 하락 간의 관계에 대한 본 연구의 발견은, 추후의 연구를 위한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다. 추후의 연구를 통해 오늘날 신생 민주주의 국가들의 급격한 투표율 하락의 원인에 대한 보다 설득력 있고, 보다 구체화된 설명을 제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1. 국문

- 강원택. 2008. "투표참여, 민주주의와 정당 정치: 2007년 대선과 2008년 총선에
서의 기권자 분석." <현대정치연구> 1(2): 75-102.
- 강원택. 2010. <한국 선거정치의 변화와 지속>. 파주: 나남.
- 김욱. 1998. "투표참여와 기권: 누가, 왜 투표하는가?" 이남영 편. <한국의 선거
II: 제15대 대통령선거를 중심으로>. 서울: 푸른길.
- 동아시아연구원. 2010. "유권자 투표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제
5회 지방선거 사례를 중심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연구보고서.
- 박찬욱. 1992. "유권자의 선거관심도, 후보인지능력과 투표참여의사: 제14대 총선
전 조사결과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26(3): 153-174.
- 박찬욱. 1996. "제15대 국회의원 총선거결과 개관: 선거 후 유권자 면접조사자료를
중심으로." 세종연구소 편. <제15대 총선 분석>. 서울: 세종연구소.
- 서현진. 2008. "제17대 대선과 투표참여." 이현우, 권혁용 편. <변화하는 한국 유
권자 2>. 서울: 동아시아연구원.
- 안용흔. 2010. "선거제도, 사회균열, 그리고 의회정당체제-신생민주주의국가 사례
를 중심으로." <현대정치연구> 3(2): 37-59.
- 이갑윤. 2008. "투표율저하 원인과 제고방안 분석." 2008년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연구보고서.
- 이남영. 1993. "투표참여와 기권." 이남영 편. <한국의 선거 I>. 서울: 나남.
- 정수현. 2012. "투표율과 사회경제적 지위모델: 제4회와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율 분석." <한국정치연구> 21(1): 27-54.

2. 영문

- Abramowitz, Alan I, and Walter J Stone. 2006. "The Bush effect: Polarization, Turnout, and Activism in the 2004 Presidential Election." *Presidential Studies Quarterly* 36 (2):141-54.
- Abramson, Paul R., John H. Aldrich, and David W. Rohde. 1998. *Change and Continuity in the 1996 Elections*. Washington, DC: CQ Press
- Abramson, Paul R, John H Aldrich, and David W Rhode. 2002. *Change and Continuity in the 2000 Elections*. Washington, DC: CQ Press.
- Anderson, Christopher J., and Pablo Beramendi. 2012. "Left Parties, Poor Voters, and Electoral Participation in Advanced Industrial Societies."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45 (6):714-46.
- Andrews, David M. 1994. "Capital Mobility and State Autonomy: Toward a Structural Theory of International Monetary Relations."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38:193-218.
- Ashenfelter, Orley, and Stanley Kelley, Jr. 1975. "Determinants of Participation in Presidential Elections." *Journal of Law and Economics* 18 (3):695-733.
- Avi-Yonah, Reuven S. 2000. "Globalization, Tax Competition, and the Fiscal Crisis of the Welfare State." *Harvard Law Review* 113 (7):1573-676.
- Barnes, Samuel H. 1997. "Electoral Behavior and Comparative Politics." In Mark I. Lichbach and Alan S. Zuckerman, eds. *Comparative Politics: Rationality, Culture, and Structur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asinger, Scott J, and Mark Hallerberg. 2004. "Remodeling the Competition for Capital: How Domestic Politics Erases the Race to the Bottom."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8 (2):261-76.
- Beeson, Mark, and Iyanatul Islam. 2005. "Neo-liberalism and East Asia: Resisting the Washington Consensus." *The Journal of Development Studies* 41 (2):197-219.
- Berelson, Bernard R, Paul F Lazarsfeld, and William N McPhee. 1986. *Voting: A Study of Opinion Formation in a Presidential Campaig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Bhatti, Y., and K. M. Hansen. 2012. "The Effect of Generation and Age on Turnout to the European Parliament - How Turnout Will Continue to Decline in the Future." *Electoral Studies* 31 (2):262-72.
- Birch, Sarah. 2005. "Single-member District Electoral Systems and Democratic Transition." *Electoral Studies* 24 (2):281-301.
- Blais, André. 2000. *To Vote or Not to Vote: The Merits and Limits of Rational Choice Theory*. Pittsburgh: University of Pittsburgh Press.
- Blais, André, and R. Kenneth Carty. 1990. "Does Proportional Representation Foster Voter Turnout?"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Research* 18 (2):167-81.
- Blais, André, and Agnieszka Dobrzynska. 1998. "Turnout in Electoral Democracies."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Research* 33 (2):239-61.
- Blais, André, E. Gidengil, and N. Nevitte. 2004. "Where does Turnout Decline Come From?"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Research* 43 (2):221-36.
- Brockington, David. 2009. "It's About The Benefits Choice Environments, Ideological Proximity and Individual Participation in 28 Democracies." *Party Politics* 15 (4):435-54.
- Campbell, Angus, Philip E Converse, Warren E Miller, and Donald E Stokes. 1980. *The American Voter*.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Chapman, Randall G, and Kristian S. Palda. 1983. "Electoral Turnout in Rational Voting and Consumption Perspectives."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9 :337-46.
- Converse, Philip E, and Richard Niemi. 1971. "Non-voting among Young Adults in the United States." *Political Parties and Political Behavior* 2.
- Conway, M Margaret. 2001. "Women and Political Participation." *Political Science & Politics* 34 (2):231-3.
- Cox, Gary W, and Michael C. Munger. 1989. "Closeness, Expenditures, and Turnout in the 1982 US House Elections."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3 (1):217-31.
- Crewe, Ivor. 1981. "Electoral Participation." In D. Butler, H. Penniman, and A. Ranney, eds. *Democracy at the Polls: A Comparative Study*

- of Competitive National Elections*. Washington, DC: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for Public Policy Research.
- Denver, David T, and Gordon Hands. 1974. "Marginality and Turnout in British General Elections."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4 (1):17-35.
- Downs, Anthony. 1957. *An Economic Theory of Democracy*. New York: Harper.
- Eagles, Munroe. 1991. "Voting and Non-voting in Canadian Federal Elections: An Ecological Analysis." *Voter Turnout in Canada* 15:3-32.
- Endersby, James W, and Jonathan T. Kriekhaus. 2008. "Turnout Around the Globe: The Influence of Electoral Institutions on National Voter Participation, 1972-2000." *Electoral Studies* 27 (4):601-10.
- Farrell, David M. and Paul Webb. 2002. "Political Parties as Campaign Organizations." In R. J. Dalton and M. P. Wattenberg, eds. *Parties without Partisans: Political Change in Advanced Industrial Democracie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Feldstein, Martin. 1998. "Refocusing the IMF." *Foreign Affairs - New York* 77:20-33.
- Ferejohn, John A, and Morris P. Fiorina. 1974. "The Paradox of not Voting: A Decision Theoretic Analysis."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68 (2):525-36.
- Filer, John E, Lawrence W. Kenny, and Rebecca B. Morton. 1991. "Voting Laws, Educational Policies, and Minority Turnout." *Journal of Law and Economics* 34 (2):371-93.
- Fiorina, Morris P. 1976. "The Voting Decision: Instrumental and Expressive Aspects." *Journal of Politics* 38 (2):390-413.
- Fiorina, Morris P., Samuel J. Abrams, and Jeremy Pope. 2005. *Culture War?* New York: Pearson Longman.
- Flanigan, William H. and Nancy H. Zingale. 1998. *Political Behavior of the American Electorate*. Washington, DC: CQ Press.
- Flickinger, Richard S. and Donley T Studlar. 1992. "The Disappearing Voters? Exploring Declining Turnout in Western European Elections." *West European Politics* 15 (2):1-16.

- Fornos, Carolina A, Timothy J. Power, and James C. Garand. 2004. "Explaining voter turnout in Latin America, 1980 to 2000."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37 (8):909-40.
- Franklin, Mark N. 2001. "Electoral Participation." In Richard G. Niemi and Leon A. Weisberg, eds. *Controversies in Voting Behavior, 4th edition*. Washington, DC: CQ Press.
- Franklin, Mark N. 2004. *Voter Turnout and the Dynamics of Electoral Competition in Established Democracies since 1945*.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Frohlich, Norman, Joe A. Oppenheimer, Jeffrey Smith, and Oran R. Young. 1978. "A Test of Downsian Voter Rationality: 1964 Presidential Voting."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72 (1):178-97.
- Gallego, A. 2009. "Where Else Does Turnout Decline Come From? Education, Age, Generation and Period Effects in Three European Countries." *Scandinavian Political Studies* 32 (1):23-44.
- Gallego, Aina, Guillem Rico, and Eva Anduiza. 2011. "Disproportionality and Voter Turnout in New and Old Democracies." *Electoral Studies* 31 (1):159-169.
- Genschel, Philipp. 2002. "Globalization, Tax Competition, and the Welfare State." *Politics & Society* 30 (2):245-75.
- Ghobarah, Hazem. 1998. "The Decline in Voter Turnout across the Advanced Industrial Countries, 1980-1998." Paper presented at the APSA Meetings, Boston.
- Glassman, Jim, and P?draig Carmody. 2001. "Structural Adjustment in East and Southeast Asia: Lessons from Latin America." *Geoforum* 32 (1):77-90.
- Glenn, Norval D, and Michael Grimes. 1968. "Aging, Voting, and Political Interest."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33:563-75.
- Goerres, Achim. 2009. *The Political Participation of Older People in Europe: the Greying of Our Democracies*. Basingstoke: Palgrave Macmillan.
- Golden, Miriam. 2004. "Economic Sources of Regime Change: How European Integration Undermined Italy's Postwar Party System."

-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37 (10):1238-74.
- Goldstein, Kenneth M, and Travis N. Ridout. 2002. "The Politics of Participation: Mobilization and Turnout over Time." *Political Behavior* 24 (1):3-29.
- Gosnell, Harold Foote. 1927. *Getting Out the Vote: An Experiment in the Stimulation of Voting*.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Granger, Clive WJ, and Paul Newbold. 1974. "Spurious Regressions in Econometrics." *Journal of Econometrics* 2 (2):111-20.
- Gray, M., and M. Caul. 2000. "Declining Voter Turnout in Advanced Industrial Democracies, 1950 to 1997: The Effects of Declining Group Mobilization."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33 (9):1091-122.
- Hays, Jude C. 2003. "Globalization and Capital Taxation in Consensus and Majoritarian Democracies." *World Politics* 56 (1):79-113.
- Hellwig, Timothy T. and David Samuels. 2007. "Voting in Open Economies: The Electoral Consequences of Globalization."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40(3): 283-306.
- Highton, Benjamin, and Raymond E. Wolfinger. 2001. "The First Seven Years of the Political Life Cycle."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45 (1):202-9.
- Hirczy, Wolfgang. 1995. "Explaining Near-universal Turnout: The Case of Malta."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Research* 27 (2):255-72.
- Hobolt, S, and Robert Klemmensen. 2006. "Welfare to Vote: the Effect of Government Spending on Turnout." Paper for the presentation at the Midwest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 Huckfeldt, Robert, and John Sprague. 1987. "Networks in Context: The Social Flow of Political Information."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1 (4):1197-216.
- Huntington, Samuel P. 1993. *The Third Wave: Democratization in the Late Twentieth Century. Vol. 4*. Norman and London: University of Oklahoma Press.
- Jackman, Robert W. 1987. "Political Institutions and Voter Turnout in the Industrial Democracies."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1 (2):405-23.
- Jackman, Robert W, and Ross A. Miller. 1995. "Voter Turnout in the

- Industrial Democracies During the 1980s."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27 (4):467-92.
- Kahler, Miles and David A. Lake. 2003. "Globalization and Governance." In Miles Kahler and David A. Lake, eds. *Governance in a Global Econom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Karp, Jeffrey A, and Susan A Banducci. 2007. "Party Mobilization and Political Participation in New and Old Democracies." *Party Politics* 13 (2):217-34.
- Kernell, Samuel, and Gary C. Jacobson. 2000. *The Logic of American Politics*. Washington, DC.: CQ Press.
- Kleppner, Paul. 1982. *Who Voted?: The Dynamics of Electoral Turnout, 1870-1980*. New York: Praeger Publishers.
- Kostadinova, T. 2003. "Voter Turnout Dynamics in Post-Communist Europe."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Research* 42 (6):741-59.
- Kramer, Gerald H. 1970. "The Effects of Precinct-level Canvassing on Voter Behavior." *Public Opinion Quarterly* 34 (4):560-72.
- Kwon, Hyeong-ki. 2012. "Politics of Globalization and National Economy: The German Experience Compared with the United State." *Politics and Society* 40(4): 581-607.
- Lee, Dwight R, and Richard B. McKenzie. 1989. "The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of Declining Tax Rates." *National Tax Journal* 42 (1):79-83.
- Lewis-Beck, Michael S, and Brad Lockerbie. 1989. "Economics, Votes, Protests Western European Cases."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22 (2):155-77.
- Lipset, Seymour M. 1960. *Political Man: The Social Basis of Modern Politics*. New York: Doubleday.
- MacIntyre, Andrew J., T. J. Pempel, and John Ravenhill. 2008. *Crisis as Catalyst: Asia's Dynamic Political Economy*.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 Marshall, John, and Stephen D. Fisher. 2010. "Economic Globalization and Turnout: Compensation, Constraint and Ownership." Paper read at American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2010 Annual Meeting. Washington, DC.

- Matsusaka, John G., and Filip Palda. 1993. "The Downsian Voter Meets the Ecological Fallacy." *Public Choice* 77 (4):855-78.
- Milbrath, Lester and M. L. Goel. 1977. *Political Participation: How and Why Do People Get Involved in Politics?* Chicago: Rand McNally.
- Miller, Warren E., and J. Merrill Shanks. 1996. *The New American Voter*.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 Mitchell, Glenn E., and Christopher Wlezien. 1995. "The Impact of Legal Constraints on Voter Registration, Turnout, and the Composition of the American Electorate." *Political Behavior* 17 (2):179-202.
- Mueller, Dennis C. 2003. "Public Choice: An Introduction." In C. K. Rowley and F. Schneider, eds. *The Encyclopedia of Public Choice*. New York: Kluwer Academic Publishers.
- Nevitte, Neil, Andre Blais, Elisabeth Gidengil, and Richard Nadeau. 2009. "Socio-economic Status and Non-Voting: A Comparative Cross-National Analysis." In 18th World Congress of the International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Québec City, Canada.
- Nohlen, D., Grotz, F., Hartmann, C., 2001a. *Elections in Asia and the Pacific: A Data Handbook, Volume 1: The Middle East, Central Asia and South Asia*.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Nohlen, D., Grotz, F., Hartmann, C., 2001b. *Elections in Asia and the Pacific: A Data Handbook, Volume 2: Southeast Asia, East Asia and the Pacific*.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Nohlen, D. 2005a. *Elections in the Americas: A Data Handbook, Volume 1: North America, Central America, and the Caribbea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Nohlen, D. 2005b. *Elections in the Americas: A Data Handbook, Volume 2: South America*.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Nohlen, Dieter, and Philip Stöver. 2010. *Elections in Europe: A Data Handbook*. Baden-Baden: Nomos.
- Northmore-Ball, Ksenia. 2012. "Increasing Turnout Inequality in Post-Communist Eastern Europe: Economic Disengagement or a Progression to Normalcy?" EPOP Conference, September 7-9, 2012.
- O'Donnell, Guillermo, Philippe C. Schmitter, and Laurence Whitehead. 1986. *Transitions from Authoritarian Rule: Southern Europe*.

-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Pacek, Alexander, and Benjamin Radcliff. 1995. "The Political Economy of Competitive Elections in the Developing World."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39 (3):745-59.
- Pacek, Alexander. 1994. "Macroeconomic Conditions and Electoral Politics in East Central Europe."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38 (3):723-44.
- Pacek, Alexander, Grigore Pop-Eleches, and Joshua A. Tucker. 2009. "Disenchanted or Discerning: Voter Turnout in Post-Communist Countries." *Journal of politics* 71 (2):473-91.
- Plumper, Thomas, Vera E. Troeger, and Hannes Winner. 2009. "Why is There no Race to the Bottom in Capital Taxation?"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53 (3):761-86.
- Plutzer, Eric. 2002. "Becoming a Habitual Voter: Inertia, Resources, and Growth in Young Adulthood."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6 (1):41-56.
- Pop-Eleches, Grigore. 2009. *From Economic Crisis to Reform: IMF Programs in Latin America and Eastern Europ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Powell Jr, G. Bingham. 1984. *Contemporary Democracies: Participation, Stability, and Violence*.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Powell Jr, G. Bingham. 1986. "American Voter Turnout in Comparative Perspective."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0 (1):17-43.
- Quinn, Dennis. 1997. "The Correlates of Change in International Financial Regulation."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1 (3):531-51.
- Radcliff, Benjamin. 1992. "The Welfare State, Turnout, and the Economy: A Comparative Analysis."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6 (2):444-54.
- Riker, William H., and Peter C. Ordeshook. 1968. "A Theory of the Calculus of Voting."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62 (1):25-42.
- Rosenstone, Steven J. 1982. "Economic Adversity and Voter Turnout."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26 (1):25-46.

- Rosenstone, Steven J., and John Mark Hansen. 1993. *Mobilization, Participation, and Democracy in America*. New York: Macmillan Pub. Co.
- Rosenthal, Howard, and Subrata Sen. 1973. "Electoral Participation in the French Fifth Republic."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67 (1):29-54.
- Sachs, Jeffrey, and John Williamson. 1986. "Managing the LDC Debt Crisis." *Brookings papers on Economic Activity* 1986 (2):397-440.
- Steiner, Nils D. 2010. "Economic Globalization and Voter Turnout in Established Democracies." *Electoral Studies* 29 (3):444-59.
- Steiner, Nils D. and Christian W. Martin. 2012. "Economic Integration, Party Polarisation and Electoral Turnout." *West European Politics* 35 (2):238-65.
- Steinmo, Sven. 1993. *Taxation and Democracy: Swedish, British, & American Approaches to Financing the Modern State*.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Stockemer, Daniel, and Patricia Calca. 2012. "Presidentialism and Voter Turnout in Legislative Elections." *Parliamentary Affairs* 65 (4):802-21.
- Strate, John M., Charles J. Parrish, Charles D. Elder, and Coit Ford. 1989. "Life Span Civic Development and Voting Participation."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3 (2):443-64.
- Teixeira, Ruy A. 1992. *The Disappearing American Voter*.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Press.
- Turner, Arthur W. 1993. "Postauthoritarian Elections Testing Expectations about "First" Elections."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26 (3):330-49.
- Uhlener, Carole Jean. 1989. "'Relational Goods" and Participation: Incorporating Sociability into a Theory of Rational Action." *Public Choice* 62 (3):253-85.
- Vachudova, Milada A. and Liesbet Hooghe. 2009. "Postcommunist Politics in a Magnetic Field: How Transition and EU Accession Structure Party Competition on European Integration." *Comparative European Politics* 7: 179-212.

- Verba, Sidney, and Norman H. Nie. 1972. *Participation in America: Political Democracy and Social Equality*. New York: Harper & Row.
- Verba, Sidney, Norman H. Nie, and Jae-on Kim. 1978. *Participation and Political Equality*. Cambridge, [Eng.]: Cambridge University Press.
- Verba, Sidney, Kay Lehman Schlozman, and Henry E. Brady. 1995. *Voice and equality: Civic Voluntarism in American Politic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Vreeland, James Raymond. 2003. *The IMF and Economic Development*.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Wade, Robert. 1998. "The Asian Debt-and-Development Crisis of 1997-?: Causes and Consequences." *World Development* 26 (8):1535-53.
- Wass, H. 2007. "The Effects of Age, Generation and Period on Turnout in Finland 1975-2003." *Electoral Studies* 26 (3):648-59.
- Wolfinger, Raymond E., and Steven J. Rosenstone. 1980. *Who vote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부 록

<표 10> 데이터 출처 : 집합 수준 분석 모델

변수명	출처
투표율(VAP)	International IDEA(2013). http://www.idea.int/vt/index.cfm
민주주의 나이(민주주의 유형)	Cheibub and Gandhi (2004). "A six-fold measure of democracies and dictatorships." Freedom House(2013). "Country ratings and status, FIW 1973-2013." http://www.freedomhouse.org/report-types/freedom-world
경제 세계화 지수	Dreher et al.(2008). "The KOF index of globalization." http://globalization.kof.ethz.ch
IMF 구조조정경험	IMF(2013). "IMF Lending Arrangement." http://www.imf.org/external/np/fin/tad/extarr1.aspx/
좌파 정당 득표율 & 선거 경쟁도	"Election Resources on Internet." http://www.electionresources.org "Political Database of the Americas." http://pdba.georgetown.edu/Elecdata/elecdata.html "Adam Carr's Election Archive." http://psephos.adam-carr.net/ Nohlen and Stöver(2010); Nohlen et al.(2001a; 2001b); Nohlen(2005a; 2005b).
GDP 대비 사회복지 지출 비율	World Bank(2013).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http://databank.worldbank.org/data/views/variableSelection/selectvariables.aspx?source=world-development-indicators#
강제 투표제	International IDEA(2013).
선거 제도 (선거의 비례성)	International IDEA(2013); Golder(2007). "Replication data for: Democratic Electoral Systems Around the World, 1946-2000." http://hdl.handle.net/1902.1/10479 UNF:3:Tck3h2JpUzohauPCbNIm5w== Matt Golder [Distributor] V1 [Version]
정부 형태	Norris(2009). "Democracy Time-series Dataset." http://www.hks.harvard.edu/fs/pnorris/Data/Data.htm
교육 수준	HDRO(2011). "Education Index (expected and mean years of schooling)." http://hdrstats.undp.org/en/indicators/103706.html
1인당 GDP	World Bank(2013).

<표 11> 선거 목록 : 집합 수준 분석 모델

민주주의 분류	국가명	
선진 민주주의 (17개)	오스트리아	1983, 1990, 1994, 1995, 1999, 2002, 2006, 2008
	캐나다	1984, 1988, 1993, 1997, 2000, 2004, 2006, 2008, 2011
	이탈리아	1983, 1987, 1992, 1994, 1996, 2001, 2006, 2008, 2013
	아이슬란드	1983, 1987, 1991, 1995, 1999, 2003, 2007, 2009
	스웨덴	1985, 1988, 1991, 1994, 1998, 2002, 2006, 2010
	덴마크	1987, 1988, 1990, 1994, 1998, 2001, 2005, 2007, 2011
	네덜란드	1986, 1989, 1994, 1998, 2002, 2003, 2006, 2010, 2012
	핀란드	1983, 1987, 1991, 1995, 1999, 2003, 2007, 2011
	일본	1986, 1990, 1993, 1996, 2000, 2003, 2005, 2009, 2012
	아일랜드	1987, 1989, 1992, 1997, 2002, 2007, 2011
	영국	1983, 1987, 1992, 1997, 2001, 2005, 2010
	프랑스	1988, 1993, 1997, 2002, 2007, 2012
	독일	1990, 1994, 1998, 2002, 2005, 2009
	스위스	1983, 1987, 1991, 1995, 1999, 2003, 2007, 2011
	미국	1986, 1990, 1994, 1998, 2002, 2006, 2010
	룩셈부르크	1984, 1989, 1994, 1999, 2004, 2009
	노르웨이	1985, 1989, 1993, 1997, 2001, 2005, 2009
신생 민주주의 (21개)	알바니아	1991, 1992, 1996, 1997, 2001, 2005, 2009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1996, 1998, 2000, 2002, 2006, 2010
	불가리아	1990, 1991, 1994, 1997, 2001, 2005, 2009, 2013
	칠레	1989, 1993, 1997, 2001, 2005, 2009
	크로아티아	1992, 1995, 2000, 2003, 2007, 2011
	체코	1990, 1992, 1996, 1998, 2002, 2006, 2010
	에스토니아	1990, 1992, 1995, 1999, 2003, 2007, 2011
	인도네시아	1999, 2004, 2009
	한국	1985, 1988, 1992, 1996, 2000, 2004, 2008, 2012
	라트비아	1990, 1993, 1995, 1998, 2002, 2006, 2010, 2011
	리투아니아	1992, 1996, 2000, 2004, 2008, 2012
	몽골	1990, 1992, 1996, 2000, 2004, 2008, 2012
	파나마	1994, 1999, 2004, 2009
	파라과이	1989, 1993, 1998, 2003, 2008, 2013
	필리핀	1987, 1992, 1995, 1998, 2001, 2004, 2007, 2010
	폴란드	1989, 1991, 1993, 1997, 2001, 2005, 2007, 2011
	루마니아	1990, 1992, 1996, 2000, 2004, 2008, 2012
	슬로바키아	1990, 1992, 1994, 1998, 2002, 2006, 2010, 2012
	슬로베니아	1990, 1992, 1996, 2000, 2004, 2008, 2011
	우크라이나	1994, 1998, 2002, 2006, 2007, 2012
	우루과이	1984, 1989, 1994, 1999, 2004, 2009

<표 12> 선거 목록 : 개인 수준 분석 모델 (CSES Module 3)

민주주의 분류	국가명
선진 민주주의 (17개)	오스트레일리아(2007), 오스트리아(2008), 캐나다(2008), 아이슬란드(2007; 2009), 스웨덴(2006), 덴마크(2007), 핀란드(2007; 2011), 프랑스(2007), 독일(2005; 2009), 아일랜드(2007), 이스라엘(2006), 일본(2007), 네덜란드(2006; 2010), 뉴질랜드(2008), 노르웨이(2005; 2009), 스위스(2007), 미국(2008)
신생 민주주의 (14개)	칠레(2009), 대만(2008), 크로아티아(2007), 체코(2006; 2010), 에스토니아(2011), 한국(2008), 라트비아(2010), 페루(2011), 필리핀(2010), 폴란드(2005; 2007), 루마니아(2009), 슬로바키아(2010), 슬로베니아(2008), 우루과이(2009)

Abstract

Declining Turnout in New Democracies: The Effect of Economic Globalization

Jungmin Song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and International Relations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Contrary to former voter turnout studies that focused solely on the cases of established democracies, this paper extends the theoretical discussion to cases of new democracies by examining why the levels of turnout in new democracies have declined more dramatically than they have in established democracies. The theoretical model builds on the premise that the process of economic integration reduces the ability of national policy makers to influence economic outcomes, and this, in turn, reduces the expected utility from voting because the results of elections make less of a difference. In this sense, this paper hypothesizes that the starker declining turnout in new democracies compared to established democracies is largely attributable to the negative turnout effect of economic globalization, as most new democracies experienced economic globalization during difficult times, such as regime changes or financial

crises. An analysis of the aggregate data for parliamentary elections in 17 established democracies and 21 new democracies that have been established since the mid-1980s robustly supports the hypothesis that economic globalization the effect of economic globalization is much greater in new democracies than in established democracies. Additionally, considering the weakness of the long causal chain of the economic globalization hypothesis, this paper compensates for that weakness by conducting a multi-level analysis. Using the CSES Module 3, the individual-level comparative survey data, this paper has determined that the result of individual-level analysis is consistent with the result of aggregate-level analysis.

keywords : turnout, declining turnout, new democracies, established democracies, economic globalization, policy convergence.

Student Number : 2011-20209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정치학석사학위논문

신생 민주주의 국가의 투표율 하락에 대한 연구 :
경제 세계화의 영향을 중심으로

2014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부 정치학전공
송 정 민

신생 민주주의 국가의 투표율 하락에 대한 연구 :
경제 세계화의 영향을 중심으로

지도교수 박 원 호

이 논문을 정치학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4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부 정치학전공

송 정 민

송정민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14년 2월

위 원 장 박 찬 옥 (인)

부 위 원 장 박 원 호 (인)

위 원 강 원 택 (인)

위 원 권 형 기 (인)

요약(국문초록)

투표율 하락에 대한 기존 연구에서 신생 민주주의 국가(new democracies)의 투표율 하락은 중요한 연구 문제로서 인정받지 못하였고, 대부분의 연구는 1950년 이후 장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선진 민주주의 국가(established democracies)의 사례를 설명하는데 집중되었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 이후 상대적으로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이 안정된 투표율을 유지하고 있는 것과 달리, 한국을 포함한 신생 민주주의 국가들의 투표율은 20년이라는 길지 않은 기간 동안 10-20%의 가파른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신생 민주주의 국가들의 투표율 하락 현상의 원인을 분석한다. 기존의 투표율에 대한 연구들이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의 사례에 집중되어 있었던 것과 달리, 본 연구는 투표율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신생 민주주의의 사례로 확장하여 “왜 신생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보다 투표율이 급격하게 하락하였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한다. 본 연구의 이론적 모델은 경제 통합, 즉 경제 세계화가 국가 정책 결정자들의 경제 정책에 있어서의 자율성을 약화시키고, 이에 따라 선거가 별 다른 차이를 만들어낼 수 없다는, ‘투표 기대효용’의 하락과 궁극적인 투표율 하락으로 이어진다는 전제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은 이론적 모델의 연장선상에서, 본 연구는 신생 민주주의 국가들의 급격한 투표율 하락 현상을 ‘경제 세계화의 투표율 하락 효과’에 기인한 것으로 가정한다. 대부분의 신생 민주주의 국가들이 체제 변환 혹은 금융 위기와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

경제 세계화 과정을 수행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경제 세계화의 투표율 하락 효과가 극대화되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가설 하에 본 연구는 17개 선진 민주주의 국가, 21개 신생 민주주의 국가에서 1980년대 중반 이후 시행된 270개의 선거 집합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을 수행하였고, 분석 결과는 신생 민주주의 국가에서 경제 세계화의 투표율 하락 효과가 훨씬 크다는 가설을 강하게 지지하였다. 또한 경제 세계화의 투표율 하락 효과는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조조정프로그램을 경험한 국가, 국내총생산 대비 사회복지 지출 비율이 낮은 국가에서 더 강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이에 더해 경제 세계화로부터 투표율 하락까지 이어지는 인과관계의 고리가 길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와 같은 취약성을 다수준 분석(multi-level analysis)을 통해 보완하고자 하였다. 전체 31개국의 선거 후 설문조사 데이터가 집적된 선거체계비교연구(CSES) 데이터를 활용한 개인 수준 자료 분석 결과, 투표율 하락에 대한 경제 세계화 가설의 주장은 개인 수준 자료 분석에서도 일관되게 지지되었다.

주요어 : 투표율, 투표율 하락, 경제 세계화, 신생 민주주의, 선진 민주주의, 정책 수렴.

학 번 : 2011-20209

목 차

I. 서론	1
II. 기존 연구 검토	4
1. 투표 참여의 이론적 기초 : 합리적 유권자 가설	4
2. 투표 참여, 투표율에 대한 기존 연구	7
III. 투표율 하락과 경제 세계화의 심화	18
1. 투표율의 시계열적 변화 : 기존 투표 참여 연구에 대한 도전	18
2. 경제 세계화의 심화와 투표율 하락	22
3. 경제 세계화와 신생 민주주의 국가의 투표율 하락	27
IV. 연구 가설과 연구 방법	30
1. 연구 가설	30
2. 연구 방법과 변수의 조작화	34

V. 민주주의 유형과 투표율 하락 42

1. 민주화 이후 한국의 투표율 변화 42

2. 민주주의 유형에 따른 투표율 하락 비교 45

VI. 분석 결과 50

1. 경제 세계화와 투표율 하락 : 집합 수준 분석 50

2. 경제 세계화와 투표율 하락 : 개인 수준 분석 58

VII. 결론 및 제언 65

참고문헌 69

부록 80

Abstract 83

표 목차

<표 1> 분석 대상 국가.....	35
<표 2> 집합 수준 분석 모델 (OLS Regression).....	40
<표 3> 개인 수준 분석 모델 (Logistic Regression).....	41
<표 4> 회귀분석 1 : 경제 세계화, 민주주의 유형, IMF 구조조정 경험의 투표율 하락에 대한 영향.....	51
<표 5> 회귀분석 2 : 경제 세계화, 좌파 정당 득표율, 복지 지출 비 율의 투표율 하락에 대한 영향.....	55
<표 6> 분석 대상 국가 (CSES Module 3).....	59
<표 7> 민주주의 유형과 투표 참여율	60
<표 8> 로지스틱 회귀분석 : 투표 참여에 대한 개인 수준 분석 모델 ...	60
<표 9> 투표 기대 효용 관련 변수에 대한 민주주의 유형 간 비교.....	62
<표 10> 데이터 출처 : 집합 수준 분석 모델.....	80
<표 11> 선거 목록 : 집합 수준 분석 모델.....	81
<표 12> 선거 목록 : 개인 수준 분석 모델 (CSES Module 3).....	82

그림 목차

<그림 1> 연구의 분석틀 : 경제 세계화 - 투표율 하락의 인과 관계 고리	33
<그림 2> 1987년 이후 한국 선거 투표율 변화	42
<그림 3> OECD 18개국의 투표율 변화에 대한 집합적 추세(aggregate trend)	45
<그림 4> 1980년대 중반 이후 민주주의 유형에 따른 투표율 하락 비교 (1)	47
<그림 5> 1980년대 중반 이후 민주주의 유형에 따른 투표율 하락 비교 (2)	49
<그림 6> 투표율 하락에 대한 경제 세계화의 차별적 영향력	53
<그림 7> 사회 복지 예산 지출 비율의 변화에 따른 경제 세계화 지수의 영향력 변화	56

I. 서론

기존의 투표 참여, 투표율에 대한 연구는 주로 유권자 개인 수준에서 누가 투표하였고, 누가 기권하였는지에 대한 원인을 탐색하는 데 집중되었다. 개인 수준의 연구에서 대표적인 이론은 유권자의 교육 수준, 소득 수준 등의 ‘사회 경제적 변수(socioeconomic variable)’의 영향력에 주목한 버바와 나이(Verba and Nie 1972)의 자원 모델(resource model)로, 교육 수준이 높고,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풍부한 정치적 자원을 바탕으로 정치에 적극적인 참여한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자원 모델의 가설은 이후의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경험적으로 검증되어왔는데, 역설적인 것은 이와 같은 자원 모델이 집합 수준의 투표율 변화를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다(Gray and Caul 2000). 그레이와 콜에 따르면, 지난 50년간 민주주의 국가들에서는 지속적으로 교육 수준과 소득 수준이 증가해왔지만, 투표율은 반대로 지속적으로 하락해왔다.

또한, 민주주의 국가들에서 나타난 투표율 하락 현상은 집합적 수준의 투표율 차이에 대한 기존 가설들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유권자 등록제도, 강제 투표, 비례대표제, 대통령제-의원내각제 등의 제도적 변수는 지역 간, 혹은 국가 간 투표율 차이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가장 주목받은 변수였지만, 투표율의 지속적인 하락이 진행되는 동안 각 국가의 선거 제도는 대부분 큰 변화 없이 그대로 유지되어 왔다. 이처럼 투표율 하락 현상은 민주주의 국가들 전반에서 나타나는 ‘시계열적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새로운 가설을 요구했고, 연구자들은 ‘동원의 약화’, ‘세대의 교체’, 그리고 ‘경제 세계화’의 세 가지 측면에서 그 원인을 탐색해왔

다. 즉 정당과 노동조합과 같은 사회조직의 정치적 동원력의 약화, 새로이 투표권을 획득한 세대의 낮은 투표율, 경제 세계화의 진행에 따른 선거의 중요성 약화가 투표율 하락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는 것이다(Gray and Caul 2000; Franklin 2004; Steiner 2010).

투표율 하락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에서, 주된 연구의 대상이 된 것은 적어도 제2차 세계 대전 이후로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이른바 ‘선진 민주주의 국가(established democracies)’의 투표율 하락 현상이었다. 연구자들은 1950년대, 혹은 1960년대의 투표율을 기준으로 하여 40-50년 정도의 장기간 동안 진행된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의 투표율 하락 현상의 원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들에서 1970년대 중반, 늦게는 1980년대 후반에 민주화를 경험한 ‘신생 민주주의 국가(new democracies)’의 투표율 변화는 충분히 주목받지 못하였다. 신생 민주주의 국가들 또한 짧게는 15년, 길게는 30년 이상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며 선거를 시행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정초선거(founding election) 이후의 투표율 변화상과 그 원인에 대한 분석이 부재했던 것이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선진 민주주의 - 신생 민주주의 사이의 차이가, 1990년대 이후 본격화된 경제 세계화에 따른 결과로 가정한다. 물론, 투표율 하락에 대한 경제 세계화의 영향력은 새로운 가설은 아니다. 투표율 하락에 대한 경제 세계화 가설은 다운즈(Downs 1957)의 합리적 유권자 가설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 즉 경제 세계화가 각 국 정부들의 경제 영역에 대한 정책 자율성을 약화시키고, 이에 따라 주요 정당들의 정책적 입장이 수렴하며, 결과적으로 투표로부터 유권자가 얻을 수 있는 효용(B)이 하락하게 되어 투표에 대한 유인동기가 하락하게 된다는 것이다(Steiner 2010; Marshall and

Fisher 2010). 그러나 기존의 투표율에 대한 경제 세계화 가설 논의 또한 대부분이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의 사례에 국한되어 있었던 바, 본 연구는 가설을 신생 민주주의 국가의 사례에도 적용하고 경제 세계화의 두 민주주의 유형에서의 ‘차별적 영향력’을 밝히고자 한다.¹⁾ 본 연구는 경제 세계화의 영향력이 경제 위기 혹은 체제 전환의 과정에서 외부(IMF나 World Bank)로부터의 개입을 수용한 신생 민주주의 국가들에서 더 크게 나타났을 것이라 가정하며, 이와 같은 ‘급격한 세계화’가 신생 민주주의 국가의 투표율 하락에 주된 원인이 되었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이와 같은 가설 하에 본 연구는, 신생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경제 세계화의 심화에 따라 투표율이 하락하였는지, 그리고 하락하였다면 그 영향력의 크기는 선진 민주주의 국가의 사례와 어떻게 다른지 경험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후의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2장에서 본 연구는 먼저 투표 참여에 대한 기존 연구들을 주요 독립 변수들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3장에서는 투표율 하락과 경제 세계화의 관계, 그리고 신생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세계화의 정치경제적 맥락을 논한다. 4장에서는 연구의 주요 가설을 제시하고, 분석 모델에서 사용된 데이터와 변수들을 설명한다. 5장과 6장에서는 선진 민주주의 국가, 신생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1980년대 이후의 투표율 변화상을 분석하고, 집합 수준과 개인 수준의 경험적 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7장에서는 연구의 한계를 논하고 추후 연구를 위한 보완점을 제언한다.

1) 본 연구에서는 선진 민주주의, 신생 민주주의 국가를 분류하는 데 있어서 ‘민주주의 유형’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실제 선진 민주주의와 신생 민주주의에 대한 구분은 ‘민주주의의 나이(age of democracy)’에 따른 것이나, 본 연구에서는 연속변수로서의 민주주의 나이 변수를 활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다 나은 이해를 위해서 ‘신생 민주주의’, ‘선진 민주주의’라는 두 가지 분류의 ‘민주주의 유형’이라는 용어를 활용한다.

II. 기존 연구 검토

1. 투표 참여의 이론적 기초 : 합리적 유권자 가설

투표율, 보다 정확히는 투표 참여 혹은 불참의 원인을 논하는데 있어서 이론적 기초가 되는 것은 합리적 선택이론에 기반을 둔 다운즈(Downs 1957)의 ‘합리적 유권자 가설’일 것이다. 다운즈는 투표 참여의 비용(C: Cost)과 그로 인해 얻을 것으로 기대되는 효용(B: Benefit), 그리고 자신의 표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확률(P: Probability)를 통해 투표 참여와 기권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다운즈는 확률과 효용을 곱한 값(PB)에서 비용(C)을 뺀 값(R: Reward)이 0보다 클 때 투표를 이루어진다고($R = PB - C > 0$), 그렇지 않을 때는 기권한다고 보았다($R = PB - C < 0$).

다운즈의 합리적 유권자 가설에서 투표는 다분히 도구적(instrumental)인 성격을 지니는데, 유권자들은 각 후보의 승리로 부터 기대되는 효용을 계산하고, 최상의 효용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는 후보에게 투표를 한다(Mueller 2003). 이처럼 유권자에게 효용은 ‘상대적인 성격’을 지니는데, 따라서 합리적 유권자 가설에서 효용(B)은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정책으로부터 기대되는 효용의 차이(the differential Benefit)로 정의된다. 즉, 갑, 을 두 명의 후보가 출마하였을 때, 갑 후보의 정책으로부터 기대되는 효용이 100, 을 후보가 80이라면, 투표자의 효용(B)은 20인 것이다.

다음으로 비용(C)의 경우, 투표에 요구되는 시간, 기회 비용과 후보자 선택에 요구되는 정보 등이 비용의 범주에 포함된다. 이에

더해 과거 미국의 흑인 유권자를 차별할 목적 하에서 시행되었던 ‘투표세(poll tax)’와 ‘읽기 및 쓰기 시험(literacy test)’과 같은 조치들도 ‘높은 투표 비용’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으며 (Ashenfelter and Kelley 1975), 오늘날 한국의 부재자 투표 등록 제도나 미국의 투표자 등록제도 또한 이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다운즈의 가설에서 가장 큰 논쟁의 지점이 된 것은 P(Probability), 유권자의 투표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확률이었다. P는 다음과 같이 정의되는데, 갑 후보에게 투표한 유권자의 한 표로 인해 을 후보에게 한 표차로 지고 있던 갑 후보가 동률을 이루거나, 동률인 상태에서 유권자의 한 표로 인해 갑 후보가 승리할 확률을 말한다. 즉, 이를 위해서는 나를 제외한 다른 유권자들의 투표 결과가 동수이거나 1표 차이여야 한다는 전제가 요구되는데, 전체 유권자의 수가 적어도 수 만 명에 이르는 선거에서 이와 같은 전제가 성립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결국 P의 값은 0에 수렴할 정도로 작아지게 되고, B의 값에 관계없이 PB의 값도 0에 수렴하여 C보다 작아지게 된다($PB - C < 0$). 그러나 이와 같은 합리적 유권자의 가설의 내용과 달리, 실제 유권자들의 대다수는 투표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를 투표의 역설이라고 부른다(The Paradox of Voting).

다운즈 이후 이와 같은 투표의 역설을 해결하기 위한 시도는 다양한 방향으로 이루어졌다(Fiorina 1976; Ferejohn and Fiorina 1974). 대표적으로 라이커와 오드훅(Riker and Ordeshook 1968)은 ‘시민적 의무(D: Civic Duty)’ 모델을 통해 투표의 역설을 해결하고자 하였는데, 기존의 $PB - C$ 의 식에 시민적 의무라는 D값을 추가하여 전체 효용함수를 양수로 만들고자 하였다($PB - C + D > 0$). 물

론 이와 같은 라이커와 오드슈의 모델이 ‘합리적 유권자’라는 기존의 전제와 배치된다는 비판도 존재하며, 그와 같은 시민적 의무를 갖게 되는 과정과 원인에 대한 또 다른 설명이 요구되는 것도 사실이다(Mueller 2003).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의 투표 참여, 투표율에 대한 연구는 라이커와 오드슈의 PB-C+D라는 식의 기반 위에서, P, B, C, D 각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맥락적 변수(사회적 맥락, 정치적 맥락, 제도적 맥락 등)들을 조작화하여 종속변수인 투표 참여와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Verba, Nie, and Kim 1978; Wolfinger and Rosenstone 1980; Huckfeldt and Sprague 1987; Franklin 2004).

2. 투표 참여, 투표율에 대한 기존 연구

투표 참여, 투표율에 대한 연구는 독립변수의 성격에 따라 분류된다.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에서 가장 주목받은 여섯 가지의 독립변수를 중심으로 기존의 연구들을 분류 및 검토한다.

1) 사회 경제적 변수(socioeconomic variable)

투표 참여 연구에서 가장 전통적인 이론은 버바와 나이(Verba and Nie 1972)가 제시한 자원 모델(resource model)일 것이다. 로젠스톤과 한센(Rosenstone and Hansen 1993)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선거 정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돈, 시간, 정보 처리 능력 등의 개인의 자원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따라서 자원 모델에서는 정치 참여에 요구되는 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즉 유권자의 사회 경제적 지위(socioeconomic status)가 높을수록 정치에 참여할 확률이 높아진다고 가정한다. 교육 수준이 높고,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풍부한 정치적 자원을 바탕으로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다.

가장 대표적인 사회 경제적 변수라고 할 수 있는 교육 수준의 경우,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후보자 선택에 요구되는 비용(C)이 감소하고, 장기간의 교육을 통해 강한 시민적 덕성(D)을 획득하기 때문에 투표에 참여할 확률이 높아질 것이라 가정한다(Campbell et al. 1980; Milbrath and Goel 1977). 윌핀저와 로젠스톤(Wolfinger and Rosenstone 1980)은 교육연수가 올라갈수록 높은 수준의 시

민적 의무감, 정치 관심도, 정치 지식을 갖고 있으며, 이와 같은 결과가 교육 수준에 따른 투표율의 차이로 나타났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교육 수준이 투표율과 갖는 정적 관계는 집합적 차원의 분석에서도 확인되고 있다(Chapman and Palda 1983; Cox and Munger 1989; Filer et al. 1991; 정수현 2012). 블레이스(Blais 2000)는 1972년에서 1995년까지 91개국에서 열린 324개의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을 분석하였는데, 분석 결과 문맹률이 낮을수록 각국의 해당 선거에서의 투표율이 상승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²⁾

다음으로 소득 수준에 있어서 살펴보면, 높은 소득 수준은 당장의 생존의 문제가 아닌 정치와 선거의 이슈에 관심을 가질 수 있게 하는 자원이 된다(Rosenstone 1982).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사람은 자신의 한정된 자원을 정치와 같은 일상과 떨어져 있는 부분에 투자할 수 없다는 것이다(Wolfinger and Rosenstone 1980; Teixeira 1992; Kleppner 1982). 실제로 프랭클린(Franklin 2001)은 유로바로미터(Eurobarometer)의 서베이 결과를 바탕으로 소득 수준이 가장 높은 층의 투표율이 낮은 층의 투표율보다 평균적으로 약 14%

2) 그러나 교육 수준의 영향력을 논하는데 있어서 반대의 주장도 존재한다. 오히려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자신의 표가 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칠 낮은 확률(P)을 냉정히 평가하고, 투표 참여를 포기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Mueller 1993). 실제로 버바 등(Verba et al. 1978)과 네비트 등(Nevitte et al. 2009)의 비교 연구에 따르면, 사회 경제적 지위의 영향력은 미국에서 가장 강하게 나타나며, 다른 국가에서는 상대적으로 그 영향력의 강도가 약하다. 대표적으로 1990년대 이후 한국 선거 연구에서는 기존의 가설과 달리 교육 수준과 소득 수준이 낮은 층에서 더 높은 투표율이 산출되는 분석결과가 다수 나타나고 있으며(강원택 2008; 김옥 1998; 박찬욱 1992; 1996; 서현진 2008; 이남영 1993), 네비트 등(Nevitte et al. 2009)의 비교 연구에 따르면 호주, 체코, 일본, 뉴질랜드 등에서는 교육 수준이 투표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특히나 집합 수준에서의 교육 변수는 투표율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뚜렷한 한계를 보이는데, 국가들의 교육 수준이 상승함에 따라 투표율 또한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오히려 투표율이 하락하는 추세가 발견되고 있기 때문이다(Franklin 2004).

높음을 밝혔다. 또한 집합적 수준의 연구에서도, 많은 연구들에서 경제적 수준이 높은 국가일수록 높은 투표율이 나타나는 관계가 발견되고 있다(Powell 1984; Blais and Dobrzynska 1998; Blais 2000). 이와 같은 관계에 대해 포웰(Powell 1984)은 잘 사는 나라일수록 정당체제가 안정화되고, 그에 따라 안정적인 정당일체감을 바탕으로 투표율이 상승한다고 주장하였다.

2) 연령과 습관으로서의 투표

일반적으로 연령과 투표율은 연령이 상승할수록 투표율도 상승하는 정의 관계를 갖다가 70세가 넘는 노인층에서 조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Lipset 1960; Flanigan and Zingale 1975; Milbrath and Goel 1977). 이에 따라 젊은 층의 낮은 투표율과 고령층의 높은 투표율의 원인을 설명하려는 다양한 시도가 존재해왔다 (Glenn and Grimes 1968; Goerres 2009; Plutzer 2002; Strate et al. 1989).

연령과 투표 참여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유력한 가설은, 젊은 연령일수록 비 정치적 행위에 투입되어야 할 자원이 많다는 것이다 (Strate et al. 1989; Converse and Niemi 1971). 이 가설에 따르면, 젊은 층일수록 결혼 상대도 찾아야 하고, 교육도 받아야 하고, 직장도 찾아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정치에 관심을 기울일 수 없게 된다. 또한 콘웨이(Conway 2001)는 젊은 층의 경우 아직 거주지가 확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많은 이동을 하게 되고, 이것이 낮은 투표율로 이어진다고 분석하고 있다. 실제로 올핀저와 로젠스톤

(Wolfinger and Rosenstone 1980), 그리고 하이튼과 올핀저(Highton and Wolfinger 2001)는 젊은 층 중에서도 거주지 안정성이 낮을수록, 교육 수준·소득 수준이 낮을 수록 투표율이 낮아짐을 발견한 바 있다.

그러나 연령이 상승하고 투표의 경험이 축적되고 투표 참여에 요구되는 정치적 자원이 축적됨에 따라 유권자들은 높은 비율로 투표에 참여하게 된다(Abramson et al. 1998). 아브람슨 등(Abramson et al. 1998)은 투표 참여를 일종의 ‘생애 주기(lifecycle)’ 현상으로 이해하고, 결혼을 하고 경제적 안정성과 거주지의 안정성이 확보됨에 따라 투표 참여의 시간적 기회 비용이 감소하고 투표에 참여할 확률이 상승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플러쩌(Plutzer 2002)는 투표 습관의 발전 이론을 제시하는데, 연령이 상승함에 따라 정치적 자원의 차이에 따른 투표 참여율의 차이는 사라지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습관적인 유권자가 된다는 것이다.

3) 동원(mobilization)

최근의 투표 참여 연구에서 ‘자원 모델’은 ‘동원 모델(mobilization model)’과 결합하고 있다(Franklin 2004). 동원 모델에 따르면, 유권자들은 정당, 이익 집단, 후보자, 혹은 주변의 동료의 동원과 설득에 의해서 투표하게 된다(Rosenstone and Hansen 1993; Verba et al. 1995). 동원은 투표 참여를 결정짓는 B, P, C, D 네 가지 요소에 동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보다 주목되는데, 먼저 동원은 후보자 혹은 정당이 주장하는 정책적

입장을 보다 확실히 전달함으로써 다른 후보자와 구별되는 정책적 효용(B)을 보다 크게 만들 수 있다. 이에 더해 동원은 선거 상황, 후보자의 능력, 정책적 입장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투표에 소요되는 비용(C)을 줄일 수 있으며, 한편으로 후보자들 간의 경쟁적인 동원은 유권자로 하여금 자신이 결정자가 될 확률(P)을 실제보다 더 높게 인식하게끔 한다. 마지막으로 동원은 2012년 한국의 총선, 대선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시민적 의무감’에 대한 호소를 통해 투표할 확률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

버바 등(Verba et al. 1995)과 얼라너(Uhlaner 1989)는 그룹과의 일체감, 보다 정확히는 주변의 동료들도 참여할 것이라는 믿음이 ‘무임승차(free-riding)’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정치에의 참여로 이어지게끔 한다는 것을 밝혔다. 실제로 동원과 투표율의 관계는 다수의 경험적 연구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Berelson et al., 1986; Kramer 1970). 가스넬(Gosnell 1927)은 실험을 통해 투표를 독려하는 편지를 받은 시민들이 1924, 1925년 시카고 시의회 선거에서 9% 더 투표할 확률이 높음을 밝혔고, 로젠스톤과 한센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1956년부터 1988년까지의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당과의 접촉이 있었던 유권자의 투표율은 평균적으로 10% 가량 높았으며, 지역 내 시민운동의 횡수가 늘어남에 따라 투표율이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났다.

카프와 반두치(Karp and Banducci 2007)의 비교 연구에 따르면, 동원은 신생 민주주의 국가보다는 상대적으로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 빈도가 높고, 그 영향력 또한 강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는 선진 민주주의 국가의 경우 장기간의 민주주의 경험으로 인해 정당정치가 제도화되어 있고, 정당들이 안정적인 자원을 보유

하고 있지만(Farrell and Webb 2002), 신생 민주주의 국가들에서는 정당들이 동원에 필요한 충분한 자원을 갖고 있지 못하며, 유권자들 또한 정당일체감의 수준이 낮기 때문이다(Birch 2005). 그러나 카프와 반두치의 연구에서 한국은 신생 민주주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정당과 유권자의 접촉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로 김욱(1998)은 한국의 농촌 지역의 강한 ‘동원’의 영향력에 주목하여 투표율의 ‘도저촌고’ 현상을 설명한 바 있다.

4) 제도적 요인

제도적 요인은 특히 집합적 수준에서 투표율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가장 주목받은 독립변수이다. 제도적 요인에 주목하여 투표율 변화 혹은 차이를 설명하려는 시도는 투표 비용(cost)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적 요인과, 유권자가 인식하는 표의 가치, 선거의 중요성(P와 B)과 결부되는 제도적 요인으로 나뉠 수 있다. 전자에 속하는 제도적 요인으로는 미국의 선거전 등록법(registration laws)에 대한 연구, 강제 투표(compulsory voting) 연구 등이 있으며, 후자에는 비례대표제, 단원제-양원제, 대통령제-의원내각제에 대한 연구 등이 속한다.

먼저 미국의 선거전 등록제도의 영향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올핀저와 로젠스톤(Wolfinger and Rosenstone 1980)은 미국 주들의 선거제도-투표율 비교를 통해, 유권자 등록법을 완화할 경우 투표율이 9% 상승할 것이라 예측하였고, 미첼과 블레지엔(Mitchell and Wlezien 1995)과 하이튼과 올핀저(Highton and Wolfinger

1998) 또한 유사한 결과를 예측하였다. 포웰(Powell 1986)은 20개 민주주의 국가와 미국과의 비교를 통해, 미국의 다른 조건(정당일체감, 교육 수준 등)이 정치 참여에 매우 우호적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법적, 제도적 문제점이 투표 비용을 증가시켜 투표율을 하락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강제 투표에 대해서는 강제 투표제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의 투표율과 그렇지 않은 나라의 투표율을 비교하는 국가 단위의 비교 연구가 다수 이루어졌다(Crewe 1981; Jackman 1987; Jackman and Miller 1995). 실제로 라틴 아메리카의 다수 국가들과 호주, 오스트리아, 그리스 등에서는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유권자에게 벌금을 부과하거나 은행 대출에서의 불이익 등의 처벌을 부과하고 있는데(동아시아연구원 2010), 기존의 경험적 연구들은 이와 같은 강제 투표의 영향력을 확인해주고 있다.

단원제-양원제, 대통령제-내각제와 같은 정부 구조와 관련된 제도적 요인의 경우, 유권자가 인식하는 선거의 중요성, 즉 후보자 간 효용의 차이(B)의 측면에서 투표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된다. 잭맨(Jackman 1987)의 19개국 투표율 비교 분석에 따르면 단원제 국가에서 투표율이 더 높으며, 스토크머와 칼카(Stockemer and Calca 2012)는 1990년에서 2010년까지의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의 비교 국가 분석을 통해, 대통령제 국가에서 국회의원 선거의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다는 것을 밝혔다. 또한 안용훈(2010)에 따르면 대통령 선거제도를 결선투표제로 채택한 국가의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이 평균적으로 7.94%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양원제, 대통령제 등의 제도적 요인들은 유권자들로 하여금 현재의 선거의 중요성에 대해 상대적으로 과소평가하게 하며, 이와

같은 인식이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투표율 하락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제도적 요인의 영향력은 민주주의의 발전 수준, 혹은 역사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된다 (Endersby and Kriekhaus 2008; Blais 2000; Gallego et al. 2011). 즉, 여러 번의 경험을 통해서 제도에 익숙해져 있고, 그에 따라 유권자들이 제도의 정치적 영향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일수록 제도의 영향력이 강하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5) 선거의 경쟁성

선거의 경쟁성에 대한 인식은 투표자로 하여금 자신이 선거의 결정자가 될 확률(P)을 보다 높게 인식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 라이커와 오드슈(Riker and Ordeshook 1968)은 1952년, 1956년, 1960년 미국 대통령 선거 전 인터뷰를 통해 응답자들이 선거의 경쟁성을 얼마나 높게 인식하고 있는지 묻고, 효용(B)과 시민적 의무(D)의 영향력을 통제한 상태에서 그 영향력을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1952년 선거에서 낮은 시민적 의무감을 가진 집단을 제외하고는, 세 선거 모두에서 선거의 경쟁성을 높게 인식할수록 투표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프롤리히 등(Frohlich et al. 1978)은 1964년 미국 대선 사례를 통해 다운즈의 가설을 검증하였는데, 선거를 경쟁적으로 인식한 유권자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투표 참여율이 나타났다.

한편 선거의 경쟁성은 설문조사 상에서의 ‘유권자의 인식’뿐만 아니라, 투표 결과로 확인되는 선거의 경쟁성, 예를 들면 1위 후보와 2위 후보간의 득표율 차이나 경쟁하는 정당의 개수 등을 통해서도 측정될 수 있다. 프랭클린(Franklin 2004)에 따르면, 선거에서의 치열한 경쟁은 유권자로 하여금 자신의 표가 갖는 가치를 더욱 높게 평가하게 하고, 이와 동시에 유권자에 대한 활발한 동원을 촉발하여 전반적인 투표율 상승에 기여하게 된다. 선거의 경쟁성이 미치는 영향력은 미국의 선거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에서도 공통적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블레이스와 카티(Blais and Carty 1990)은 20개국의 509개의 선거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선거의 경쟁성이 높을수록 투표율이 상승하는 경향성을 발견하였고, 프랑스, 영국, 이스라엘, 캐나다, 일본 등에서도 마찬가지로의 결과가 나타났다(Rosenthal and Sen 1973; Denver and Hands 1974; Eagles 1991).

그러나 이와 같은 측정 방식에 대해 마쓰자카와 팔다(Matsusaka and Palda 1993)는 생태학적 오류(ecological fallacy)의 가능성을 제기하는데, 사후적인 선거 결과를 바탕으로 선거 이전에 존재하는 유권자의 선거의 경쟁성에 대한 기대를 측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마쓰자카와 팔다는 개인 수준의 분석에서는 선거의 경쟁성에 대한 인식이 투표율에 영향력을 미치지 않지만, 집합 수준에서는 1-2위 간의 득표율 차이가 투표율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고, 이와 같은 차이가 생태학적 오류의 근거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물러(Mueller 2003, 316)와 블레이스(Blais 2000, 59)가 정리한 바와 같이, 많은 연구자들은 집합 수준에서의 1-2위 간의 득표율 차이 혹은 1위의 득표율에서 0.5를 뺀 값을 독립변수로 하여 투표율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고 있고,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 득표율 차이가 커질수록 투표율이 하락하는 경향성이 확인되고 있다.

6) 정책적 차이, 이념적 차이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정당 간의 정책적 차이, 이념적 차이에 대한 유권자의 인식은 투표 행위로부터 얻을 것으로 기대되는 효용(B)과 연관된다. 만약 후보자 간의 정책적 차이와 이념적 차이가 크지 않다면, 유권자의 효용은 어떤 선거 결과가 나오더라도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반대로 후보자 간의 정책적 차이와 이념적 차이가 크다면, 유권자가 얻게 되는 효용은 선거 결과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따라서 후보자 간의 정책적 차이, 이념적 차이가 클 때 유권자의 투표 참여 동기 또한 커진다는 것이 이 가설의 핵심 내용이다. 물론 이에 대한 반론도 존재하는데, 피오리나 등(Fiorina et al. 2005)은 정당의 ‘양극화(polarization)’가 오히려 중도 성향의 유권자들을 소외시키고 투표 참여 동기를 약화시킨다고 주장한 바 있다.

가장 가까운 예로 미국의 2004년 대선의 투표율에 대해 분석한 아브라모비츠와 스톤(Abramowitz and Stone 2006)에 따르면, 2004년 대선의 높은 투표율은 ‘부시 효과(the Bush Effect)’에 기인하는 것이었다. 즉, 2004년 공화당의 대선 후보로 출마한 조지 부시(George W. Bush)는 이념적으로 볼 때 “현대 정치사에서 가장 극단에 있는 대선 후보”였고, 이와 같은 후보자 이념 성향의 양극화가 급격한 투표율 상승의 주된 요인이 되었다는 것이다. 또 다른 예로 강제 투표제를 시행하고 있지 않음에도 매우 높은 투표율을 기록하

고 있는 말타(Malta)의 케이스에 주목한 히르치(Hirczy 1995)는, 두 개의 선택지만을 제공하는 말타의 양당제에서 두 정당의 강령이 이념적으로 뚜렷이 구분되어 있고(사회주의 - 기독교 민주주의), 정책 선호 또한 계급 갈등의 성격이 강하다는 것을 높은 투표율의 원인으로 설명한다.

투표의 효용(B)이 투표 참여에 미치는 영향력은 국가 간 비교 연구를 통해서도 확인되고 있다. 브록킹턴(Brockington 2009)은 28개 민주주의 국가를 대상으로 한 ‘선거체계비교연구(CSES: The Comparative Study of Electoral Systems)’ 데이터를 활용하여 유권자가 느끼는 정당/후보자 간 이념적 차이, 선거에서 경쟁하는 정당들의 이념적 범위가 유권자의 투표 참여 확률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였는데, 정당/후보자 간의 이념적 차이가 크고 정당들이 넓은 범위의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할수록 투표할 확률 또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Ⅲ. 투표율 하락과 경제 세계화의 심화

1. 투표율의 시계열적 변화 : 기존 투표 참여 연구에 대한 도전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본 연구의 관심은 유권자 개인의 투표 참여, 그리고 국가 혹은 집단별 투표율의 차이를 분석하는 것을 넘어서, 투표 참여의 시계열적 변화, 즉 각 국가의 ‘투표율 하락’이라는 현상의 원인을 분석하는 데 있다. 다수의 연구자들은 앞서 검토한 개인적 수준의 투표 참여 분석, 집합적 수준의 투표율 분석의 연장선상에서, 다수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나타나고 있는 ‘투표율 하락’ 현상의 원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한 국가 내에서의 투표율의 시계열적 변화를 분석하는데 있어서, 앞서 집합 수준의 분석에서 주목되었던 제도적 요인의 설명력은 크게 감소한다(Gray and Caul 2000). 왜냐하면 특히나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 제도적 요인은 큰 변화 없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오고 있기 때문이다(Barnes 1997; Flickinger and Studlar 1992; Lewis-Beck and Lockertbie 1989). 그리고 개인 수준의 분석에서 주목된 자원 모델(resource model)의 가설 또한,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평균적인 교육 수준과 소득 수준이 상승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현재의 투표율 하락 추세를 설명하지 못한다. 연구자들은 이처럼 기존의 변수로는 설명되지 않는 투표율 하락 현상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동원의 약화(Gray and Caul 2000; Rosenstone and Hansen 1993; Kernell and Jacobson 2000), 세대별 투표율의 차

이(Franklin 2004; Bhatti and Hansen 2012; Blais et al. 2004; Gallego 2009; Wass 2007)의 요인에 주목하였다.

1) 동원의 약화

먼저 동원의 약화에 주목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로젠스톤과 한센(Rosenstone and Hansen 1993)은 1960년대 이후 20년간의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의 투표율 하락폭의 54%가 동원의 약화(a decline in mobilization)에 기인한 것임을 밝혔다. 분석에 따르면 1960년대와 같은 다양한 정치적 동원이 지속되었을 경우, 미국 대선의 투표율 하락폭은 11.3%가 아닌 2.6%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커널과 제이콥슨(Kernell and Jacobson 2000) 또한 정당과 노동조합과 같은 사회조직의 정치적 동원의 약화가 미국의 투표율 하락에 큰 영향을 미쳤음을 밝혔다.

그레이와 콜(Gray and Caul 2000)은 미국뿐만 아니라 1950년대부터 1997년까지 선진 민주주의 국가 18개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투표율 하락 현상을 동원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그레이와 콜은 집단 동원 영향력의 감소를 노동 정당의 지지율 감소와 노동 조합 가입률의 감소로 측정하였는데, 1950년 이래로 18개 국가 중 10개 국가에서 노조 가입률이 감소하였으며, 이들 10개 국가에서는 투표율 또한 뚜렷하게 저하하였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노동 정당 지지율의 감소는 상대적으로 약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³⁾

3) 그러나 이에 반대되는 연구도 존재한다. 미국 내에서 동원 수준의 변화를 분석한 아브람슨 등(Abramson et al. 2002)에 따르면, 지난 40년간 동원이 감소했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는다. 오히려 '정당과의 접촉 여부'를 묻는 설문

2) 세대의 교체

두 번째로, 일군의 학자들은 투표 참여의 ‘세대의 교체’를 투표율의 하락 원인으로 지적한다. 앞서 개인 수준의 분석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연령과 투표 참여의 관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나이를 먹음에 따라 투표에 참여할 확률이 상승하는 ‘연령 효과’가 지배적인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세대 효과’를 강조하는 입장에 따르면, 각 세대는 정치 사회화 시기(10대 후반~20대 초반)의 각각의 독특한 정치적 경험에 의해 서로 상이한 정치적 성향을 지니게 되고, 그와 같은 성향이 정치 참여 행위에 반영된다. 즉, 특정 세대에 있어서는 연령이 높아지더라도 투표 참여율이 매우 적은 폭으로 상승하거나, 일정하게 유지되는 경향성이 나타난다는 것이다(Miller and Shanks 1996; Plutzer 2002; Blais et al. 2004).

세대별 투표율의 차이는 특히 새로이 투표권을 획득한 세대의 낮은 투표율과 결부되어 연구된다. 밀러와 생크스(Miller and Shanks 1996)에 따르면 투표율의 변화는 새로이 투표권을 얻은 세대의 이전 세대와 다른 투표율로부터 비롯된다. 바티와 한센(Bhatti and Hansen 2011)은 유럽 의회 선거에서 ‘베이비 부머 세대’ 이전 세대와 이후 세대의 투표율 차이가 투표율의 하락을 가져오고 있음을 밝혔고, 바스(Wass 2007)는 핀란드 선거에서의 투표율 분석에서 역사적 경험에 따라 분류된 5개의 세대가 1975년부터 2003년까지

서, 접촉 비율이 가장 낮았던(동원의 수준이 가장 낮았던) 1960년대의 투표율이 가장 높았던 반면, 접촉 비율이 가장 높은 1996년과 2000년 선거에서는 낮은 투표율이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골드스타인과 리다웃(Goldstein and Ridout 2002)은 미국에서 동원의 수준이 감소하고 있다는 근거는 없으며, 단지 정당들의 캠페인 활동과 동원 활동이 동원이 없더라도 투표할 습관적 유권자(habitual voters)에게 집중되었음을 지적한다.

각자 일정한 투표율을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 외에도 많은 연구자들이 ‘코호트 분석(cohort analysis)’을 통해 특정 세대(코호트)의 투표율 변화를 추적하였는데, 분석 결과 최근에 투표권을 획득한 세대일수록 낮은 투표율을 기록하며, 이들의 세대 효과가 전반적인 투표율의 하락을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ranklin 2004; Blais et al. 2004; Gallego 2009).

2. 경제 세계화의 심화와 투표율 하락

그러나 위에서 검토한 동원의 약화, 세대의 교체 가설은 민주주의 국가들 전반에서 나타나고 있는 광범위한 투표율 하락 현상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지 못했다. 물론 동원의 약화, 세대의 교체는 투표율 하락이라는 결과로부터 가장 가까이 위치해 있는 원인일 수 있다. 그러나 세대의 교체 가설을 검증한 프랭클린(Franklin 2004)이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처럼, 동원의 약화, 세대의 교체 가설은 그보다 깊은 곳에 있는 원인에 대한 설명을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가설들이다. 즉, 유권자들에 대한 정당과 노동 조합 등의 동원이 약화되었다면, 그리고 그와 같은 현상이 한 국가가 아니라 수많은 국가에서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면, 그 기저에 있는 원인은 무엇인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젊은 세대가 속해있는 정치·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를 설명하지 않고서는 ‘젊은 세대의 낮은 투표율’은 투표율의 전반적인 하락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없다. 이에 따라 최근의 투표율 하락 연구에서는 상대적으로 많은 나라의 사례에 적용될 수 있는 거시경제적인 변수의 영향력에 주목하는 연구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경제 세계화’가 투표율 하락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것이다.

투표율 하락에 대한 경제 세계화 가설은 경제 통합이 국가 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수렴 가설(convergence hypothesis)’을 그 이론적 배경으로 한다. 수렴 가설의 주장은, 세계 경제 체제에서의 국가 간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각 국가의 정부들은 해외 자본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세율을 낮추고, 복지 예산을 감축하며, 노동과 환경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바닥으로의 경쟁(a race to the

bottom)’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수렴 가설에 따르면, 변화된 경제 통합의 환경에서 사회-민주주의적인 정책 대안은 더 이상 실효성을 갖기 어려우며, 경제적 결과에 대한 국가 정책의 영향력 또한 회의적이다(Andrews 1994; Lee and McKenzie 1989).

물론 이와 같은 수렴 가설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들이 존재한다. 앞서 수렴 가설의 지지자들과 같이 과도한 조세 경쟁으로 인한 복지 국가의 약화, 사회적 불평등의 확대를 우려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Steinmo 1993; Avi-Yonah 2000), 경험적으로 볼 때 실제로 바닥을 향한 경쟁이 국가 간에 벌어지고 있다는 근거는 찾기 힘들다는 주장 또한 존재한다(Quinn 1997; Basinger and Hallerberg 2004; Hays 2003). 독일 철강 산업의 세계화 과정을 분석한 권형기(2012)의 연구에 따르면, 세계화의 결과와 패턴은 단순히 ‘바닥으로의 경쟁’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기업 내부-외부의 주요한 행위자들간의 정치적 동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실제로 독일에서는 미국과 달리 일종의 ‘협약적 세계화(negotiated globalization)’이 이루어졌다. 이른바 국가 정책과 산업 관계의 경로의존성을 강조하는 제도주의자들(특히 역사제도주의)은, 각 국가의 정치적, 제도적, 경제적 제약으로 인해 세계화의 압력에 반응하는 방식 또한 달라지고, 정책 또한 국가별로 분화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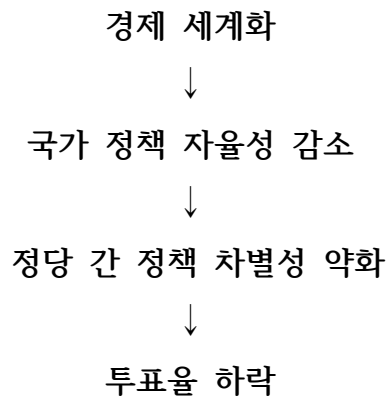
그러나 다양한 논쟁들과 경험적 근거의 대립에도 불구하고, 경제 세계화가 조세 정책 등 국가의 주요 경제 정책에 대한 자율성을 제약하고 있으며(Genschel 2002), 제도와 정책 측면에서 국가들 간의 유사성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해보인다(Kahler and Lake 2003). 경제 세계화의 압력이 모든 국가들이 동등하게 반응하는 것이 아님은 분명하지만, 수렴 가설에 반대하는 학자들조차 경제 세계

화의 ‘영향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로 많은 논의들은 세계화의 영향이 ‘있다’ 혹은 ‘없다’를 밝히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 정치의 어떤 요인들이 국내 정책에 대한 세계화의 압력을 ‘완화(mitigate)’하고 있는지를 밝히고자 하며 (Basinger and Hallerberg 2004; Plumper et al. 2009), 정부여당의 의석비율, 좌파정당과 노조의 영향력 등을 주요 변수로 검증해 왔다.

투표율-경제 세계화의 관계에 대한 연구 이전에, 일군의 학자들은 정당 정치, 투표 행태에 있어서의 경제 세계화의 영향력을 연구해왔다. 대표적으로 헬위그와 사무엘스(Hellwig and Samuels 2007)는 경제 투표의 측면에서 경제 세계화의 영향력을 검토하였는데, 만약 투표자들이 경제 세계화로 인해 정책 결정자들의 경제 영역에 대한 영향력이 감소되었다고 믿는다면, 경제적 성과에 따라 투표를 통해 현 정부에게 보상 혹은 처벌을 가할 확률 또한 낮아진다는 가설이었다. 이 가설은 경험적 자료를 통해 증명되었는데, 실제로 경제 세계화는 경제 투표와 관련된 ‘투표의 책무성(electoral accountability)’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슷한 연구로, 바추도바와 후그(Vachudova and Hooghe 2009)는, 각국의 유럽 연합에의 통합 과정에서 요구되었던 사항들의 이행이, 특히 구 공산권 국가들의 정당 경쟁의 특성을 크게 변화시켜 놓았다고 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이론적 배경 하에서, 일군의 학자들은 경제 세계화와 투표율 하락 간의 관계를 경험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투표율 하락에 대한 경제 세계화 가설의 요지는, 전 세계적인 경제 통합이 심화됨에 따라 국가 정책 결정자들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정책의 범위가 축소되었고, 이에 따라 정당 간의 정책 차별성 또한 약화

되었다는 것이다(Steiner 2010; Marshall and Fisher 2010; Steiner and Martin 2012). 이와 같은 이론적 주장은 앞서 검토한 바 있었던 ‘투표 참여의 산술(the calculus of voting)’ 계산식에서 ‘도구적 효용(B: instrumental Benefit)’의 감소와 관련된다(Downs 1957; Riker and Ordeshook 1968). 다시 말해, 경제 세계화에 따른 국가 정책 자율성의 감소, 그리고 뒤이은 정당 간 정책 차별성의 약화는 유권자가 느끼는 투표의 효용(B)을 작아지게 하여 투표율 하락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는 것이다.



경제 세계화와 투표율 하락에 대한 최초의 논의는 프랭클린(Franklin 2004)으로부터 발견된다. 프랭클린은 세계화의 영향을 ‘상위 권위에서의 권력 이양(ceding power to a higher authority)’가 투표율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으로 개념화한다. 즉, 시장 자유화 과정에서 각국의 정부는 자신들의 주권을 세계무역기구(WTO)와 같은 기관에 일정 정도 이양하는데, 이는 후보 선택을 통해 정책적 변

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선거의 정치적 의미를 퇴색시킨다는 것이다.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파섹 등(Pacek et al. 2009)은 유럽 연합, IMF 프로그램과 같은 국제적 정치체제의 참여가 각국 정부의 정책 선택의 옵션을 제한하여, 결과적으로는 선거의 중요성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보았는데, 분석 결과 IMF 프로그램의 잔여기간이 길수록 투표율이 하락하는 추세가 확인되었으며, EU 가입 여부 또한 투표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프랭클린과 파섹 등의 연구에서 경제 세계화 변수는 논의의 핵심적인 변수가 아니었으며, 경제 세계화로부터 투표율 하락까지 이어지는 인과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를 수행한 것은 아니었다.

경제 세계화를 투표율 하락의 핵심 변수로서 주목한 연구로는 슈타이너(Steiner 2010)와 마셜과 피셔(Marshall and Fisher 2010)의 연구를 들 수 있다. 먼저 슈타이너는 각국의 경제 세계화 정도를 보다 엄밀하게 조작화하고, OECD 23개국의 1965년부터 2006년까지의 기간 동안의 투표율 변화에 대한 경제 세계화 변수의 영향력을 검증하였다. 경제 세계화 정도는 국내총생산 대비 무역 비중(Trade Share), 국내총생산 대비 자본 유동량(Capital Flows), KOF 경제 세계화 지수(KOF Index of Globalization)까지 세 가지 방식으로 조작화되었는데, 분석 결과 세 개의 변수 모두 투표율 하락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찬가지로 마셜과 피셔(Marshall and Fisher 2010)는 1970년대 이후 OECD 국가의 투표율에 대한 경제 세계화의 영향력을 검증하였는데, 경제 세계화 과정에서 공공 서비스에 대한 정부 지출이 감소하였으며 이로 인해 유권자의 투표에 대한 유인동기 또한 감소하였다고 주장하였다.

3. 경제 세계화와 신생 민주주의 국가의 투표율 하락

그러나 이상 검토한 바와 같이 경제 세계화와 투표율 하락의 관계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OECD 소속 국가들, 즉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의 사례에 집중되어 있다. 이로부터 자연스럽게 제기될 수 있는 의문은, 이와 같은 경제 세계화의 영향력이 신생 민주주의 국가들의 사례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세계화와 정책 수렴과 관련된 기존의 논의에서, 세계화의 영향력은 국내 정치적·제도적 제약에 따라 달라진다고 지적된 바 있다. 그렇다면 그와 같은 맥락에서, 각국의 민주주의 유형, 보다 정확히는 민주주의의 역사, 민주주의에 대한 누적된 경험 또한 경제 세계화의 영향력을 분화시키는 주된 요인이 될 것이라 가정해볼 수 있다.

실제 1990년대 이후 신생 민주주의 국가들의 세계화 과정을 돌이켜볼 때, 이와 같은 가정은 보다 적실성을 갖는다. 사실 라틴 아메리카, 동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등 곳곳에 산재되어 있는 신생 민주주의 국가들은 지리적 위치뿐만 아니라 과거의 정치적·역사적 경험, 문화적 특성 등 많은 부분에서 상이한 성격을 지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생 민주주의 국가들을 관통하는 하나의 특성이 있다면, 다수의 신생 민주주의 국가들의 체제 전환(공산주의→자본주의 시장 경제) 혹은 경제 위기 극복의 과정에 IMF가 개입하였으며, IMF가 제시하는 ‘구조 조정 프로그램(structural adjustment programs)’ - 공공 지출 삭감, 화폐 평가절하, 보조금 복지 프로그램 축소 등을 특징으로 하는 - 에 따라 시장 자유화 조치가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Sachs 1986; Feldstein 1998; Wade 1998; Glassman and Carmody 2001; Beeson and Islam 2005; Pop-Eleches 2009).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라틴 아메리카의 경우 1982년의 멕시코 부채 위기(debt crisis)를 시작으로 지역 내 다른 국가에도 위기가 확산되면서, 멕시코, 페루, 볼리비아, 칠레, 아르헨티나 등에 IMF의 신자유주의적 처방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소련의 붕괴 이후 체제 전환을 시도하던 동유럽의 과거 공산주의 국가들(폴란드, 불가리아, 루마니아 등)에도 IMF의 ‘충격 요법(the shock therapy)’이 가해졌다. 마지막으로 아시아에서는 1997년 동아시아 금융 위기를 계기로 한국, 태국, 인도네시아 등에 IMF의 구조 조정 프로그램이 요구되었다.

즉, 대다수의 신생 민주주의 국가들의 경제 세계화 과정은 위기 상황에 대한 대처 혹은 극복 상황에서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로 신생 민주주의 국가들의 정치 경제적 환경은 근본적인 변화를 겪었다. 글라스만과 카르모디(Glassman and Carmody 2001)에 따르면, 구조 조정 프로그램의 시행 이후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의 경제는 해외 자본의 유출입에 크게 의존하는 체제로 변화하였는데, 이와 같은 현상은 1997년 아시아 경제 위기 이후 아시아 국가들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해외 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경쟁 속에서, 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의 신생 민주주의 국가들은 이후 은행, 기업 등에 대한 규제 정책과 사회 보장 정책에 있어서 급격한 변화를 겪어야만 했다(MacIntyre et al. 2008).

이와 같은 신생 민주주의 국가의 세계화 과정이 함의하는 바는, 세계화 지수(KOF Index of Globalization) 등 수치상으로 확인되는 실제 시장의 개방의 정도나 대외 무역의 비중에 있어서는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이 더 높을 수도 있지만, 국가 정책의 자율성의 측면에서는 신생 민주주의 국가들이 경험한 ‘상실’의 정도가 보다 컸을 것

이라는 점이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관점에서, 경제 세계화의 투표율 하락에 대한 영향력이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보다 신생 민주주의 국가에서 보다 크게 나타날 것이라 가정한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그 동안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의 사례와 달리 경험적으로 검증된 바 없는 신생 민주주의 국가의 급격한 투표율 하락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고, 투표율 하락에 대한 경제 세계화 가설의 외연을 확장해보고자 한다.

IV. 연구 가설과 연구 방법

1. 연구 가설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본 연구는 ‘경제 세계화’라는 거시적인 변수의 영향력을 고려함으로써 다수의 국가에서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투표율 하락 현상의 원인을 분석할 수 있다고 보았다. 본 연구는 선진 민주주의 국가의 사례에 국한되었던 기존 연구의 한계에서 벗어나, 신생 민주주의 국가의 사례를 함께 포함하여 경제 세계화의 투표율에 대한 차별적 영향력을 밝히고자 한다. 본 연구는 신생 민주주의 국가들이 외부의 권위(IMF 등)의 개입 하에 세계화의 과정을 경험하였다는 점에서, 세계화에 따른 정책 자율성의 약화와 투표율 하락 현상이 선진 민주주의 국가보다 신생 민주주의 국가에서 강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았다.

가설 1. 이전에 비해 경제 환경이 자유화될수록 각국의 투표율은 하락할 것이다.

가설 2. 경제 세계화가 투표율에 미치는 영향력은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보다 신생 민주주의 국가에서 보다 크게 나타날 것이다.

가설 3. 경제 세계화가 투표율에 미치는 영향력은 IMF의 구조 조정 프로그램을 경험한 국가에서 보다 크게 나타날 것이다.

경제 세계화는 각국 정부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정책의 범위를 감소시킨다. 이에 따라 각 정당과 정당의 후보들이 내세울

수 있는 정책의 차별성 또한 약화되어, 결국 두 후보자 간 기대 효용의 차이(the differential benefit)의 하락으로 인해 투표율은 하락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좌파 정당'의 존재는 독립변수의 영향력을 변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앤더슨과 베라멘디(Anderson and Beramendi 2012)에 따르면, 소득불평등의 심화가 저소득층에서 정치적 무관심을 낳지만, 좌파 정당의 강한 경쟁은 투표율에 대한 소득불평등의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킨다. 이와 유사한 입장에서, 경제 세계화의 대척점에 위치하여 이른바 '반(反) 신자유주의'적 강령을 채택하고 있는 좌파 정당의 영향력이 강력할 경우, 유권자가 느끼는 정당·후보자 간 정책적 차별성은 어느 정도 회복될 수 있고, 유권자의 투표 효능감 또한 이전처럼 유지될 수 있다.

가설 4. 경제 세계화가 투표율에 미치는 영향력은 각 국가의 의회 내 좌파 정당의 영향력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위의 네 개의 가설이 투표 효용(B)의 측면에서 경제 세계화의 영향력을 검증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추가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가설은 '투표 비용(C)'에 대한 경제 세계화의 영향력에 대한 것이다. 파섹과 래드클리프(Pacek & Radcliff 1995; Radcliff 1992; Pacek 1994)에 따르면 투표 행태에 대한 경제 상황의 영향력은 각 국가의 복지 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파섹과 래드클리프의 연구에 따르면, 경기 침체가 투표율에 미치는 영향력은 정부의 복지 지출 비중이 낮은 미국과 스페인에서 강하게 나타났고, 복지 지출 비중이 높은 스웨덴과 프랑스에서는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투표율이 하락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복지 제도가 경기 침체 상황에서 유

권자들의 당장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고, 유권자들이 정치적 문제에 관심을 기울일 수 있게 하는 자원(비용)을 제공하는 데에 기인한다(Hobolt and Klemmensen 2006). 경기 침체와 마찬가지로, 경제 세계화는 체제 전환의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정치적 관심에 대응하는 ‘비용’을 요구하며, 이와 같은 비용의 증가는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투표율에 대한 경제 세계화의 영향력 또한 각 국가의 복지 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 예상한다.

가설 5. 경제 세계화가 투표율에 미치는 영향력은 각 국가의 복지 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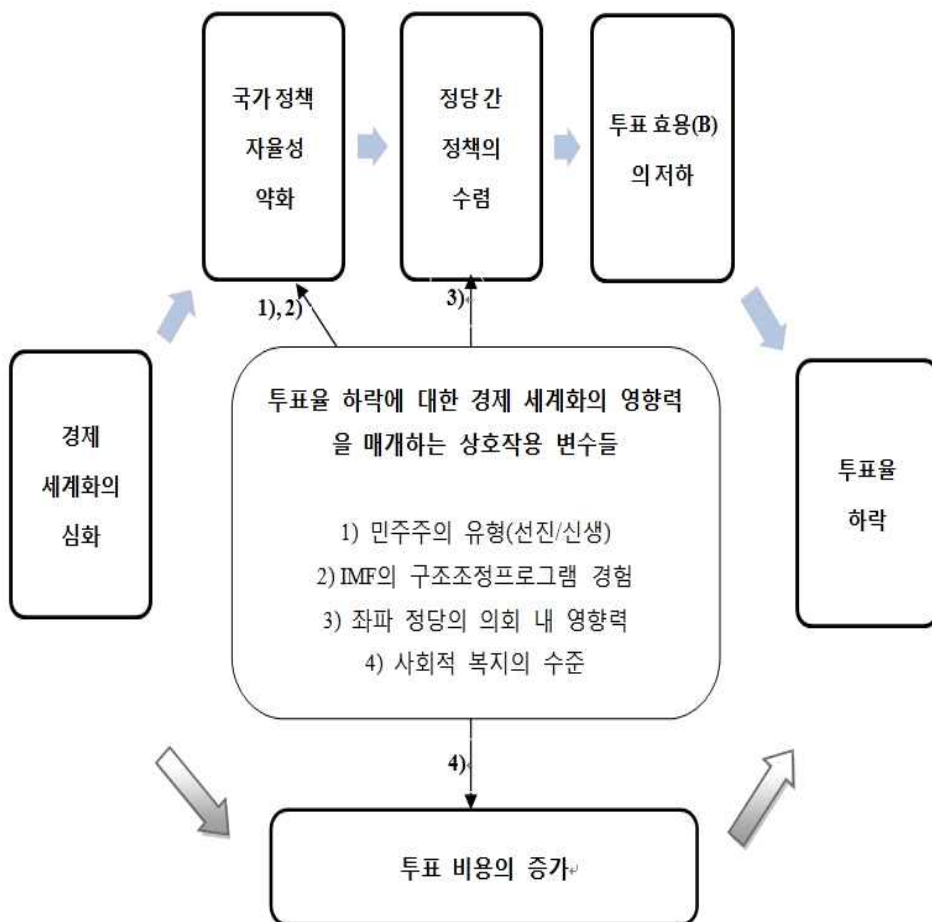
그러나 위의 논의들이 개인 수준의 이론적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다운즈의 합리적 유권자 가설을 집합적 수준의 국가 투표율 데이터에 적용하고 있음을 감안해보면, 연구 결과의 적실성에 대한 의문점은 필연적으로 제기될 수밖에 없다. 설사 집합적 수준의 데이터가 위의 가설들의 내용을 강하게 지지한다 할지라도, 개인적 수준에서는 상이한 결과가 나타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이와 같은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본 연구는 개인 수준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다음의 추가 가설을 검증한다.

가설 6. 유권자들이 정당들의 정책적 입장 간 거리를 가깝게 느낄수록, 즉, 후보자들의 정책이 유사하다고 느낄수록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율은 낮아질 것이다.

가설 7. 신생 민주주의 국가들의 유권자들은 선진 민주주의 국

가들의 유권자들보다 후보자들 간의 정책이 더욱 유사하다고 인식할 것이다.

<그림 1> 연구의 분석틀 : 경제 세계화 - 투표율 하락의
인과 관계 고리



2. 연구 방법과 변수의 조작화

이상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본 연구는 1980년대 중반 이후 선진 민주주의 국가의 선거와 정초선거(founding election) 이후 신생 민주주의 국가에서 시행된 선거들의 ‘투표율 변화’를 종속변수로 하여, 개인적 수준이 아닌 집합적인 국가 수준에서 다중선형회귀분석(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을 수행한다. 분석의 대상은 선진 민주주의 국가 17개국, 신생 민주주의 국가 21개국에서 시행된 총 270회의 선거(선진 민주주의 국가 131회, 신생 민주주의 국가 139회)에서의 투표율 변화이다.

먼저 분석 모형의 종속변수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해당 선거에서의 투표율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각 국가 간 투표율의 차이를 통제하기 위해 표준화된 투표율을 사용한다. 본 연구의 정확한 연구 대상은 해당 선거의 투표율이 이전에 비해 어느 정도 ‘하락’했는가에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각 국가별로 기준점이 되는 선거 -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의 경우는 1980년대 중반, 신생 민주주의 국가들은 민주화 직후의 정초선거 - 를 선정하고, 기준점으로부터의 투표율 변화 정도를 종속변수로 정의하였다. 예를 들어 1992년 선거에서 알바니아(Albania)의 투표율 변화 정도는 -9.69%인데, 이는 1992년 선거의 투표율인 89.21%에서 민주화 이후 정초선거인 1991년 선거의 투표율 98.89%를 뺀 값이다.

$$\text{선거 } t \text{에서의 투표율 변화} = \text{선거 } t \text{에서의 투표율} - \text{정초 선거에서의 투표율}$$

투표율 자료는 International IDEA(International Institute for Democracy and Electoral Assistance)가 제공하는 각국 선거 투표율 자료를 활용하는데, 동일한 기준에서의 비교를 위해 국회의원 선거의 투표율을 비교한다. 또한 투표율은 ‘등록된 유권자 중 투표에 참여한 비율’이 아니라 투표 가능 인구(VAP: Voting Age Population) 중 투표에 참여한 비율로 통일한다.

<표 1> 분석 대상 국가

민주주의 분류	국가명
선진 민주주의 (17개)	오스트리아, 캐나다, 이탈리아, 아이슬란드, 스웨덴, 덴마크, 네덜란드, 핀란드, 일본, 아일랜드, 영국, 프랑스, 독일, 스위스, 미국,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신생 민주주의 (21개)	알바니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불가리아, 칠레, 크로아티아, 체코, 에스토니아, 인도네시아, 한국,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몽골, 파나마, 파라과이, 필리핀,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우크라이나, 우루과이

선진 민주주의 국가와 신생 민주주의 국가의 분류는 체이범(Cheibub)의 정권유형 분류지표와 프리덤 하우스(Freedom House)의 민주주의 지표를 활용하여 세계 2차 대전 이래로 지속적으로 민주주의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들을 선진 민주주의 국가로 분류하고,

1980년대 초반부터 1990년대 중반 사이에 민주주의 체제로 전환하여 현재까지 민주주의 국가로 분류되고 있는 국가들을 신생 민주주의 국가로 분류하였다. 이와 같은 분류에 따라 헌팅턴의 ‘제3의 민주화 물결’에는 속하지만 1970년대에 민주화를 경험한 브라질, 아르헨티나, 온두라스,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의 사례는 제외되었다. 그리고 UN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주요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는 대만 또한 부득이하게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본 연구의 분석의 대상이 되는 국가의 목록은 위의 표와 같다.

본 연구의 핵심적인 독립변수인 세계화, 경제 자유화 정도는 KOF(KOF Swiss Economic Institute)의 “경제 세계화 지수(Index of Economic Globalization)”를 통해 측정한다. KOF는 1970년부터 2010년까지 207개국의 세계화 지수를 경제, 사회, 정치 분야로 나누어 매년 발표하는데, 경제 세계화 지수는 무역·해외 직접 투자(FDI)·포트폴리오 투자로 구성되는 “Actual economic flow”와 수입 장벽·평균 관세율·자본 통제 지수 등으로 구성되는 “Restrictions”의 두 가지 영역에서 측정되어 합산된 결과로 0에서 1의 값을 갖는다. 앞서 종속변수에서와 마찬가지로, 경제 세계화 지수 또한 선거가 열린 해당연도의 값에서 기준점이 되는 시기의 값을 뺀 표준화된 값을 통해 국가 간 차이를 제거한다.

이어서 세계화의 영향력을 매개하는 변수들인 ‘IMF 구조 조정 프로그램’, ‘의회 내 좌파 정당의 영향력’, ‘국가의 복지 수준’은 다음과 같이 조작화되어 세계화 변수와의 상호작용항(interaction term)으로 포함된다.

먼저 IMF 구조 조정 프로그램의 경험이 있을 경우 1, 그렇지 않을 경우 0인 더미변수(dummy variable)로 조작화된다. IMF 프로

그램에의 참여는 브릴랜드(Vreeland 2003)의 연구를 따라, SBA(Stand-By Agreement), EFF(Extended Fund Facility), SAF(Structural Adjustment Facility), ESAF(Enhanced Structural Adjustment Facility) 등 프로그램의 종류와 무관하게 어떤 프로그램이든 참여했는지, 참여하지 않았는지에 따라 코딩되었다. 예를 들어 1993년 5월에 SBA에 합의한 체코의 경우, 1992년 선거에서는 0의 값을, 참여 이후의 선거에서는 1의 값을 갖게 된다. 브릴랜드(Vreeland 2003)에 따르면 프로그램들은 애초의 합의와 달리 계속되는 연장 합의(consecutive agreement)에 의해 평균적으로 5년 이상 지속되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와 같은 구조 조정 프로그램의 영향력은 프로그램이 종료된 이후에도 사라지지 않고 지속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프로그램이 끝난 이후라 하더라도, 참여 이후의 모든 선거에는 1의 값을 부여하였다.

의회 내 좌파 정당의 영향력은 각 선거에서의 좌파 정당의 득표율로 측정된다. 1차적으로 그레이와 콜(Gray and Caul 2000)의 기준을 따라, 정당명에 ‘노동(labor)’, ‘공산주의(communist)’, ‘사회주의(socialist)’, ‘사회 민주(social democratic)’ 등의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 정당들은 좌파 정당으로 분류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기준에 의해서만 분류할 경우, 불가리아의 좌파 정당 연합이라고 할 수 있는 “Coalition for Bulgaria”와 같은 사례들은 분류에서 제외된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위키피디아(Wikipedia)에 공개되어 있는 각 정당들의 이념 성향, 정책적 성향에 대한 정보를 참고하여, 명시적으로 “정치적 위치(Political Position)”에 있어 “좌파(Left)”, “중도-좌파(Center-Left)”에 위치하거나, 사회주의, 사회민주주의, 공산주의 등의 이념을 표방하는 정

당들을 좌파 정당으로 분류하였다. 선거에서의 정당별 득표율은 알바레즈-리베라(Alvarez-Rivera)의 “Election Resources on the Internet”에 공개되어 있는 각국의 선거 결과 자료를 비롯하여 기타 데이터북 등을 통해 수집되었다.

각 국가의 복지 수준은 호볼트와 클레멘센(Hobolt and Klemmensen 2006)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국민총생산(GDP) 대비 보건, 교육 서비스에 대한 정부 지출액의 비율로 측정된다. 관련 자료는 세계은행(World Bank)이 공개하는 “세계 발전 지표(World Development Indicators)”에서 구할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분석 대상 국가 39개국의 선거 기간에 해당하는 모든 수치가 조사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존재하는 수치들을 바탕으로 각 국가별 복지 수준의 평균값을 구하여 국가별로 선거 시기와 관계 없이 같은 값을 부여하였다.

이 외에도 모델에는 기존의 투표율 연구에서 유의미한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확인된 변수들을 통제변수로 삽입한다.

첫 번째로, 정치·선거 제도와 관련된 변수이다. 제도적 변수들은 투표자가 느끼는 선거의 중요성, 투표 효능감의 측면에서 영향을 미치며, 한편으로 투표의 비용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부 체제에 대한 “의원내각제-대통령제” 변수, 선거 시스템에 대한 “비례대표제-혼합선거제-단순다수제” 변수, 그리고 투표 참여에 대한 “강제 투표제의 유무” 변수를 모델에 포함하였다.

두 번째로, 사회경제적 변수이다. 자원 모델에 가설에 따르면 교육 수준, 소득 수준의 상승은 투표 참여의 확률을 높인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초 선거가 실시된 해로부터의 교육 수준의 변화, 소득 수준의 변화를 변수로 삽입한다. 교육 수준은 유엔개발계획(UNDP: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가 발표하는 “교육 지수(1에서 100)”, 소득 수준은 세계은행의 1인당 GDP 자료를 사용하였다. 소득 수준은 국가 간 차이를 통제하기 위해 몇 달러가 증가/감소하였는지가 아닌, 비율의 변화로 측정되었다.

세 번째로, 선거의 경쟁도에 관한 변수이다. 선거가 경쟁적이라고 느낄수록 유권자들의 투표할 확률은 높아진다. 선거의 경쟁도는 전체 득표율 1위 정당과 2위 정당 간의 득표율 차이로 측정된다. 그리고 본 연구의 관심이 투표율 하락의 원인을 찾는 데 있기 때문에, 선거의 경쟁도 변수는 정초 선거로부터의 선거 경쟁도의 변화량으로 측정된다.

마지막으로 ‘시간 효과(time effects)’를 통제하기 위해, 본 연구는 매 5년의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변수를 더미 변수로 삽입한다. 투표율 하락 연구에 있어서 시간 효과에 대한 통제는 특히 중요성을 갖는다. 투표율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하락하는 경향성이 존재하고, 경제 세계화 지수 또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상승하는 추세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시간 효과가 통제되지 않은 OLS 회귀분석은 두 변수 간의 허위적인 상관관계(spurious correlation)을 마치 인과관계가 있는 것처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Granger and Newbold 1974; Steiner 2010). 따라서 본 연구는 슈타이너(Steiner 2010)의 예를 따라, 회귀분석 모형에 평균적인 선거 기간에 해당하는 5년 단위의 더미 변수 6개를 포함한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이 경제 세계화 변수, 민주주의 유형 변수 외에도 기타 통제변수를 포함하는 다중선형회귀모형을 구성하고, 통계 프로그램 Stata/IC 12.1을 활용하여 회귀분석을 수행한다. 본 연구의 5가지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다중선형회귀모형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표 2> 집합 수준 분석 모델 (OLS Regression)

분류	내용	
종속 변수	투표율의 변화	
독립 변수	경제 세계화 지수의 변화 민주주의 유형(신생 1, 선진 0)	
	모형 1	기본 모형
	모형 2	경제 세계화 지수의 변화 * 민주주의 유형(신생 1, 선진 0)
	모형 3	경제 세계화 지수의 변화 * IMF 구조 조정 프로그램 경험(더미)
	모형 4	경제 세계화 지수의 변화 * 좌파 정당 득표율
	모형 5	경제 세계화 지수의 변화 * GDP 대비 복지 지출 비율
	정부 체제(더미) : 대통령제 1, 의원내각제 0 선거 시스템(비례대표제 2, 혼합선거제 1, 단순다수제 0) 강제 투표의 존재 유무(더미) : 존재 1, 없으면 0 교육 지수(Education Index: 1-100)의 변화 1인당 GDP의 변화율 선거 경쟁도의 변화 기간 더미 변수 6개(1982-1987, 1988-1992, 1993-1997, 1998-2002, 2003-2007, 2008-2013)	

그리고 가설 6과 가설 7, 즉 개인 수준에서의 가설 검증을 위해서, 본 연구는 ‘선거체계비교연구(CSES: The Comparative Study of Electoral Systems)’ 데이터를 활용한다. CSES Data는 개인 수준의 비교 국가 서베이(cross-national individual-level survey) 자료로서, 동일한 문항을 바탕으로 각 국가별로 개인 수준의 서베이를 진행하고, 수집된 서베이 자료와 함께 기타 선거 제도, 정치적 맥락(political context) 변수를 포함하고 있는 자료이다. 본 연구는 2005-2011년 사이에 50개 국가에서 80,163명을 대상으로 수집된 “CSES Module 3”을 활용하여 분석을 시행한다.

<표 3> 개인 수준 분석 모델 (Logistic Regress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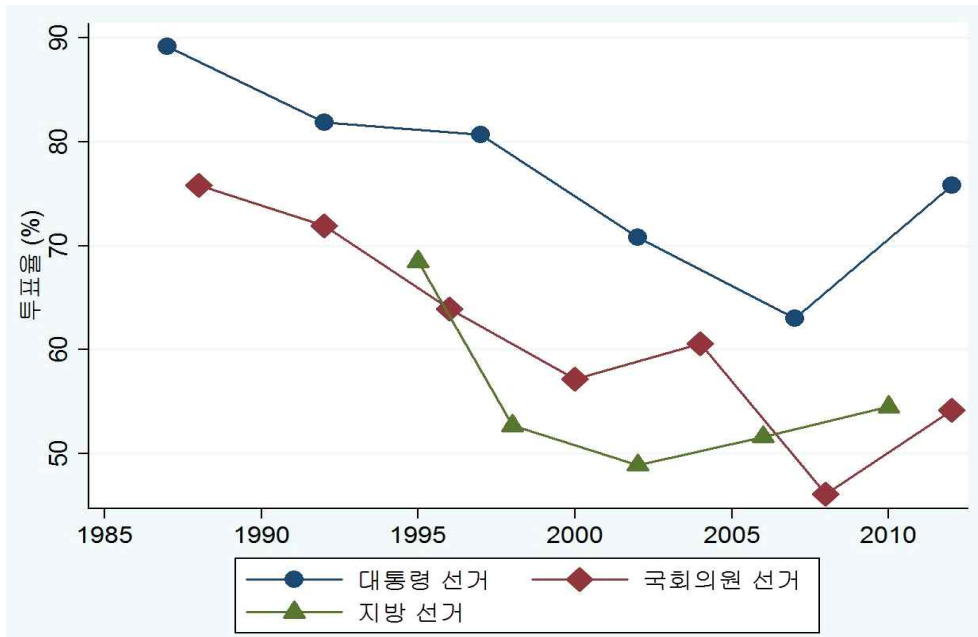
분류	내용
종속변수	투표 참여 여부(0=기권, 1=투표)
독립변수	후보자 선택지 간의 차이(0=차이 없음, 1=근소한 차이가 있음, 2=주요한 차이가 있음)
	연령(연속변수)
	교육 수준(1=교육 경험 없음, 8=대학교 졸업)
	가구 소득(1부터 5까지, 5단계)
	정당일체감 유무(0=무당파, 1=당파)
	소속 지역구의 선거 경쟁도(1-2위간 득표율 격차)
	강제 투표의 존재 유무(더미) : 존재 1, 없으면 0
	유효 정당수

V. 민주주의 유형과 투표율 하락

1. 민주화 이후 한국의 투표율 변화

1987년 민주화 이후 한국 선거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추세 중의 하나는,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지방 선거를 막론하고 투표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화 이후 정초선거(founding election)이라고 할 수 있는 12월에 열린 13대 대통령 선거의 투표율은 89.2%였으며, 1988년 13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의 투표율은 75.8%였다.

<그림 2> 1987년 이후 한국 선거 투표율 변화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2013).

그러나 위의 <그림 2>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한국 선거의 투표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07년 17대 대선에서는 20년 전인 1987년 대선에 비해 26.2% 포인트 하락한 63.0%, 2008년 18대 총선에서는 29.7% 포인트 낮은 46.1%를 기록하였다. 지방선거의 투표율의 경우 1995년 1회 선거에서의 68.5%에서 2002년의 경우 48.9%로 20% 포인트 정도 하락하였고, 이후 선거에서도 50% 내외의 낮은 투표율을 기록하고 있다. 물론 그림에서도 나타나는 것처럼 2012년 12월의 18대 대선에서는 이전의 하락하는 추세와 달리 투표율이 크게 상승한 것은 사실이나, 1992년 이후 20년 만에 같은 해에 대선과 총선이 시행된 상황적 요인 등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결과가 ‘투표율 하락 추세’로부터 ‘상승’ 혹은 ‘회복’ 추세로의 변화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민주주의 정치 과정에서 선거가 갖는 정치적 중요성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한국 선거에서의 지속적인 투표율 하락 현상은 정치 과정에 대한 시민들의 무관심, 불만족감의 증대로 해석되어 왔다(강원택 2010; 서현진 2008). 따라서 학계에서는 민주주의 발전의 관점에서 투표율 하락 현상을 문제시하고 그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자 하였으며,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국가 기관들은 유권자들의 투표율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를 중심으로 부재자투표제도의 확대, 투표시간의 연장, 투표소의 증가, 메니페스토 운동, 언론 매체를 통한 투표참여의 적극적인 홍보 등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투표율 하락의 추세는 지난 20여 년 동안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이갑운 2008).

물론 이와 같은 투표율 하락 현상이 한국 선거만의 특수한 현상인 것은 아니다. 스위스와 더불어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에 비해 상

당히 낮은 투표율을 기록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1960년 대선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00년에는 51.3%(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연령대의 인구수 기준)를 기록하였으며, 2012년 대선에서도 53.6%에 그쳤다(IDEA 2012). 실제로 프랭클린(Franklin 2004)에 따르면, 2차 세계 대전 이후 지속적으로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해온 22개 국가의 투표율은 평균적으로 5.5% 하락하였다. 마찬가지로 고바라(Ghobarah 1998)는 24개 선진 민주주의 국가의 투표율이 1980년에서 1990년 사이에 2.5%, 1990년에서 1998년 사이에 4.5% 포인트 하락하였음을 분석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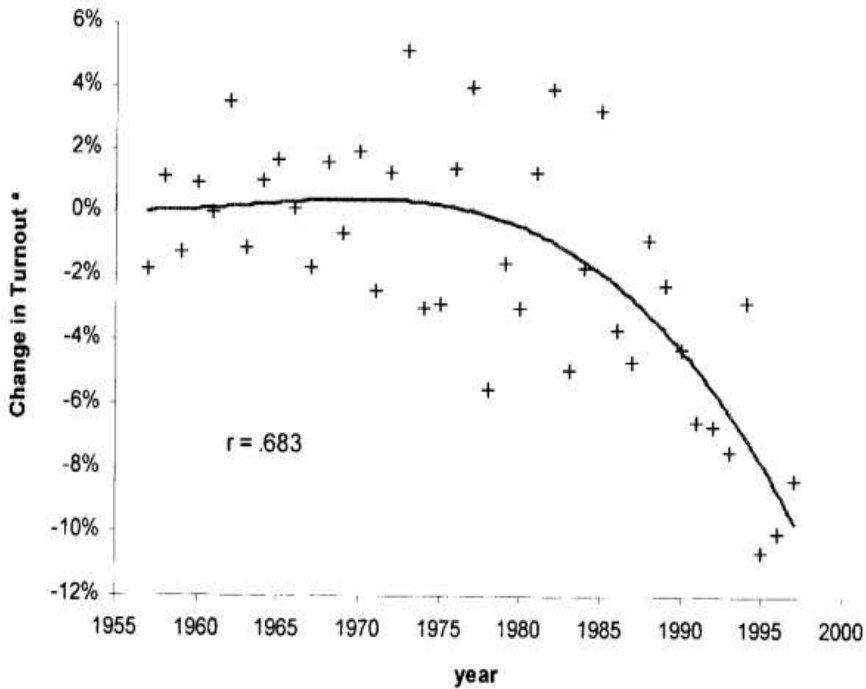
그러나 강원택(2010)과 이갑윤(2008)이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현재 한국의 투표율 하락의 정도는 그 하락 폭이 다른 2-3배가 되며, 특히 그 하락의 진행 속도에 있어서도 지난 10~15년 사이에 급속히 하락하고 있다. 즉 40~50년이라는 장기적인 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나타난 ‘선진 민주주의 국가(established democracies)’의 투표율 하락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것이다. 이처럼 선진 민주주의 국가와 구별되는 ‘신생 민주주의 국가(new democracies)’로서의 한국의 특성에 주목할 때 자연히 제기되는 질문은, 과연 다른 신생 민주주의 국가들에서도 한국과 같은 투표율의 급속한 하락이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2. 민주주의 유형에 따른 투표율 하락 비교

투표율 하락 추세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분석의 주된 관심이 ‘낮은 투표율’이 아니라, ‘얼마나 투표율이 하락하였는가’에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존의 연구자들은 국가들 간의 기본적인 투표율의 차이를 통제하기 위해, 기준이 되는 시점(baseline)의 투표율과 이후 시점의 투표율 간의 차이값을 투표율 변화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index)로 활용하였다. 대표적으로 1950년 이후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투표율 하락 현상에 대해 분석한 그레이와 콜(Gray and Caul 2000)의 경우, 1950년대 초반 선거에서의 투표율을 기준점으로 삼아 투표율 변화량을 계산하였다($\text{선거 } t \text{에서의 투표율 변화량} = \text{선거 } t \text{에서의 투표율} - 1950 \text{년대 선거의 평균 투표율}$). 이와 같은 계산을 통해 그레이와 콜은 1950년대 선거에서 각국의 투표율의 절대값과는 상관없이 각국의 투표율 변화를 서로 비교할 수 있는 지표를 만들었고, 이를 바탕으로 다음의 <그림 3>과 같은 ‘투표율 하락’의 패턴을 증명하였다.

<그림 3>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선진 민주주의 국가의 투표율은 1950년대 이후 1980년대 초반까지는 큰 변화 없이 유지되다가, 1980년대 중반 이후로 점차 하락하여 1990년대 후반에는 1950년대에 비해 평균적으로 10% 정도 투표율이 하락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하락은, 앞서 살펴본 한국의 30%가 넘는 투표율 하락에 비해서는 완만한 기울기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그림 4>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각국의 투표율 하락폭은 민주주의의 유형에 따라 상이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3> OECD 18개국의 투표율 변화에 대한 집합적 추세(aggregate trend)



출처 : Gray and Caul(2000). 투표율 데이터에 대한 원본 출처는 Mackie and Rose(1991); IDEA Database(19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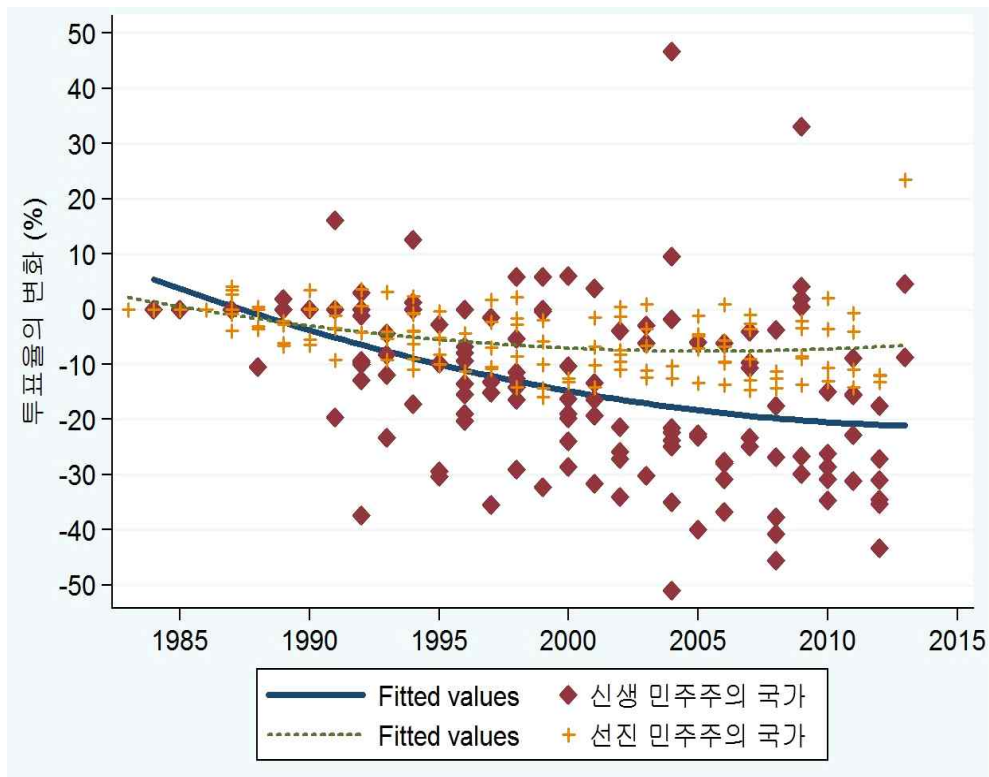
<그림 4>는 선진 민주주의 국가의 1980년대 중반 선거에서의 투표율, 신생 민주주의 국가의 경우에는 민주화 이후 정초선거(founding election)에서의 투표율을 기준으로 하여, 이후 선진 민주주의 국가 주요 17개국⁴⁾과 신생 민주주의 국가 주요 21개국⁵⁾의 투표율 변동을 보여주고 있다.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의 투표율의

4) 오스트리아, 캐나다, 이탈리아, 아이슬란드, 스웨덴, 덴마크, 네덜란드, 핀란드, 일본, 아일랜드, 영국, 프랑스, 독일, 스위스, 미국,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5) 알바니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불가리아, 칠레, 크로아티아, 체코, 에스토니아, 인도네시아, 한국,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몽골, 파나마, 파라과이, 필리핀,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우크라이나, 우루과이.

경우, 2000년대 초반까지 약 10% 정도의 하락폭을 보였으나 2005년 이후로는 오히려 조금씩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와 달리 신생 민주주의 국가들의 경우에는 투표율 변화의 분산 자체가 크며(하락한 케이스만큼이나 급격히 상승한 케이스들도 상당수 존재한다), 30년의 기간 동안 평균적으로 약 20%의 하락폭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4> 1980년대 중반 이후 민주주의 유형에 따른
투표율 하락 비교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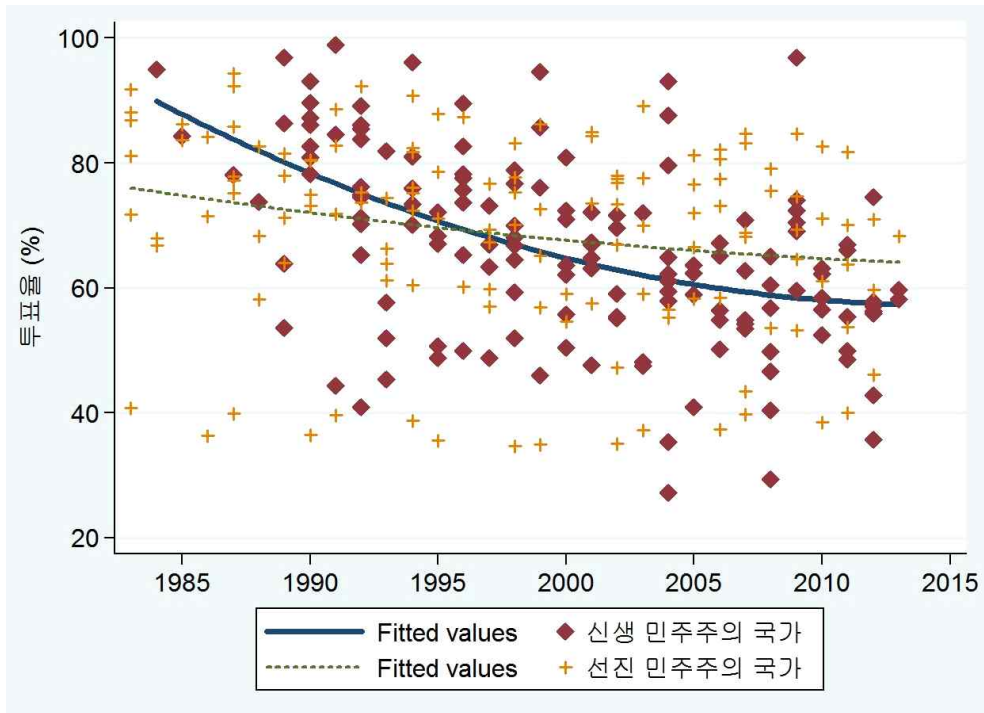


출처: IDEA Database(2013).

이와 같은 신생 민주주의 국가들의 투표율의 가파른 하락에 대한 가장 손쉬운 설명은, ‘정초선거’ 효과에 대한 가설일 것이다. 즉, 민주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고양된 유권자들의 정치적 관심이 정초선거에서의 높은 투표율로 나타났을 뿐, 이후의 투표율 하락은 ‘정상 투표율’로의 당연한 변화라는 것이다(O'Donnell et al. 1986; Turner 1993; Kostadinova 2003; Fornos et al. 2004; Northmore-Ball 2012). ‘정초선거’ 가설에 따르면 신생 민주주의 국가에서 나타나는 투표율 하락 현상은 해결되어야 할 ‘정치적 문제’가 아니며, 투표율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하락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투표율 변화의 기준점이 되는 첫 번째 선거(선진 민주주의 국가들의 경우 1980년대 중반 선거, 신생 민주주의 국가들의 경우 정초 선거)의 투표율을 비교해 볼 때, 신생 민주주의 국가들의 평균 투표율은 80.9%,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은 73.7%로, 신생 민주주의 국가들이 7.2%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림 5>의 결과는 정초선거 가설의 적실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정초선거의 가설대로라면 신생 민주주의 국가들의 투표율은 정초선거 이후 1-2번의 선거에 해당하는 1995년까지 하락한 뒤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과 비슷한 70% 수준에서 안정화됐어야 한다. 그러나 신생 민주주의 국가들의 투표율은 1995년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최근에는 평균 60%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에 비해 평균 7% 이상 높았던 신생 민주주의 국가들의 투표율이, 20년이 지난 지금에는 오히려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보다 10% 낮은 투표율로 하락한 것이다. 즉, 신생 민주주의 국가들의 투표율 하락은 ‘정상으로의 회귀’로 단정 짓기에는 하락의 지속 기간이 길고 하락폭 또한 매우 크다.

<그림 5> 1980년대 중반 이후 민주주의 유형에 따른
투표율 하락 비교 (2)



출처: IDEA Database(2013).

신생 민주주의 국가들의 투표율 하락 현상은 같은 기간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이 경험하고 있는 완만한 변화와 구별되는 특성을 지닌다. 이는 단순히 ‘정상으로의 회귀’로 치부할 수 없는, 다수의 신생 민주주의 국가들이 동시에 경험하고 있는 정치적 변화이며, 따라서 그 원인에 대한 정치학적 분석 또한 당연히 요구된다. 다음 장에서 본 연구는 앞서 4장에서 제시한 가설들에 대한 경험적 분석을 통해, 투표율 하락 현상의 원인을 탐색한다.

VI. 분석 결과

1. 경제 세계화와 투표율 하락 : 집합 수준 분석

집합 수준에서 설정한 다섯 가지 가설(가설 1-가설 5)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본 연구는 각 가설에 해당하는 모형을 구성하고 OLS 회귀분석(Ordinary Least Square Regression)을 수행한다. 본 연구는 먼저 가설 1, 2, 3의 내용을 검증하기 위해 <표 4>와 같이 3개의 모형을 구성하고, 가설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모형 1은 상호작용항을 포함하지 않은 가장 기본적인 모형으로, 경제 세계화, 민주주의 유형 변수를 비롯한 기타 통제변수들의 투표율 하락에 대한 영향력을 검증한 것이다. 분석 결과, 가설 1에서 예측한 바와 같이 경제 환경이 자유화될수록 투표율은 하락하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른 변수들의 영향력을 통제한 상태에서, 1-100점 척도의 경제 세계화 지수가 1점 하락할 때, 투표율은 0.539%p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보다 신생 민주주의 국가들에서 투표율이 더욱 하락하였다는 것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는데,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보다 신생 민주주의 국가들의 투표율이 약 8.897% 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통제 변수로 삽입한 정부 체제, 선거 시스템, 1인당 GDP 변화율 변수 또한 투표율 하락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먼저 제도적 변수의 경우, 선거의 비례성의 경우 기존의 가설과 마찬가지로 선거의 비례성이 낮은 국가일수록 투표율이 더욱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부 체제 변수의 경우,

**<표 4> 회귀분석 1 : 경제 세계화, 민주주의 유형, IMF 구조조정
경험의 투표를 하락에 대한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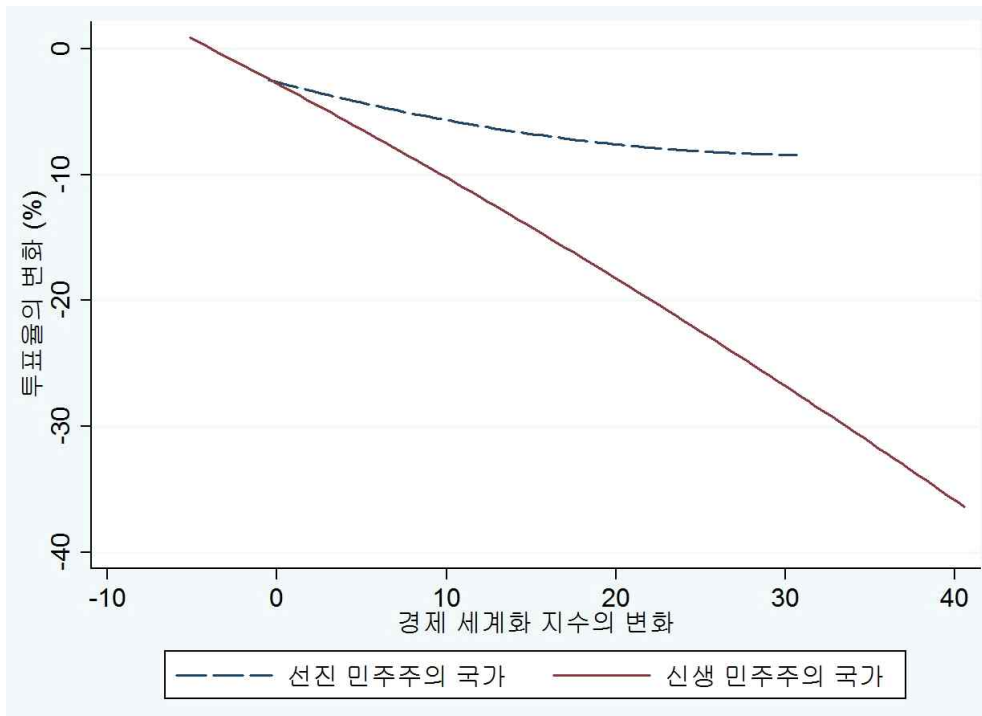
	Model 1	Model 2	Model 3
	계수값 (표준오차)	계수값 (표준오차)	계수값 (표준오차)
경제 세계화 지수 변화	-0.539 *** (0.084)	-0.135 (0.120)	-0.241 * (0.115)
민주주의 유형	-8.897 *** (1.440)	-2.051 (2.038)	-3.821 (2.106)
정부 체제	4.261 ** (1.284)	3.019 * (1.266)	4.047 ** (1.279)
선거 시스템	2.935 ** (0.926)	1.964 * (0.916)	2.331 * (0.913)
강제 투표제	3.665 (1.898)	4.176 * (1.831)	3.762 * (1.843)
교육 수준의 변화	0.085 (0.148)	-0.003 (0.143)	-0.040 (0.146)
1인당 GDP 변화율	-0.027 *** (0.004)	-0.024 *** (0.004)	-0.023 *** (0.004)
선거 경쟁도의 변화	0.060 (0.042)	0.045 (0.041)	0.044 (0.041)
경제 세계화 지수 변화 X 민주주의 유형		-0.568 *** (0.124)	
IMF 구조조정 경험			-1.363 (2.409)
경제 세계화 지수 변화 X IMF 구조조정 경험			-0.411 ** (0.122)
기간 더미 변수	포함	포함	포함
상수(Constant)	-4.934 (2.419)	-4.058 (2.338)	-4.544 (2.350)
R ²	0.4988	0.5369	0.5319
N		270	
***: p < 0.001, **: p < 0.01, *: p < 0.05			

기존의 ‘선거의 중요성’ 가설과는 반대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국회의원 선거가 정부 수반을 선출하는 결과로 이어지는 - 국회의원 선거가 보다 중요성을 갖는 - 의원내각제 국가에서 오히려 투표율이 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사회 경제적 변수 중 교육 수준의 향상은 투표율 변화와 별 다른 관계가 없었으며, 기존의 가설과 달리 소득 수준이 높은 비율로 증가할수록 투표율이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2는 본 연구의 핵심적인 가설이라고 할 수 있는 가설 2, 경제 세계화의 ‘차별적 영향력’에 대한 것이다. 분석 결과, 투표율 하락에 대한 경제 세계화의 영향력은 국가의 민주주의 유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상호작용항의 결과는 경제 세계화 지수의 상승에 따른 투표율의 하락폭이,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에서보다 신생 민주주의 국가들에서 더 크다는 것을 확인해주고 있다(<그림 6>). 경제 세계화 지수가 10점 상승함에 따라,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의 투표율은 1.35%p 하락하지만, 신생 민주주의 국가들은 7.03%p 하락한다는 것이다.⁶⁾

6) 상호작용항의 해석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모형 2에서, 가장 첫 줄에 위치한 “경제 세계화 지수의 변화”의 계수값은,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 경제 세계화 지수가 1점 상승할 때, 투표율은 0.135%p만큼 하락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경제 세계화 지수 변화 X 민주주의 유형” 변수의 계수값은, 신생 민주주의 국가에서 경제 세계화 지수가 1점 상승할 때, 투표율이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보다 0.568%p만큼 더 하락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로부터 신생 민주주의 국가에서 투표율 변화에 대한 경제 세계화 지수의 영향력을 계산하면, $0.135 + 0.568 = 0.703\text{p}$ 가 된다.

<그림 6> 투표율 하락에 대한 경제 세계화의 차별적 영향력



가설 3에 대한 모형 3의 결과는 모형 2의 함의를 다시 한 번 확인해주고 있다. 신생 민주주의 국가들에서 경제 세계화 변수의 영향력이 더 크게 나타났던 것처럼, IMF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경험한 이후의 선거에서 투표율 하락에 대한 경제 세계화 변수의 영향력은 더 컸다. IMF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경험하지 않은 국가에서 경제 세계화 지수의 영향력은, 지수가 10점 상승할 때 $-2.41\%p$ 였으나, IMF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경험한 국가에서 그 영향력은 $-6.52\%p$ 였다. 이와 같은 IMF 구조조정 프로그램의 영향력은, 신생 민주주의 국가에서 투표율 하락이 더 가파르게 나타난 원인을 일정 부분 설명해준다. 왜냐하면 IMF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경험한 선진 민주주의 국가의 수는 아이슬란드와 아일랜드 2개이며, 구조조정 프로그램 하

에서 실시된 선거의 횟수 또한 2009년 아이슬란드 국회의원 선거, 2011년 아일랜드 국회의원 선거, 단 2회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에 반해 IMF 구조조정 프로그램의 경험 하에서 실시된 신생 민주주의 국가들의 선거 횟수는 114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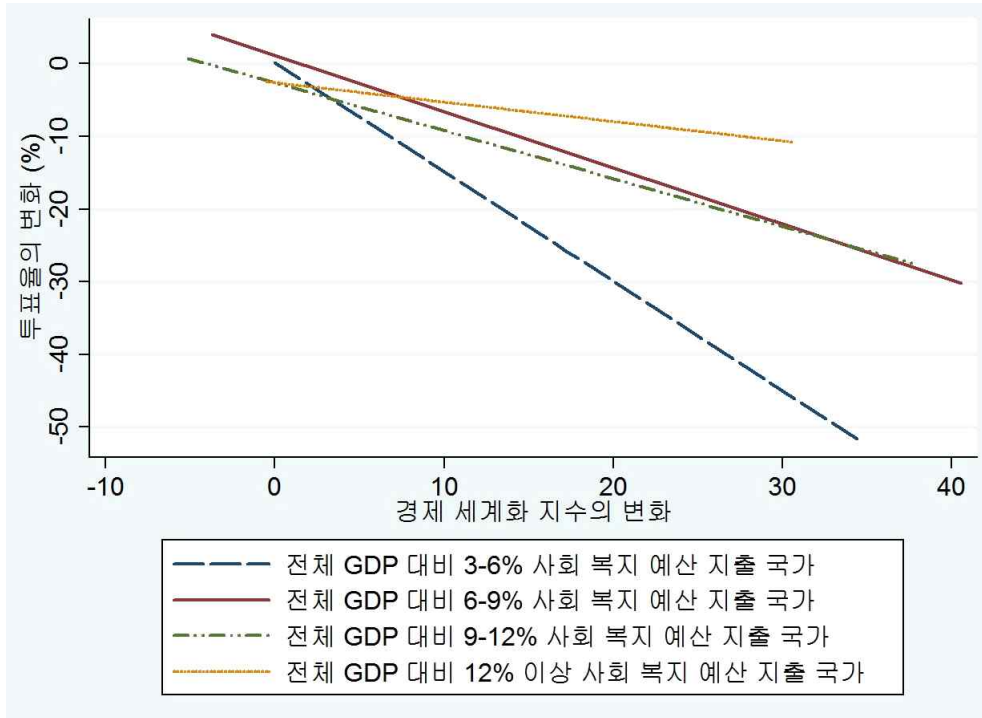
<표 5>의 모형 4와 모형 5는 투표율 변화에 대한 경제 세계화의 영향력을 완충할 수 있는 두 가지 변수, 좌파 정당의 득표율과 GDP 대비 복지 지출 비율의 영향력을 검증한 결과이다. 분석 결과 좌파 정당의 득표율이 높을수록 경제 세계화의 영향력이 약하게 나타날 것이라는 가설 4는 기각되었다. 물론 다른 원인이 있을 수도 있겠으나, 이와 같은 결과는 좌파 정당 득표율의 높고 낮음이 유권자들의 투표 효용(Benefit) 평가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복지 지출 비율이 높은 국가일수록 유권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정치에 관심을 가질 수 있게 하는 ‘자원’을 공급하여 세계화에 따른 투표율 하락을 완화할 수 있다는 가설 5의 주장은 채택되었다. 회귀분석 결과를 해석해보자면, 복지 지출이 GDP 대비 0%인 국가의 선거에서, 경제 세계화 지수가 1 상승할수록 투표율은 1.541%p 하락한다. 그러나 복지 지출 비율이 증가할수록 경제 세계화 지수의 영향력은 눈에 띄게 감소한다. 복지 지출 비율이 5%일 때, 경제 세계화 지수의 영향력은 -1.034%p로 약화되며, 복지 지출 비율이 15%까지 상승하면 경제 세계화 지수의 영향력은 -0.019%p로 거의 사라진다. <그림 7>은 높은 복지 수준이 경제 세계화의 투표율 하락 효과를 뚜렷하게 완화해주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5> 회귀분석 2 : 경제 세계화, 좌파 정당 득표율, 복지 지출 비율의 투표율 하락에 대한 영향

	Model 4 계수값 (표준오차)	Model 5 계수값 (표준오차)
경제 세계화 지수 변화	-0.599 *** (0.145)	-1.541 *** (0.248)
민주주의 유형	-8.559 *** (1.491)	-7.998 *** (2.039)
정부 체제	4.281 ** (1.302)	3.191 * (1.273)
선거 시스템	2.788 ** (0.949)	2.092 * (0.932)
강제 투표제	3.685 (1.912)	4.084 * (1.904)
교육 수준의 변화	0.098 (0.149)	-0.064 (0.148)
1인당 GDP 변화율	-0.027 *** (0.005)	-0.024 *** (0.004)
선거 경쟁도의 변화	0.063 (0.042)	0.044 (0.041)
좌파 정당 득표율	0.013 (0.055)	
경제 세계화 지수 변화 X 좌파 정당 득표율	0.002 (0.004)	
GDP 대비 복지 지출 비율		-0.911 * (0.396)
경제 세계화 지수 변화 X GDP 대비 복지 지출 비율		0.101 *** (0.024)
기간 더미 변수	포함	포함
상수(Constant)	-5.197 (2.923)	7.288 (5.460)
R ²	0.5004	0.5328
N	270	
***: p < 0.001, **: p < 0.01, *: p< 0.05		

<그림 7> 사회 복지 예산 지출 비율의 변화에 따른 경제 세계화 지수의 영향력 변화



이상의 회귀분석 결과를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투표율 하락에 대한 경제 세계화 변수의 영향력이 선진 민주주의 국가뿐만 아니라 신생 민주주의 국가를 포함한 사례에서도 확인되었다(가설 1 채택). 둘째, 경제 세계화 변수의 영향력은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 보다 신생 민주주의 국가에서 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가설 2 채택). 셋째, 경제 세계화 변수의 영향력은 IMF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경험한 민주주의 국가에서 보다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가설 3 채택). 넷째, 경제 세계화 변수의 투표율 하락에 대한 영향력은 선거에서의 좌파 정당의 득표율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았다(가설 4 기각).

다섯째, GDP 대비 복지 지출 비율이 높을수록 경제 세계화 지수의 투표율 하락에 대한 영향력은 약화되었다(가설 5 채택).

이 외에도 통제변수로 포함된 제도 변수, 사회경제적 변수, 선거 경쟁도 변수의 영향력은, 일부 변수의 경우 기존의 가설과 일치하는 결과가 나타난 반면, 그렇지 않은 변수들도 있었다. 정부 체제(대통령제-의원내각제) 변수는 모든 모델에서 투표율 하락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기존의 가설과 달리 의원내각제에서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의 하락 정도가 더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 시스템 변수 또한 모든 모델에서 유의미한 영향력이 확인되었는데, 기존의 가설과 마찬가지로 선거의 비례성이 높을수록 투표율 하락의 폭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제 투표제의 경우 모형 2, 3, 5에서 통계적 유의미성이 확인되었는데, 강제 투표제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에서 투표율 하락폭이 적었다. 모든 모델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난 1인당 GDP 변화율 변수는, 자원 모델의 가설과 달리 성장률이 높을수록 오히려 투표율이 더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경제 세계화와 투표율 하락 : 개인 수준 분석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연구는 집합 수준 자료 분석의 몇 가지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인 수준에서 측정된 유권자의식조사자료 데이터를 활용한다. 설문문항의 한계를 고려할 때 유권자의식조사자료의 분석결과를 집합 수준 자료 분석 결과와 동일한 수준에서 분석하기는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유권자의식조사자료는 투표 행위 이전의 가장 직접적인 유권자의 ‘인식’을 알아볼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 세계화의 심화’로부터 ‘투표율 하락’까지 이어지는 긴 인과관계의 고리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목표 하에 본 연구는 ‘선거체계비교연구(CSES: The Comparative Study of Electoral Systems)’ 데이터를 활용한다. CSES 데이터는 경제 세계화로부터 투표 참여에 이르는 인과관계를 분석할 수 있는 주요 관련 변수들을 포함하고 있다. 투표율 하락에 대한 경제 세계화 가설의 핵심은, 경제 세계화의 압력이 정당들의 정책적 입장 간의 주요한 차이를 사라지게 만든다는 것이다. CSES 데이터는 이에 대한 유권자들의 인식을 묻는 문항을 포함하고 있는데, “정당 혹은 후보자들 간의 차이가 얼마나 크다고 인식하고 있습니까?”라는 문항이다. 비록 경제 세계화에 대한 인식을 직접적으로 묻는 문항이 존재하지 않고, 가설의 핵심적인 부분인 ‘시계열적 변화’를 측정할 수 없다는 한계 또한 존재하지만, CSES 데이터의 여러 문항들은 간접적으로나마 경제 세계화의 투표 참여에 대한 영향력을 검증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먼저 살펴볼 부분은,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과 신생 민주주의 국

가들 사이의 투표율 차이가 설문 문항을 통한 조사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는가하는 점이다. 앞서 집합 수준의 분석에서와 같은 기준 하에서, 본 연구는 CSES 데이터에 포함되어 있는 국가들을 선진 민주주의 국가 17개국, 신생 민주주의 국가 14개국으로 분류하였다 (표 6). 분석 결과, <표 7>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선진 민주주의 국가의 평균 투표 참여율이 87.65%로, 신생 민주주의 국가보다 9.6% 포인트 높았으며, 그 차이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물론 유권자의식조사자료에서 투표하지 않고서도 규범적 판단에 의해 투표했다고 응답하는 경향이 빈번히 나타남을 고려할 때 이 수치가 크게 의미 있는 것이라고 보기는 힘들지만, 어디까지나 본 연구의 관심은 두 집단 간의 차이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하겠다.

<표 6> 분석 대상 국가 (CSES Module 3)

민주주의 분류	국가명
선진 민주주의 (17개)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리아, 캐나다, 아이슬란드,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이스라엘, 일본,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위스, 미국
신생 민주주의 (14개)	칠레, 대만, 크로아티아, 체코, 에스토니아, 한국, 라트비아, 페루, 필리핀,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우루과이

<표 7> 민주주의 유형과 투표 참여율

	선진 민주주의	신생 민주주의	t-test
투표 참여율	87.65%	78.07%	t=31.5995 p<0.001 diff=0.096 N=61,706

다음으로 본 연구는 가설 6, 정당/후보자들 간의 정책적 입장의 차이(differences of choice options)에 대한 유권자들의 인식이 투표 참여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해보았다(표 8). <표 8>의 로지스틱 회귀분석 모델은 투표 참여에 대한 다른 변수들의 영향력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정책적 입장의 차이 변수가 투표 참여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모델의 해석에 있어서, ‘한계효과’는, 다른 변수의 값을 평균값에 고정하였을 때, 해석하고자 하는 변수의 값이 한 단위 변화하였을 때 종속변수의 값이 얼마만큼 변화하는지 보여준다. 분석 결과, “정당/후보자 간에 주요한(major) 차이가 있다”고 응답한 유권자는 “정당/후보자 간에 사소한(minor) 차이가 있다”고 응답한 유권자보다 4.1%p 투표할 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와 같은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가설 6 지지).

그리고 이와 같은 결과는 민주주의 유형을 분리한 모델에서도 똑같이 확인되었다. 정당/후보자 선택지 간의 차이 변수는 두 민주주의 유형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 영향력의 크기는 신생 민주주의 국가들에서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보다 큰 소하계나마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로지스틱 회귀분석 : 투표 참여에 대한 개인 수준 분석 모델

	전체	선진 민주주의	신생 민주주의
	한계효과 (표준오차)	한계효과 (표준오차)	한계효과 (표준오차)
정당/후보자 선택지 간의 차이	0.042 *** (0.002)	0.036 *** (0.003)	0.038 *** (0.004)
연령	0.002 *** (0.000)	0.002 *** (0.000)	0.002 *** (0.000)
교육 수준	0.019 *** (0.001)	0.013 *** (0.001)	0.016 *** (0.002)
가구 소득	0.014 *** (0.001)	0.016 *** (0.001)	0.011 *** (0.002)
정당 일체감 유무	0.079 *** (0.003)	0.061 *** (0.004)	0.115 *** (0.006)
선거 경쟁도	-0.001 *** (0.000)	-0.001 *** (0.000)	0.001 (0.000)
강제 투표제 유무	0.089 *** (0.003)	0.080 *** (0.004)	0.170 *** (0.005)
유효정당수	-0.012 *** (0.001)	-0.014 *** (0.001)	-0.017 *** (0.002)
상수	-0.9239	-0.2447	-0.9195
Log Likelihood	-12043.996	-7026.2013	-4697.2512
N	34599	22628	11971
LR chi square(8)	2790.01	1515.93	1639.76
***: $p < 0.001$, **: $p < 0.01$, *: $p < 0.05$			

모델에 포함된 다른 통제변수들은 이전의 투표 참여 연구들과
일관된 결과를 나타냈다. 먼저 투표 참여의 가장 전통적인 모델인

‘자원 모델(resource model)’의 주장과 마찬가지로, 높은 교육 수준, 높은 소득 수준은 유권자의 투표 참여 확률을 높였고, 연령의 영향력 또한 이전의 연구들과 같은 방향의 기울기를 보였다. 이어서 강제 투표제를 실시하는 국가의 유권자일수록, 정당일체감을 갖고 있는 유권자일수록, 유효정당수가 적은 국가의 유권자일수록 투표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역구의 선거 경쟁도의 경우, 기존의 가설과는 반대 방향의 기울기, 즉, 선거 경쟁도가 낮을수록(1-2위간 득표율 차이가 클수록) 투표 참여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선거 경쟁도 변수는 신생 민주주의 국가들에서는 투표 참여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다.

<표 9> 투표 기대 효용 관련 변수에 대한 민주주의 유형 간 비교

	선진 민주주의	신생 민주주의	t-test
정당/후보자 선택지 간의 차이에 대한 인식 (0=차이 없음, 2=주요한 차이 있음)	1.396	1.271	t=21.8557 p<0.001 diff=0.125 N=50,015
투표 효능감 (1에서 5)	3.955	3.816	t=13.0599 p<0.001 diff=0.139 N=53,780
정당들 간 이념적 거리에 대한 인식 (0에서 10)	3.419	3.381	t=1.4647 p=0.1430 diff=0.039 N=54,917

다음으로 <표 9>는 경제 세계화 변수의 민주주의 유형에 따른 차별적 영향력을 설명하기 위해, 유권자들이 느끼는 “투표 기대 효용(B: expected Benefit)”이 민주주의 유형에 따라 어떤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 분석한다. 앞서 본 연구는, 신생 민주주의 국가들이 세계화 과정에서 경제 정책의 자율성을 상당 부분 상실하였고, 이에 따라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에서보다 정당들 간의 정책적 차이가 감소할 것이라 가설을 세운 바 있다. 먼저 “정당/후보자 선택지 간의 차이에 대한 인식(perceived differences of choice options)” 변수의 경우, 응답자들은 “0 - 아무런 차이 없음, 1 - 사소한 차이 있음, 2 - 주요한 차이 있음” 이상 세 가지 중 하나의 보기를 선택하게 된다. 분석 결과, 가설 7은 지지되었다. 예측한 바와 같이, 신생 민주주의 국가들의 유권자들은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의 유권자들보다 정당/후보자 간의 차이가 크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두 민주주의 유형의 평균값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차이: 0.125, $p < 0.001$).

또한 투표 효능감에 있어서도, 신생 민주주의 국가들의 유권자들은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의 유권자들보다 낮은 정도의 투표 효능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차이: 0.139, $p < 0.001$). 정당들 간의 이념적 거리에 대한 유권자들의 인식의 경우, 신생 민주주의 국가들의 유권자들이 보다 거리를 좁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p = 0.1430$).

이상의 개인 수준의 분석 결과는, 집합 수준의 분석 결과의 내용과 일관성을 보이고 있다. 데이터 상의 한계로 인하여 ‘경제 세계화 - 정당/후보자 선택지 간의 차이’ 사이의 인과관계를 검증하지는 못했으나, 분석 결과는 현재의 투표율 하락에 ‘투표 기대 효용의 하

락'이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으며, 그 영향력의 크기가 신생 민주주의 국가에서 보다 크다는 것을 확인해주었다.

VII.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선진 민주주의 국가(established democracies) 17개국, 신생 민주주의 국가(new democracies) 21개국에서 1980년대 중반 이후 실시된 270개의 선거에서의 국가별 투표율 자료를 바탕으로, 투표율의 시계열적 변화를 분석하고 그와 같은 투표율 변화의 원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투표율 하락의 정도가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보다 신생 민주주의 국가에서 보다 크다는 점에 주목하여(그림 4, 그림 5), 민주주의 유형에 따라 투표율 하락의 폭이 다르게 나타나는 원인을 밝히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기존의 투표율 하락 연구의 주요 변수 중 하나인 '경제 세계화' 변수에 주목하여, 경제 세계화의 심화에 따라 투표율이 하락하고 있는지, 그리고 투표율 하락에 대한 경제 세계화 변수의 영향력이 민주주의 유형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나는지 검증하였다.

본 연구는 신생 민주주의 국가의 경제 세계화의 과정이 경제 위기, 체제 전환의 과정에서 외부의 압력에 의해 급속도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투표율 하락의 '직접적 원인'이 되는 국가 정책 자율성의 약화, 정당 간 정책 수렴 현상 또한 신생 민주주의 국가에서 보다 강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았다. 분석 결과, 연구의 가설은 명백히 지지되었다. 투표 참여에 대한 기존의 주요 독립변수들과 기간 변수의 영향력을 통제한 상태에서, 경제 세계화가 심화될수록 민주주의 유형에 관계없이 투표율이 하락하는 추세가 발견되었고, 투표율 하락에 대한 경제 세계화 변수의 영향력은 신생 민주주의 국가에서 보다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차별적 영향력의 원인을 밝히고자 기타 관

련 변수들과 경제 세계화 지수 사이의 상호작용의 영향력을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IMF의 구조조정 프로그램에의 참여한 국가일수록, GDP 대비 복지 예산 지출 비율이 낮은 국가일수록 투표율 하락에 대한 경제 세계화 지수의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신생 민주주의 국가들 대다수가 이와 같은 조건에 해당함을 고려해볼 때, 모델 3, 모델 5의 결과는 투표율 하락에 대한 경제 세계화의 영향력이 신생 민주주의 국가에서 특히 강한 원인에 대한 설득력 있는 설명을 제공해주고 있다.

또한 본 연구는 “CSES Module 3”를 활용한 개인 수준에서의 추가적인 분석을 통해, 집합 수준의 분석이 갖는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다운즈(Downs)의 합리적 유권자 가설이 가정하는 ‘기대 효용(expected Benefit)’과 연계된 ‘정당/후보자 선택 지 간의 차이’ 변수가 투표 참여에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 세계화의 영향력이 보다 강했던 신생 민주주의 국가일수록, 유권자들의 기대 효용 또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기존의 투표 참여, 투표율 연구에서 학문적 관심 이전무했던 신생 민주주의 국가의 투표율 변화에 대한 연구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함의를 지닌다. 기존의 투표율 연구는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 내부에서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 다양한 변수들의 영향력을 검증하였는데, 본 연구는 ‘민주주의 유형(보다 정확히는 민주주의 나이)’이라는 새로운 변수를 투표율 연구에 추가함으로써 국가 간 투표율의 차이와 투표율의 시계열적 변화를 설명하는 데 보다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경제 세계화가 투표 참여에 미치는 영향력이 민주주의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밝혔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결과는 경제 세계화와 국내 선거 정치의 관계에 대한 논의에 있

어서도 기여점을 탐색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 또한 지닌다. 경제 세계화로부터 투표율 하락까지 이어지는 ‘인과관계의 고리(causal chain)’가 다소 길다는 점이다(Steiner 2010; Steiner and Martin 2012). 경제 세계화 가설에 따르면 경제 세계화의 심화는 국가의 정책 자율성을 약화시키고, 이는 정당 간 정책 수렴 현상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정책 수렴 현상은 유권자들이 느끼는 투표 효용(B)을 감소시켜 기권할 확률을 높이게 된다. 물론 이와 같은 인과관계의 고리는 나름의 논리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경제 세계화의 영향력을 전달하는 각 단계의 인과관계가 경험적으로 증명되지 않는다면, “경제 세계화가 심화됨에 따라 투표율이 하락하였다”는 발견 자체는 여전히 그 원인에 대한 또 다른 설명을 필요로 할 수밖에 없다.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정당 간의 정책적 차이, 이념적 차이(B)가 투표 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이미 예전부터 충분히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고, 정책적 차이/이념적 차이가 작을수록 투표할 확률이 낮아진다는 다수의 결과가 누적되어 있다. 결국 경제 세계화로부터 투표율 하락까지 이어지는 인과관계의 고리 중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은, 과연 경제 세계화가 국가의 정책 자율성을 약화시키고, 그 결과로 정당 간 정책이 수렴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슈타이너와 마틴(Steiner and Martin 2012)은 이와 같은 문제의식 하에서 “정당 강령 비교 프로젝트(the Comparative Manifestos Project)”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24개의 선진 민주주의 국가의 사례를 분석하였는데, 분석 결과 경제 세계화가 심화된 국가일수록 경제 정책에 있어서의 정당 간 좌-우 수렴 현상이 강하게 나타났고, 이와 같은 수렴 현상이 낮은 투표율로 나타났다. 그러나 신생 민주주의 국가의

경우, 아직 경제 세계화로부터 투표율 하락까지의 긴 인과관계의 고리가 여전히 많은 부분에서 비어 있다.

둘째로, 한 국가 내에서도 경제 세계화에 반응하는 유권자의 인식 정도는 다를 수 있다. 골든(Golden 2004)이 이탈리아의 전후 정당 체계의 사례를 통해 증명한 바와 같이, 한 국가 내에서도 국제 무역에의 노출 정도는 선거 지역구에 따라 다양할 수 있다. 실제로 이탈리아 정당체계의 ‘재배열(realignment)’이 이루어졌던 1992년 총선거에서 국제적 변수의 영향력은 매우 컸지만, 실제로 그와 같은 경제 세계화의 영향력은 지역별로 달랐다. 따라서 추후의 연구들이 경제 세계화와 국내 정치(nation-level politics) 간의 관계를 보다 정확히 설명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국가들 간의 분산뿐만 아니라 국가 내에서의 지역적 차이 또한 고려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신생 민주주의 국가’라는 카테고리 내부의 다양성이다. ‘선진 민주주의 국가’와 ‘신생 민주주의 국가’ 사이의 비교에 초점을 맞춘 본 연구는, 신생 민주주의 국가들이 갖는 공통성에 주목하여 동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의 민주주의 국가들을 하나의 카테고리 안에 포함하였다. 그러나 그와 같은 공통성에도 불구하고, 각 지역, 그리고 각국이 갖고 있는 제도적 유산이나 정당들 간 경쟁의 맥락(contexts)은 크게 상이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신생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경제 세계화와 투표율 하락 간의 관계에 대한 본 연구의 발견은, 추후의 연구를 위한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다. 추후의 연구를 통해 오늘날 신생 민주주의 국가들의 급격한 투표율 하락의 원인에 대한 보다 설득력 있고, 보다 구체화된 설명을 제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1. 국문

- 강원택. 2008. "투표참여, 민주주의와 정당 정치: 2007년 대선과 2008년 총선에
서의 기권자 분석." <현대정치연구> 1(2): 75-102.
- 강원택. 2010. <한국 선거정치의 변화와 지속>. 파주: 나남.
- 김욱. 1998. "투표참여와 기권: 누가, 왜 투표하는가?" 이남영 편. <한국의 선거
II: 제15대 대통령선거를 중심으로>. 서울: 푸른길.
- 동아시아연구원. 2010. "유권자 투표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제
5회 지방선거 사례를 중심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연구보고서.
- 박찬욱. 1992. "유권자의 선거관심도, 후보인지능력과 투표참여의사: 제14대 총선
전 조사결과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26(3): 153-174.
- 박찬욱. 1996. "제15대 국회의원 총선거결과 개관: 선거 후 유권자 면접조사자료를
중심으로." 세종연구소 편. <제15대 총선 분석>. 서울: 세종연구소.
- 서현진. 2008. "제17대 대선과 투표참여." 이현우, 권혁용 편. <변화하는 한국 유
권자 2>. 서울: 동아시아연구원.
- 안용흔. 2010. "선거제도, 사회균열, 그리고 의회정당체제-신생민주주의국가 사례
를 중심으로." <현대정치연구> 3(2): 37-59.
- 이갑윤. 2008. "투표율저하 원인과 제고방안 분석." 2008년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연구보고서.
- 이남영. 1993. "투표참여와 기권." 이남영 편. <한국의 선거 I>. 서울: 나남.
- 정수현. 2012. "투표율과 사회경제적 지위모델: 제4회와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율 분석." <한국정치연구> 21(1): 27-54.

2. 영문

- Abramowitz, Alan I, and Walter J Stone. 2006. "The Bush effect: Polarization, Turnout, and Activism in the 2004 Presidential Election." *Presidential Studies Quarterly* 36 (2):141-54.
- Abramson, Paul R., John H. Aldrich, and David W. Rohde. 1998. *Change and Continuity in the 1996 Elections*. Washington, DC: CQ Press
- Abramson, Paul R, John H Aldrich, and David W Rhode. 2002. *Change and Continuity in the 2000 Elections*. Washington, DC: CQ Press.
- Anderson, Christopher J., and Pablo Beramendi. 2012. "Left Parties, Poor Voters, and Electoral Participation in Advanced Industrial Societies."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45 (6):714-46.
- Andrews, David M. 1994. "Capital Mobility and State Autonomy: Toward a Structural Theory of International Monetary Relations."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38:193-218.
- Ashenfelter, Orley, and Stanley Kelley, Jr. 1975. "Determinants of Participation in Presidential Elections." *Journal of Law and Economics* 18 (3):695-733.
- Avi-Yonah, Reuven S. 2000. "Globalization, Tax Competition, and the Fiscal Crisis of the Welfare State." *Harvard Law Review* 113 (7):1573-676.
- Barnes, Samuel H. 1997. "Electoral Behavior and Comparative Politics." In Mark I. Lichbach and Alan S. Zuckerman, eds. *Comparative Politics: Rationality, Culture, and Structur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asinger, Scott J, and Mark Hallerberg. 2004. "Remodeling the Competition for Capital: How Domestic Politics Erases the Race to the Bottom."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8 (2):261-76.
- Beeson, Mark, and Iyanatul Islam. 2005. "Neo-liberalism and East Asia: Resisting the Washington Consensus." *The Journal of Development Studies* 41 (2):197-219.
- Berelson, Bernard R, Paul F Lazarsfeld, and William N McPhee. 1986. *Voting: A Study of Opinion Formation in a Presidential Campaig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Bhatti, Y., and K. M. Hansen. 2012. "The Effect of Generation and Age on Turnout to the European Parliament - How Turnout Will Continue to Decline in the Future." *Electoral Studies* 31 (2):262-72.
- Birch, Sarah. 2005. "Single-member District Electoral Systems and Democratic Transition." *Electoral Studies* 24 (2):281-301.
- Blais, André. 2000. *To Vote or Not to Vote: The Merits and Limits of Rational Choice Theory*. Pittsburgh: University of Pittsburgh Press.
- Blais, André, and R. Kenneth Carty. 1990. "Does Proportional Representation Foster Voter Turnout?"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Research* 18 (2):167-81.
- Blais, André, and Agnieszka Dobrzynska. 1998. "Turnout in Electoral Democracies."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Research* 33 (2):239-61.
- Blais, André, E. Gidengil, and N. Nevitte. 2004. "Where does Turnout Decline Come From?"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Research* 43 (2):221-36.
- Brockington, David. 2009. "It's About The Benefits Choice Environments, Ideological Proximity and Individual Participation in 28 Democracies." *Party Politics* 15 (4):435-54.
- Campbell, Angus, Philip E Converse, Warren E Miller, and Donald E Stokes. 1980. *The American Voter*.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Chapman, Randall G, and Kristian S. Palda. 1983. "Electoral Turnout in Rational Voting and Consumption Perspectives."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9 :337-46.
- Converse, Philip E, and Richard Niemi. 1971. "Non-voting among Young Adults in the United States." *Political Parties and Political Behavior* 2.
- Conway, M Margaret. 2001. "Women and Political Participation." *Political Science & Politics* 34 (2):231-3.
- Cox, Gary W, and Michael C. Munger. 1989. "Closeness, Expenditures, and Turnout in the 1982 US House Elections."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3 (1):217-31.
- Crewe, Ivor. 1981. "Electoral Participation." In D. Butler, H. Penniman, and A. Ranney, eds. *Democracy at the Polls: A Comparative Study*

- of Competitive National Elections*. Washington, DC: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for Public Policy Research.
- Denver, David T, and Gordon Hands. 1974. "Marginality and Turnout in British General Elections."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4 (1):17-35.
- Downs, Anthony. 1957. *An Economic Theory of Democracy*. New York: Harper.
- Eagles, Munroe. 1991. "Voting and Non-voting in Canadian Federal Elections: An Ecological Analysis." *Voter Turnout in Canada* 15:3-32.
- Endersby, James W, and Jonathan T. Kriekhaus. 2008. "Turnout Around the Globe: The Influence of Electoral Institutions on National Voter Participation, 1972-2000." *Electoral Studies* 27 (4):601-10.
- Farrell, David M. and Paul Webb. 2002. "Political Parties as Campaign Organizations." In R. J. Dalton and M. P. Wattenberg, eds. *Parties without Partisans: Political Change in Advanced Industrial Democracie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Feldstein, Martin. 1998. "Refocusing the IMF." *Foreign Affairs - New York* 77:20-33.
- Ferejohn, John A, and Morris P. Fiorina. 1974. "The Paradox of not Voting: A Decision Theoretic Analysis."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68 (2):525-36.
- Filer, John E, Lawrence W. Kenny, and Rebecca B. Morton. 1991. "Voting Laws, Educational Policies, and Minority Turnout." *Journal of Law and Economics* 34 (2):371-93.
- Fiorina, Morris P. 1976. "The Voting Decision: Instrumental and Expressive Aspects." *Journal of Politics* 38 (2):390-413.
- Fiorina, Morris P., Samuel J. Abrams, and Jeremy Pope. 2005. *Culture War?* New York: Pearson Longman.
- Flanigan, William H. and Nancy H. Zingale. 1998. *Political Behavior of the American Electorate*. Washington, DC: CQ Press.
- Flickinger, Richard S. and Donley T Studlar. 1992. "The Disappearing Voters? Exploring Declining Turnout in Western European Elections." *West European Politics* 15 (2):1-16.

- Fornos, Carolina A, Timothy J. Power, and James C. Garand. 2004. "Explaining voter turnout in Latin America, 1980 to 2000."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37 (8):909-40.
- Franklin, Mark N. 2001. "Electoral Participation." In Richard G. Niemi and Leon A. Weisberg, eds. *Controversies in Voting Behavior, 4th edition*. Washington, DC: CQ Press.
- Franklin, Mark N. 2004. *Voter Turnout and the Dynamics of Electoral Competition in Established Democracies since 1945*.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Frohlich, Norman, Joe A. Oppenheimer, Jeffrey Smith, and Oran R. Young. 1978. "A Test of Downsian Voter Rationality: 1964 Presidential Voting."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72 (1):178-97.
- Gallego, A. 2009. "Where Else Does Turnout Decline Come From? Education, Age, Generation and Period Effects in Three European Countries." *Scandinavian Political Studies* 32 (1):23-44.
- Gallego, Aina, Guillem Rico, and Eva Anduiza. 2011. "Disproportionality and Voter Turnout in New and Old Democracies." *Electoral Studies* 31 (1):159-169.
- Genschel, Philipp. 2002. "Globalization, Tax Competition, and the Welfare State." *Politics & Society* 30 (2):245-75.
- Ghobarah, Hazem. 1998. "The Decline in Voter Turnout across the Advanced Industrial Countries, 1980-1998." Paper presented at the APSA Meetings, Boston.
- Glassman, Jim, and P?draig Carmody. 2001. "Structural Adjustment in East and Southeast Asia: Lessons from Latin America." *Geoforum* 32 (1):77-90.
- Glenn, Norval D, and Michael Grimes. 1968. "Aging, Voting, and Political Interest."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33:563-75.
- Goerres, Achim. 2009. *The Political Participation of Older People in Europe: the Greying of Our Democracies*. Basingstoke: Palgrave Macmillan.
- Golden, Miriam. 2004. "Economic Sources of Regime Change: How European Integration Undermined Italy's Postwar Party System."

-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37 (10):1238-74.
- Goldstein, Kenneth M, and Travis N. Ridout. 2002. "The Politics of Participation: Mobilization and Turnout over Time." *Political Behavior* 24 (1):3-29.
- Gosnell, Harold Foote. 1927. *Getting Out the Vote: An Experiment in the Stimulation of Voting*.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Granger, Clive WJ, and Paul Newbold. 1974. "Spurious Regressions in Econometrics." *Journal of Econometrics* 2 (2):111-20.
- Gray, M., and M. Caul. 2000. "Declining Voter Turnout in Advanced Industrial Democracies, 1950 to 1997: The Effects of Declining Group Mobilization."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33 (9):1091-122.
- Hays, Jude C. 2003. "Globalization and Capital Taxation in Consensus and Majoritarian Democracies." *World Politics* 56 (1):79-113.
- Hellwig, Timothy T. and David Samuels. 2007. "Voting in Open Economies: The Electoral Consequences of Globalization."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40(3): 283-306.
- Highton, Benjamin, and Raymond E. Wolfinger. 2001. "The First Seven Years of the Political Life Cycle."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45 (1):202-9.
- Hirczy, Wolfgang. 1995. "Explaining Near-universal Turnout: The Case of Malta."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Research* 27 (2):255-72.
- Hobolt, S, and Robert Klemmensen. 2006. "Welfare to Vote: the Effect of Government Spending on Turnout." Paper for the presentation at the Midwest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 Huckfeldt, Robert, and John Sprague. 1987. "Networks in Context: The Social Flow of Political Information."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1 (4):1197-216.
- Huntington, Samuel P. 1993. *The Third Wave: Democratization in the Late Twentieth Century. Vol. 4*. Norman and London: University of Oklahoma Press.
- Jackman, Robert W. 1987. "Political Institutions and Voter Turnout in the Industrial Democracies."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1 (2):405-23.
- Jackman, Robert W, and Ross A. Miller. 1995. "Voter Turnout in the

- Industrial Democracies During the 1980s."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27 (4):467-92.
- Kahler, Miles and David A. Lake. 2003. "Globalization and Governance." In Miles Kahler and David A. Lake, eds. *Governance in a Global Econom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Karp, Jeffrey A, and Susan A Banducci. 2007. "Party Mobilization and Political Participation in New and Old Democracies." *Party Politics* 13 (2):217-34.
- Kernell, Samuel, and Gary C. Jacobson. 2000. *The Logic of American Politics*. Washington, DC.: CQ Press.
- Kleppner, Paul. 1982. *Who Voted?: The Dynamics of Electoral Turnout, 1870-1980*. New York: Praeger Publishers.
- Kostadinova, T. 2003. "Voter Turnout Dynamics in Post-Communist Europe."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Research* 42 (6):741-59.
- Kramer, Gerald H. 1970. "The Effects of Precinct-level Canvassing on Voter Behavior." *Public Opinion Quarterly* 34 (4):560-72.
- Kwon, Hyeong-ki. 2012. "Politics of Globalization and National Economy: The German Experience Compared with the United State." *Politics and Society* 40(4): 581-607.
- Lee, Dwight R, and Richard B. McKenzie. 1989. "The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of Declining Tax Rates." *National Tax Journal* 42 (1):79-83.
- Lewis-Beck, Michael S, and Brad Lockerbie. 1989. "Economics, Votes, Protests Western European Cases."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22 (2):155-77.
- Lipset, Seymour M. 1960. *Political Man: The Social Basis of Modern Politics*. New York: Doubleday.
- MacIntyre, Andrew J., T. J. Pempel, and John Ravenhill. 2008. *Crisis as Catalyst: Asia's Dynamic Political Economy*.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 Marshall, John, and Stephen D. Fisher. 2010. "Economic Globalization and Turnout: Compensation, Constraint and Ownership." Paper read at American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2010 Annual Meeting. Washington, DC.

- Matsusaka, John G., and Filip Palda. 1993. "The Downsian Voter Meets the Ecological Fallacy." *Public Choice* 77 (4):855-78.
- Milbrath, Lester and M. L. Goel. 1977. *Political Participation: How and Why Do People Get Involved in Politics?* Chicago: Rand McNally.
- Miller, Warren E., and J. Merrill Shanks. 1996. *The New American Voter*.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 Mitchell, Glenn E., and Christopher Wlezien. 1995. "The Impact of Legal Constraints on Voter Registration, Turnout, and the Composition of the American Electorate." *Political Behavior* 17 (2):179-202.
- Mueller, Dennis C. 2003. "Public Choice: An Introduction." In C. K. Rowley and F. Schneider, eds. *The Encyclopedia of Public Choice*. New York: Kluwer Academic Publishers.
- Nevitte, Neil, Andre Blais, Elisabeth Gidengil, and Richard Nadeau. 2009. "Socio-economic Status and Non-Voting: A Comparative Cross-National Analysis." In 18th World Congress of the International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Québec City, Canada.
- Nohlen, D., Grotz, F., Hartmann, C., 2001a. *Elections in Asia and the Pacific: A Data Handbook, Volume 1: The Middle East, Central Asia and South Asia*.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Nohlen, D., Grotz, F., Hartmann, C., 2001b. *Elections in Asia and the Pacific: A Data Handbook, Volume 2: Southeast Asia, East Asia and the Pacific*.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Nohlen, D. 2005a. *Elections in the Americas: A Data Handbook, Volume 1: North America, Central America, and the Caribbea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Nohlen, D. 2005b. *Elections in the Americas: A Data Handbook, Volume 2: South America*.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Nohlen, Dieter, and Philip Stöver. 2010. *Elections in Europe: A Data Handbook*. Baden-Baden: Nomos.
- Northmore-Ball, Ksenia. 2012. "Increasing Turnout Inequality in Post-Communist Eastern Europe: Economic Disengagement or a Progression to Normalcy?" EPOP Conference, September 7-9, 2012.
- O'Donnell, Guillermo, Philippe C. Schmitter, and Laurence Whitehead. 1986. *Transitions from Authoritarian Rule: Southern Europe*.

-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Pacek, Alexander, and Benjamin Radcliff. 1995. "The Political Economy of Competitive Elections in the Developing World."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39 (3):745-59.
- Pacek, Alexander. 1994. "Macroeconomic Conditions and Electoral Politics in East Central Europe."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38 (3):723-44.
- Pacek, Alexander, Grigore Pop-Eleches, and Joshua A. Tucker. 2009. "Disenchanted or Discerning: Voter Turnout in Post-Communist Countries." *Journal of politics* 71 (2):473-91.
- Plumper, Thomas, Vera E. Troeger, and Hannes Winner. 2009. "Why is There no Race to the Bottom in Capital Taxation?"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53 (3):761-86.
- Plutzer, Eric. 2002. "Becoming a Habitual Voter: Inertia, Resources, and Growth in Young Adulthood."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6 (1):41-56.
- Pop-Eleches, Grigore. 2009. *From Economic Crisis to Reform: IMF Programs in Latin America and Eastern Europ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Powell Jr, G. Bingham. 1984. *Contemporary Democracies: Participation, Stability, and Violence*.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Powell Jr, G. Bingham. 1986. "American Voter Turnout in Comparative Perspective."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0 (1):17-43.
- Quinn, Dennis. 1997. "The Correlates of Change in International Financial Regulation."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1 (3):531-51.
- Radcliff, Benjamin. 1992. "The Welfare State, Turnout, and the Economy: A Comparative Analysis."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6 (2):444-54.
- Riker, William H., and Peter C. Ordeshook. 1968. "A Theory of the Calculus of Voting."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62 (1):25-42.
- Rosenstone, Steven J. 1982. "Economic Adversity and Voter Turnout."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26 (1):25-46.

- Rosenstone, Steven J., and John Mark Hansen. 1993. *Mobilization, Participation, and Democracy in America*. New York: Macmillan Pub. Co.
- Rosenthal, Howard, and Subrata Sen. 1973. "Electoral Participation in the French Fifth Republic."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67 (1):29-54.
- Sachs, Jeffrey, and John Williamson. 1986. "Managing the LDC Debt Crisis." *Brookings papers on Economic Activity* 1986 (2):397-440.
- Steiner, Nils D. 2010. "Economic Globalization and Voter Turnout in Established Democracies." *Electoral Studies* 29 (3):444-59.
- Steiner, Nils D. and Christian W. Martin. 2012. "Economic Integration, Party Polarisation and Electoral Turnout." *West European Politics* 35 (2):238-65.
- Steinmo, Sven. 1993. *Taxation and Democracy: Swedish, British, & American Approaches to Financing the Modern State*.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Stockemer, Daniel, and Patricia Calca. 2012. "Presidentialism and Voter Turnout in Legislative Elections." *Parliamentary Affairs* 65 (4):802-21.
- Strate, John M., Charles J. Parrish, Charles D. Elder, and Coit Ford. 1989. "Life Span Civic Development and Voting Participation."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3 (2):443-64.
- Teixeira, Ruy A. 1992. *The Disappearing American Voter*.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Press.
- Turner, Arthur W. 1993. "Postauthoritarian Elections Testing Expectations about "First" Elections."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26 (3):330-49.
- Uhlener, Carole Jean. 1989. "'Relational Goods" and Participation: Incorporating Sociability into a Theory of Rational Action." *Public Choice* 62 (3):253-85.
- Vachudova, Milada A. and Liesbet Hooghe. 2009. "Postcommunist Politics in a Magnetic Field: How Transition and EU Accession Structure Party Competition on European Integration." *Comparative European Politics* 7: 179-212.

- Verba, Sidney, and Norman H. Nie. 1972. *Participation in America: Political Democracy and Social Equality*. New York: Harper & Row.
- Verba, Sidney, Norman H. Nie, and Jae-on Kim. 1978. *Participation and Political Equality*. Cambridge, [Eng.]: Cambridge University Press.
- Verba, Sidney, Kay Lehman Schlozman, and Henry E. Brady. 1995. *Voice and equality: Civic Voluntarism in American Politic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Vreeland, James Raymond. 2003. *The IMF and Economic Development*.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Wade, Robert. 1998. "The Asian Debt-and-Development Crisis of 1997-?: Causes and Consequences." *World Development* 26 (8):1535-53.
- Wass, H. 2007. "The Effects of Age, Generation and Period on Turnout in Finland 1975-2003." *Electoral Studies* 26 (3):648-59.
- Wolfinger, Raymond E., and Steven J. Rosenstone. 1980. *Who vote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부 록

<표 10> 데이터 출처 : 집합 수준 분석 모델

변수명	출처
투표율(VAP)	International IDEA(2013). http://www.idea.int/vt/index.cfm
민주주의 나이(민주주의 유형)	Cheibub and Gandhi (2004). "A six-fold measure of democracies and dictatorships." Freedom House(2013). "Country ratings and status, FIW 1973-2013." http://www.freedomhouse.org/report-types/freedom-world
경제 세계화 지수	Dreher et al.(2008). "The KOF index of globalization." http://globalization.kof.ethz.ch
IMF 구조조정경험	IMF(2013). "IMF Lending Arrangement." http://www.imf.org/external/np/fin/tad/extarr1.aspx/
좌파 정당 득표율 & 선거 경쟁도	"Election Resources on Internet." http://www.electionresources.org "Political Database of the Americas." http://pdba.georgetown.edu/Elecdata/elecdata.html "Adam Carr's Election Archive." http://psephos.adam-carr.net/ Nohlen and Stöver(2010); Nohlen et al.(2001a; 2001b); Nohlen(2005a; 2005b).
GDP 대비 사회복지 지출 비율	World Bank(2013).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http://databank.worldbank.org/data/views/variableSelection/selectvariables.aspx?source=world-development-indicators#
강제 투표제	International IDEA(2013).
선거 제도 (선거의 비례성)	International IDEA(2013); Golder(2007). "Replication data for: Democratic Electoral Systems Around the World, 1946-2000." http://hdl.handle.net/1902.1/10479 UNF:3:Tck3h2JpUzohauPCbNIm5w== Matt Golder [Distributor] V1 [Version]
정부 형태	Norris(2009). "Democracy Time-series Dataset." http://www.hks.harvard.edu/fs/pnorris/Data/Data.htm
교육 수준	HDRO(2011). "Education Index (expected and mean years of schooling)." http://hdrstats.undp.org/en/indicators/103706.html
1인당 GDP	World Bank(2013).

<표 11> 선거 목록 : 집합 수준 분석 모델

민주주의 분류	국가명	
선진 민주주의 (17개)	오스트리아	1983, 1990, 1994, 1995, 1999, 2002, 2006, 2008
	캐나다	1984, 1988, 1993, 1997, 2000, 2004, 2006, 2008, 2011
	이탈리아	1983, 1987, 1992, 1994, 1996, 2001, 2006, 2008, 2013
	아이슬란드	1983, 1987, 1991, 1995, 1999, 2003, 2007, 2009
	스웨덴	1985, 1988, 1991, 1994, 1998, 2002, 2006, 2010
	덴마크	1987, 1988, 1990, 1994, 1998, 2001, 2005, 2007, 2011
	네덜란드	1986, 1989, 1994, 1998, 2002, 2003, 2006, 2010, 2012
	핀란드	1983, 1987, 1991, 1995, 1999, 2003, 2007, 2011
	일본	1986, 1990, 1993, 1996, 2000, 2003, 2005, 2009, 2012
	아일랜드	1987, 1989, 1992, 1997, 2002, 2007, 2011
	영국	1983, 1987, 1992, 1997, 2001, 2005, 2010
	프랑스	1988, 1993, 1997, 2002, 2007, 2012
	독일	1990, 1994, 1998, 2002, 2005, 2009
	스위스	1983, 1987, 1991, 1995, 1999, 2003, 2007, 2011
	미국	1986, 1990, 1994, 1998, 2002, 2006, 2010
	룩셈부르크	1984, 1989, 1994, 1999, 2004, 2009
	노르웨이	1985, 1989, 1993, 1997, 2001, 2005, 2009
신생 민주주의 (21개)	알바니아	1991, 1992, 1996, 1997, 2001, 2005, 2009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1996, 1998, 2000, 2002, 2006, 2010
	불가리아	1990, 1991, 1994, 1997, 2001, 2005, 2009, 2013
	칠레	1989, 1993, 1997, 2001, 2005, 2009
	크로아티아	1992, 1995, 2000, 2003, 2007, 2011
	체코	1990, 1992, 1996, 1998, 2002, 2006, 2010
	에스토니아	1990, 1992, 1995, 1999, 2003, 2007, 2011
	인도네시아	1999, 2004, 2009
	한국	1985, 1988, 1992, 1996, 2000, 2004, 2008, 2012
	라트비아	1990, 1993, 1995, 1998, 2002, 2006, 2010, 2011
	리투아니아	1992, 1996, 2000, 2004, 2008, 2012
	몽골	1990, 1992, 1996, 2000, 2004, 2008, 2012
	파나마	1994, 1999, 2004, 2009
	파라과이	1989, 1993, 1998, 2003, 2008, 2013
	필리핀	1987, 1992, 1995, 1998, 2001, 2004, 2007, 2010
	폴란드	1989, 1991, 1993, 1997, 2001, 2005, 2007, 2011
	루마니아	1990, 1992, 1996, 2000, 2004, 2008, 2012
	슬로바키아	1990, 1992, 1994, 1998, 2002, 2006, 2010, 2012
	슬로베니아	1990, 1992, 1996, 2000, 2004, 2008, 2011
	우크라이나	1994, 1998, 2002, 2006, 2007, 2012
	우루과이	1984, 1989, 1994, 1999, 2004, 2009

<표 12> 선거 목록 : 개인 수준 분석 모델 (CSES Module 3)

민주주의 분류	국가명
<p>선진 민주주의 (17개)</p>	<p>오스트레일리아(2007), 오스트리아(2008), 캐나다(2008), 아이슬란드(2007; 2009), 스웨덴(2006), 덴마크(2007), 핀란드(2007; 2011), 프랑스(2007), 독일(2005; 2009), 아일랜드(2007), 이스라엘(2006), 일본(2007), 네덜란드(2006; 2010), 뉴질랜드(2008), 노르웨이(2005; 2009), 스위스(2007), 미국(2008)</p>
<p>신생 민주주의 (14개)</p>	<p>칠레(2009), 대만(2008), 크로아티아(2007), 체코(2006; 2010), 에스토니아(2011), 한국(2008), 라트비아(2010), 페루(2011), 필리핀(2010), 폴란드(2005; 2007), 루마니아(2009), 슬로바키아(2010), 슬로베니아(2008), 우루과이(2009)</p>

Abstract

Declining Turnout in New Democracies: The Effect of Economic Globalization

Jungmin Song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and International Relations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Contrary to former voter turnout studies that focused solely on the cases of established democracies, this paper extends the theoretical discussion to cases of new democracies by examining why the levels of turnout in new democracies have declined more dramatically than they have in established democracies. The theoretical model builds on the premise that the process of economic integration reduces the ability of national policy makers to influence economic outcomes, and this, in turn, reduces the expected utility from voting because the results of elections make less of a difference. In this sense, this paper hypothesizes that the starker declining turnout in new democracies compared to established democracies is largely attributable to the negative turnout effect of economic globalization, as most new democracies experienced economic globalization during difficult times, such as regime changes or financial

crises. An analysis of the aggregate data for parliamentary elections in 17 established democracies and 21 new democracies that have been established since the mid-1980s robustly supports the hypothesis that economic globalization the effect of economic globalization is much greater in new democracies than in established democracies. Additionally, considering the weakness of the long causal chain of the economic globalization hypothesis, this paper compensates for that weakness by conducting a multi-level analysis. Using the CSES Module 3, the individual-level comparative survey data, this paper has determined that the result of individual-level analysis is consistent with the result of aggregate-level analysis.

keywords : turnout, declining turnout, new democracies, established democracies, economic globalization, policy convergence.

Student Number : 2011-20209